

발간등록번호

11-1380000-002325-0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연구책임자: 이순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문무경(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최연실(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이숙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하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우현경(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농림부

경 고

이 보고서는 서울대학교가 농림부의 위임을 받아 연구한 용역연구결과이므로 이 보고서의 지적 소유권자는 농림부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 복사 인용은 불법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연구책임자: 이순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문무경(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최연실(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이숙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하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우현경(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연구 요약문

연구과제명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연구기간	2006. 4. 18 - 2006. 10. 17

I.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첫째,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 및 언어, 문화, 가족, 육아, 교육, 사회 적응 문제를 분석하며, 셋째, 적응 성공 사례들을 조사, 발굴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넷째, 국제결혼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토대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농림부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농촌사회의 특성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1995년 1.01%이었으나 그 이후 1% 이하로 감소하였고 현재 출산율로 예측해보면 2022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특히 농촌 인구는 1995년부터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농촌 연소인구는 1985년 4,260,180명에서 2000년 1,741,651명으로 50%이상 감소하였고, 농촌 노동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농촌의 인구학적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 가구의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1995년부터는 농외소득이 농촌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8.4%이지만 이 가운데 농림어업종사자 비율은 11.5%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비스직종사자의 비율은 21.0%로 증가 추세이다. 농촌 여성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소는 가정일과와 자녀교육이며 많은 경우 육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의 생활문화를 의식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4년 농촌 근로자의 총 가계수입

중 피복비 지출비율은 3.0%로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며, 농가 음식물 지출구성비는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주식물비가 50.0%에서 27.5%로 감소한 반면 외식비가 10.6%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주생활 환경은 농촌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70.2%로 대부분이었으며, 거주지 소유 여부는 자기 소유인 경우가 78.9%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변문화 여가시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이들이 원하는 문화시설로는 체육시설이 가장 많았다.

농촌의 교육수준은 무학력이 19.0%, 초등학교 졸업이 25.8%, 중학교 졸업이 13.9%, 고등학교 졸업이 28.%, 전문대졸업 이상이 12.6%로 고졸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 무학력자도 19.0%로 도시(5.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4년 농촌의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11.8%이며, 농촌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은 36.4%였다. 농촌의 보육시설은 2001년 1,873곳에서 2004년 1,643곳으로 감소하였다.

2. 국제결혼의 배경요인

국제결혼의 발생원인은 전쟁, 식민지 경험, 노동력 이동, 관광, 유학, 연예활동 등의 문화교류, 결혼알선기관의 활성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노동력의 이동은 국제결혼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므로 국제결혼을 경제적 차원의 교류로도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노동이동에서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이 주목받고 있는데,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가족부양의 의무를 담당하고, 계층상승을 이루려고 국제결혼시장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인 여성들이 농촌 및 도시 하류층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어 외국인 여성들이 이들 남성의 배우자로 들어오는 결혼이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의 잦은 접촉은 결혼으로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국제결혼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하고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국제결혼상담소나 국제결혼알선기관도 급증하여 국제결혼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률의 증가에 따른 이민족과의 문화적 접촉과 갈등은 지금까지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와 국제결혼에 의한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귀화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간이 귀화한 여성들에게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짧은 기간에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알선으로 혼인하여 입국하고 있다. 특히 혼인으로 무작정 입국한 경우,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사이 뿐만 아니라 한국인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그로 인한 폭력, 별거, 이혼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차원에서의 적응지원이 요구된다.

3.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현황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인의 국제결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혼인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3.7%이었지만 2005년에는 13.6%였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국제결혼건수의 약 70% 이상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말부터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국동포 등 해외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찾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 통계 결과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가운데 10명 중 4명 정도(35.9%)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였다.

출신국가별로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총 31,180건 중 중국이 20,635건(66.2%), 베트남이 5,822건(18.7%), 일본이 1,255건(4.0%) 순이었다.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최근 5년 만에 약 600%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진다. 2005년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 총 11,941명 중 중국 남성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남성이 30.8%, 미국 남성이 11.8%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은 도시 대 농촌이 3:1 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여성으로 그들의 5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유형은 전체 응답자 926명 중 둘 다 초혼인 경우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국별로 중국 동포,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여성과 혼인한 경우 남성이 재혼이고 여성은 초혼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일본여성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가 91.0%로 다른 출신국의 여성보다 비율이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4.3세, 그들 남편의 평균 연령은 41.3세이었으며,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로 남편의 나이가 더 많은 편이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은 평균 26.7세이고 그들의 남편은 평균 38.1세이어서 나이차가 평균 11.4년으로 가장 큰 반면 일본 여성은 평균 39.0세이고 그들의 남편은 평균 40.6세이어서 나이차가 평균 1.6년으로 가장 작았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3가지로 실시되었다.

첫째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농촌지역의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166명과 남편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로 한글교육을 위해 모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는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1:1로 진행하였다.

둘째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업체 및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혼이민 담당공무원, 베트남 호치민 영사, 사회복지사, 교육담당자 및 결혼중개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공적인 지원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5개 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4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2006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 조사는 2006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졌다.

그 외에 2005년 두리안 결혼정보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화상담기록을 분석하여 가족특성과 주요갈등내용, 상담의 방향 및 현재 적응상황을 정리하였으며, 베트남 성혼과정을 3일간 참여관찰 하였다.

Ⅲ. 국제결혼업체 현황

현재 국제결혼관련 업체는 법적으로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통해서 존립하므로 법적인 규제나 기준이 없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업체가 수백 개라는 추정만 할 뿐 실제로 몇 개나 되며 어떤 규모이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국제결혼업체 종사자들은 인적 배경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도로에 붙여진 벽보내용, ‘베트남 처녀는 도망가지 않습

니다' 에서 보듯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이러한 업체들이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4월 21일,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도 국제결혼이 베트남 여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알려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베트남 여자 유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베트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호치민에 있는 한국 영사도 공산주의 사회인 베트남에서 매매혼이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인식은 만연되어 있지만 베트남 여성과 심층 면접한 결과 사실은 이들의 인식과는 다르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매매혼으로 오인 되는 혼인과 더불어 오는 금전적 도움이라기보다는 잘사는 국가에 결혼하는 것으로써 베트남 농촌의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이유가 있었다. 즉 문제는 국제결혼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가 국제결혼을 시장화하면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언론과 한국 언론의 질타에 대해서 업체 안에서도 자정노력이 시도되었다. 2005년 연말에 창립총회를 열고 국제결혼정보업협회를 결성해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2006년 4월 4일자 Naver.com). 주요 내용은 첫째 일대일 맞선으로 결혼 진행방법 개선, 둘째 불법 현수막 자제 및 내용 수정, 셋째 베트남법 준수 등이었다(한겨레 21).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 사회인식 역시 달라져,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동시에 인권단체 등에 의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행 꿈을 가진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비자를 기다리느라고 호치민 영사관에 넘쳐나는 한 현재의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결혼행동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혼인을 저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국제결혼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국제결혼을 인정하면서 외국에서 낯선 한국사회로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그들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IV. 농촌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1. 국제결혼과정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총 164명 중 68명은 베트남, 36명은 일본, 15명은 중국, 45명은 필리핀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은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77.9%), 일본(100%)과 필리핀(73.3%)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소개받은 비율이 높았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몇 번을 만났는지를 부인에게 물었을 때, 32.1%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곧 결혼한 경우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개 받은 후 결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베트남출신의 여성이 가장 짧아 85.3%가 소개받은 지 1주일 안에 결혼하였다. 남편을 소개받은 과정에서 처가에 지불한 돈이 있는지를 부인에게 물었을 때, 85.6%(101명)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14.4%(17명)는 돈을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남편이 돈을 지불한 경우는 모든 소개방법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부인을 소개받은 경우 돈을 지불한 비율이 73.2%로 가장 높았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 선택하도록 했을 때 33.1%(45명)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응답했으며, 26.5%(36명)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22.0%(31명)가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응답했다. 출신국에 따라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응답과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남편에게 외국 여성과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48.4%(48명)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가장 많은 수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34.8%), 다음으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인지를 고려했다는 응답을 하였다(32.3%). 남편에게 현재의 부인과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점을 물었을 때 37.8%가 한국에서의 생활, 특별히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인지를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외국 여성과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총 응답자 135명 중 46.7%(63명)가 혼자서 결정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님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도 26.7%(36명)로 나타났다.

결혼을 결정할 때 제공받은 남편의 정보와 실제의 일치정도를 물었을 때, 61.4%가

일치했다고 응답했으며 31.6%는 약간 달랐다고 응답했다. 종교단체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 전혀달랐다는 응답이 12.1%로 나타나 소개받은 방법 중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게 결혼을 결정할 때 제공받은 부인의 정보와 실제의 일치정도를 물었을 때, 61.2%가 일치했다고 응답했으며 32.8%는 약간 달랐다고 응답했다. 제공받은 정보와 실제가 달랐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정보가 실제와 다른지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여성의 경우 직업이 달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성격이 달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혼 이전에 여성의 40.9%가 본국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였으며 다음으로 34.1%가 농어촌에, 20.7%가 대도시에서 거주하였다.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농어촌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각각 63.9%, 60.0%로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본국에서 하던 일은 베트남의 경우 가사일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영농일도 20.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80.6%가 기타에 속하였으며, 영농일에 종사하였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도 가사나 영농보다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하였던 경우가 86.6%로 크게 많았으며, 필리핀의 경우에도 일본과 유사하게 58.1%가 기타에 속했다.

결혼이전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4.1%가 한글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5.9%는 한글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3.3%가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통해 한글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베트남 여성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한글교육 경험이 66.7%로 다른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평균이 4.11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1%가 본국에서 문화예절교육을, 17.8%가 생활정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4.4%는 한국인과의 결혼에 앞서 이러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부부관계

조사 대상자의 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초혼인 경우가 96.1%이었으며 재혼인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초혼인 경우가 80.1%이었으며 재혼인 경우 18.3%이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구성으로는 부부와 시댁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사는 경우(21.8%), 부부끼리

만 사는 경우(21.1%), 부부와 자녀 및 시댁가족이 사는 경우(20.4%) 순으로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 147명의 평균결혼기간은 4.4년이었는데, 일본 여성의 경우 9.2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필리핀이 4.8년, 중국이 3.8년, 베트남이 1.4년이였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실력에 대해 각각 35.0%, 34.2%, 30.9%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쓰기 실력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28.1%)과 약간 서툴다는 응답(27.5%)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남편의 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에 대해서는 각각 62.7%, 58.5%, 58.9%, 63.3%가 매우 서툴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과 보통 이상으로 대화하는 비율이 약 95.1%이었으며 시댁가족과 보통 이상으로 대화하는 비율은 78.7%로 남편과의 대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여성(3.48점)과 필리핀 여성(3.59점)이 일본 여성(3.11점)보다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대화와 시댁가족과의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가 부부간 대화 및 시댁가족과 대화 모두 31.3%(부인응답), 40.0%(남편응답),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 및 육아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식사준비, 시장보기, 빨래, 청소 등 가사를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63.3%이었고, 자녀와 놀아주기, 돌보기, 숙제 도와주기 등 육아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5.8%이었고, 친척 길흥사, 반상회나 주민모임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5.2%이었고, 구청이나 은행 일을 보는 등 공공업무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2.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보통 정도이며 심층 면접에서도 여성들이 남편의 가사참여를 좀 더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남편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한국문화 및 예절(24.3%), 친족관계(16.4%), 한국생활(12.5%), 자녀양육(11.8%), 음식 만들기(10.5%), 농사일(7.9%), 전통의례(5.9%), 농촌생활(2.0%), 가사노동(2.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대인관계는 시부모(19.5%), 남편(18.8%), 친인척(9.7%) 순으로 나타났다. 48.1%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성들이 도움을 얻는 상대는 남편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에 사는 본국 친구(24.5%), 본국의 친정부모 및 가족(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웃(1.3%)이나 시부모(2.6%) 및 시댁식구(2.0%)에게 도움을 얻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 시부모, 친구, 행정기관, 민간단체 각각으로부터 심리적 위로, 생활정보 제공, 방문 및 연락을 받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위로는 평균 3.90점(135명)으로 남편의 지원이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은 친구(3.50점)였다. 생활정보 제공도 남편의 지원이 3.47점(1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3.29점)이었다. 방문 및 연락은 친구의 지원이 3.60점(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부장주의 가치관 및 부부평등주의 가치관에 대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부장주의 가치관은 5점 만점에서 전체평균이 3.21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출신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부부평등주의 가치관은 베트남 여성(3.61점)과 일본 여성(3.27점)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들의 가부장제 의식의 평균점수는 3.44점이었고 부부평등의식은 3.29점으로 부인보다 더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부 평등 의식이 낮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존감과 심리증상에 대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서 3.58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심리증상의 경우 일본 여성이 다른 출신국 여성보다 심리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부싸움 빈도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30.3%, 1년에 1-2회가 12.9%, 6개월에 1-2회가 17.4%, 한달에 1-2회가 28.4%, 일주일에 1-2회 이상이 11%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68.9%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49.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편을 신뢰하고 있는지, 결혼생활이 행복한지에 대하여 각각 33.8%, 35.9%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74%의 응답자들이 남편과 다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가 52.4%, 가끔 있다가 28.7%였다. 의견 차이를 말로 해결하는 경우는 41.7%가 가끔 있다고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21.7%), 금전관리 및 소비(15.8%)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습관, 사고방식 및 가치관, 의사소통이 각 10%로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원인은 시부모 및 친척관계(13.3%), 자녀양육 및 교육과 성격(12.1%), 의사소통(11.0%)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부싸움 후에 주로 상의하는 대상은 본국인 친구(31.5%), 친정 식구나 친척(18.1%), 시댁 식구나 친척(12.8%), 종교단체 성직자(9.4%),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4.0%), 제3국인 친구나 상담소 상담원(1.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남편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 153명 가운데 언어적 학대가 28.1%(43명), 응답자 147명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9.5%(14명), 응답자 144명 가운데 성적 학대가 9%(13명)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대를 경험한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학대 종류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경

우가 35.7%(15명), 외출금지가 24.4%(10명), 의처증이 22%(9명), 송금 금지가 26.8%(11명), 신분증을 빼앗는 행위가 22%(9명)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르는 경우가 52.9%로 절반 이상이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사용한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38.2%(13명)의 여성이 아무런 방법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35.3%(12명), 상담소 방문 상담이 14.7%(5명),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가 5.9%(2명)였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변인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권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50.7%의 여성이 권장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결혼 후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는 비슷하거나 좋아진 경우가 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3. 자녀양육과 부모자녀관계

전체 응답 여성 166명 중 81명인 48.8%가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17.5%로 가장 많고, 자녀가 두 명인 사람이 16.3%, 자녀가 세 명인 사람이 10.8%, 자녀가 네 명 이상인 사람이 4.2%였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대부분은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학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가 92.6%, 취학 자녀만 있는 경우는 7.4%에 불과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종류는 민간/사립 시설 비율이 40.5%로 가장 높고, 국공립 시설이 25.7%, 교회 등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9.5%, 어떤 보육시설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8.9%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으로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과, 보육시설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주변에 적절한 보육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자녀 보육 및 교육 시설 적응 수준을 보면 자녀가 시설에 매우 잘 적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 어느 정도 적응하는 비율이 39.5%였으며, 자녀가 보육 및 교육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37.0%가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라 응답했다.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해 여성들이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또래관계, 급간식, 교육방식, 의사소통 이었으며, 순위에 상관없이 학업, 의사소통, 또래관계, 교육방식, 교사와의 관계, 잦은 부모참여 순서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교사와 의사소통 하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51.9%, ‘별로 못한다’ 고 대답한 비율은 27.8%, ‘잘하는 편이다’ 는 15.2%, ‘매우 잘하는 편이다’ 와 ‘전혀 못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였다.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72.2%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대답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성 본인이 바빠서 15.3%였고 소수 의견으로 교사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거나 교사가 나와의 대화를 피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교사가 전달하는 편지나 알림장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하원 시간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였다. 32.5%가 전화로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 또는 다른 가족이 교사와 의사소통한다는 비율도 10.4%를 차지했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 매우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5%, 별로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로 대부분 여성들은 자녀들의 한국어 실력이 보통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는 주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질문한 결과 자녀가 구분 없이 모두와 잘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인 부모 가정의 자녀와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9.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와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7.1%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특수한 친구집단을 구성하여 어울리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다' 고 대답한 비율이 93.8%로 국제결혼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78.5%, 공부 잘하는 것이 45.2%,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23.7%,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19.4%였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1순위로 응답한 항목은 건강과 안전(42명), 주변사람들에 대한 예절(14명), 식습관(10명)이었으며, 순위에 상관없이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건강과 안전(56명), 예절(50명), 친구관계(33명), 언어발달(26명), 훈육방법(24명), 학업성적(23명)이었다. 자녀양육과 교육 시 어려운 점으로 3가지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꼽은 항목은 사교육 또는 양육비용(36명), 돌볼 사람이 없는 점(18명), 건강관리(7명), 성적과 학습(7명)이었으며,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사교육 또는 양육비용(52명), 성적과 학습(29명), 돌볼 사람이 없는 것(28명), 건강관리(22명)였다. 혼혈인으로서 정체성 혼란(16명)의 경우 1순위로는 1명만이 선택했지만 3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이었다.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구하는지 물었을 때 1순위로 남편을 선택한 사람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의 본국 친구(18명), 시부모와 친척(7명), 자녀의 교사(5명), TV 및 라디오(5명), 인터넷(4명)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응답자(29명)가 남편을 선택하였고, TV 및 라디오(28명), 한국의 본국친구(25명), 자녀의 교사(19명), 육아서적과 잡지(18명), 인터넷(15명)의 순서로 지적했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여성들이 응답한 남편 및 시댁식구와의 갈등정도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많았고 가끔 있다가 33.3%, 종종 있다는 18.9%, 매우 자주 있다는 3.3%였다.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로는 자녀교육에서 자신과 남편과의 가치관과 방식의 차이가 42.9%, 자녀의 영양과 건강문제가 26.8%로 나타났다.

평소에 자녀와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히 많이 한다가 29%, 매일 조금씩 한다가 28%, 너무 어려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없다가 24.7%, 필요한 경우만 한다가 16.1%, 거의 하지 않는다가 2.2%였다. 자녀와의 대화를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과반 수 이상인 54.2%가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시간이 없어서가 13.6%, 자녀가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6.8%였다. 가정에서 자녀와 주로 함께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 책 읽어 주기가 32.1%, 숙제와 공부 돕기가 22.6%, 놀이·게임·운동하기가 12.3%, 대화하기가 10.4%, TV보기와 가사일이 각각 4.7% 정도였다. 자녀 숙제를 도와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한 결과 85.3% 여성이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66.2%가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자녀의 생활태도와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 등에 대한 항목은 그저 그렇다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영농일 종사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45.5%가 자녀가 영농일을 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별로 원하지 않는다가 23.2%, 보통이다가 23.2%, 조금 원한다와 매우 원한다가 각각 6.1%, 2.0%로 조사되었다.

4. 가족과의 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의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는 딸이 낯선 곳에 가서 고생활까 걱정하는 경우(54.4%)가 많았다. 59.9%가 결혼 후 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었으며, 25.8%가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었고, 21.7%가 시댁 가족들이 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친정 가족을 만난 후 시댁 가족들의 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좋아진 경우가 41.7%였으며 변화가 없는 경우가 56%였고, 더 나빠진 경우는 2.4%였다. 본국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7%,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5.3%로 유사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67.7%)과 필리핀(85.4)은 도와준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9.4%)과 중국(20%) 여성은 도와준 경우가 적었다. 본국 가족과 지난 1년간 통화한 횟수는 한 달에 1-2회가 50.9%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혼에 대한 남편과 시댁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시댁은 동일하게 3.68점으로 결혼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점수로는 중국 여성의 남편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본 여성의 시댁 가족이 만족도가 높았다.

5. 이웃 · 지역사회와의 관계

한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웃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없다 가 35.8%, 1~3명이 35.8%, 4~6명이 10.8%, 10명 이상이 13.5%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웃들과 주로 함께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항목별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일상적 대화가 2.62점, 경조사 돕기가 2.19점, 농사일 돕기가 2.11점, 어려운 일 의논이 2.02점, 생활용품 빌리기가 1.89점, 돈거래가 1.78점, 아기 맡기기와 집보기가 1.57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웃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소외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성들이 이웃을 만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는 항목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 52.9%, 별로 그렇지 않다 19.1%, 보통이다 19.1%로 응답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역사회 행사 참여 경험을 정도를 질문한 결과 48.5%는 전혀 없다, 34.1%는 몇 번 있다, 17.4%는 많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 수 이상의 여성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아기가 어려서, 몰라서,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 못해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본국 여성과의 만남 정도를 조사한 결과 1주일에 1번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고, 1달에 1번 정도가 25.5%,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만 한다가 22.1%,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가 4.8%였다. 만나는 장소와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한글교실 51.6%, 친구집 또는 자기집 34.7%, 교회 33.7%, 집근처 공원이나 시장 15.8%, 각종 모임이나

행사 5.3%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국 여성들과 만나서 주로 하는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한국생활의 적응문제가 62.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신의 부부관계가 33.8%, 임신/출산/양육 문제가 32.4%, 취업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10.1%, 친정에 대한 이야기가 8.8%였다. 본국 여성과의 만남이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이 없었다가 66.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약간 있었다가 21.9%, 종종 있다가 9.9%, 자주 있다가 1.3%로 나타났다. 본국 여성들과의 만남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가 31.4%, 그저 그렇다가 30.7%,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28.1%, 별 도움이 안된다가 7.8%,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2.0%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여성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 여성간의 양모결연 및 자매결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9.3%로 나타났는데, 양모(자매)결연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7%, 매우 도움이 된다가 23.3%, 조금 도움이 된다가 17.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2.3%,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9.6%였다.

6.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부적응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두리안 결혼정보회사에서 지난 2005년 실시한 전화상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화상담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아내)와 한국 남성(남편)이며, 필요할 경우 시부모, 자녀 등 가족들도 상담한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은 베트남 출신으로 국제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 베트남어로 진행하며, 한국인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상담은 사장, 지사장, 실장 등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담당한다.

전화상담은 초기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경우와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베트남 여성이나 한국 남성이 통역을 필요로 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무실의 상담 전용 전화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는다.

전화상담의 기본은 통역으로 통역을 통해 서로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해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갈등해결의 핵심이 된다. 결혼이민자의 적응문제로 자주 상담이 이루어지는 주제는 부부갈등, 시부모 및 시댁가족와의 갈등, 재혼가정의 경우 나타나는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

V. 결혼이민자 가정의 요구

1. 한국에서의 생활실태 및 요구

한국과 본국의 문화차이를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9.7%가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9%는 많이, 23.2%는 보통으로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편들에게도 문화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7.2%가 문화차이를 가끔 또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느 영역에서 문화차이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1순위로 생활문화에 대한 차이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차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의 경우 1순위로 생활문화에 대한 차이를 경험한다고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을 보고하도록 한 결과 42.9%가 결혼 후 6개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2. 교육참여 실태 및 요구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어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음식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 중인 교육도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음식교육, 부부공동참여교육, 한국문화교육이 다음으로 많았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교육으로는 직업 및 기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부부공동참여교육과 취미 및 여가교육 경험도 낮은 편이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하는 교육이 주변에 개설되지 않아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라는 응답, 생활이 바빠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 참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는 응답,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부인과 남편의 경우 모두 한국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빈도조사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부인의 경우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한국요리 실습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 한국요리 실습교육, 한국문화교육,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교육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원하는 한글교육의 지원형태를 물었을 때, 부인과

남편 모두 공공건물에 모여 집단으로 지도하는 형태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응답자 중 다수가 이미 공공건물에 모여 집단으로 지도하는 형태의 한글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동네 사람들을 가까운 장소에 모아 교육하는 소집단 지도를 선호하는 경우도 부인과 남편에게서 각각 32.6%, 22.0%씩 나타났다.

한글교육 이외에 참여를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군 소재지 등에서 집단으로 실시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7.9%(127명)는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22.1%(43명)는 참석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참석할 수 없다고 보고한 이유로는 농사일이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30.2%), 교통편이 없다(25.6%),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23.3%) 등이 있었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가장 필요를 느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총 응답자 108명 중 27명이 부인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1순위로 들었고, 다음으로 26명이 부인 국가의 언어교육을, 18명이 국제결혼에 대한 남편교육을 1순위로 들었다. 2순위와 3순위로 필요성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는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이나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교육이 유사한 비율로 보고되었다. 남편들에게 희망하는 교육담당자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37.7%(43명)가 시군청의 관련 공무원을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30.7%(35명)가 민간인 전문가를 선호하였다.

3. 취업실태 및 취업교육요구

현재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9.4%(24명)가 취업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80.6%(100명)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했다. 현재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22.7%(10명)가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 충당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20.5%),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13.6%), 자기발전을 위해(11.4%),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현재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31.2%가 자녀양육과 한국말이 서툴러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13.5%),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2.7%),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7.1%)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43.0%(58명)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서 알려주길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19.7%(26명)는 훈련비 지원을, 17.8%(24명)는 창업교육을, 14.0%(19명)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원했다.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54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조리사 자격증과 미용사 자격증을

선호하였다. 이 외에도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미장공, 원예, 도배공의 순서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였으며, 기타 취득을 원하는 자격증으로는 관광통역 등이 있었다.

4. 영농실태 및 교육요구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34.9%(44명)는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65.1%(82명)는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농사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몸이 힘들고 고되며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편들에게 부인이 현재 농사일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51.9%(55명)가 집안살림만 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준다는 응답이 23.6%(25명),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20.8%(22명)였다. 앞으로 농사일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8.9%(42명)는 계속해서 집안살림만 담당하기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38.0%(41명)는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주기 원한다고 응답하여 76.9%의 남편들이 부인들의 적극적인 농업참여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하기 원하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함께 농사일을 하기 원하는 경우는 각각 16.7%(18명), 6.5%(7명)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42.9%(48명)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57.1%(64명)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영농교육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주로 현재의 농사품목과 관련하여 더 앞선 기술을 전수받거나 수익이 높은 작물의 재배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남편의 경우 46.2%(49명)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53.8%(57명)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부인과 비슷한 수준의 수요를 보였다. 부인의 영농교육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물었을 때 채소 등 밭농사법(35.0%), 특화작물 재배법(20.0%), 논농사법(15.0%), 하우스재배법(6.7%)의 순서로 선호를 보였다. 영농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남편에게 물었을 때 40.6%(26명)가 한 동네 사람을 한 가정에 모이게 해서 지도하는 소집단 지도를 선호했으며, 비슷하게 37.5%(24명)가 공공건물에 모여서 지도하는 집단지도를 원했다.

5. 공공지원요구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18.0%(25명)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82.0%(114명)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23.0%(28명)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77.0%(94명)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에 대해 조금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5%(23명),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6.3%(10명),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1%(5명)로 나타났다.

VI.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지원현황

1. 정부의 지원현황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들이 각 부처별로 발표되었다. 2006년 발표된 각 부처의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가족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여성결혼이민자 1366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어교재 개발관련 관련부처 협력의 여섯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개설 지원,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1대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교원연수 강화(소수자 배려 교육·한국어(KSL) 교육·한국문화 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 중3 도덕교과에 ‘타문화 편견 극복’ 단원 포함,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한 지역단위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활성화의 여섯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적 취득 전 우리국적 자녀 양육시 자활사업 및 긴급지원 실시, 생활안내 책자 배부, 자녀학습 지원의 세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기본실태조사 실시(전수조사), 지자체의 전담기구·인력 확보 지원의 두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5) 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외국인정책실무협의회 운영의 두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6)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정보화교육 실시, 온라인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공동추진사업(농림부 공동추진)의 두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7)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실시의 두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2.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현황

15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20개 기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및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었고 23개의 기관은 현재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사업 운영주체와 방식을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지자체의 역할 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협력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외의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와 교육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협력하는 경우는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이들과 협력하는 경우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로는 많이 실시되는 순서대로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요리교육, 컴퓨터교육, 자녀교육, 부부교육이 있으며,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심리상담교육, 자녀교육, 취업교육, 취미교실 등도 실시되고 있다.

교육담당자는 주로 자원봉사자, 교사, 건강가정사, 대학 강사, 교수, 대학원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담전문가, 한국어학당 강사, 연구소 연구원, 사회복지사, 문화원직원, 학습지 교사 등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이 98지역, 중국이 88지역, 일본이 78지역, 필리핀이 105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어 이들 4개국의 경우 골고루 교육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타이완,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도 일부지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처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혜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양과 종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지원 사업이, 모든 결혼이민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사업들의 문제점과 앞으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성, 형식적 사업으로 걸보기에만 거창하고 내실이 없다는 사업들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넷째, 기존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VII. 정부 지원정책 제언

1. 정책의 방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옹호적 정책을 실시한다.
- 2) 여성의 인권존중 및 보호정책을 실시한다.
- 3) 농촌인력 육성책을 실시한다.
- 4) 다문화주의적 통합 정책을 실시한다.
- 5)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을 실시한다.
 -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관리한다.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제안

이상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인권보호정책을 실시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결혼 초기 가정방문상담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핫라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 폭력에 대한 도피처로 쉼터를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출산할 때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출신국 언어로 제작된 자녀양육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농촌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며, 자녀 학습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를 위한 공부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 적응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일상적 상담 체계 구축하여 초기적응을 지원해야 하며, 특별히 출신국별로 먼저 이루어져 정착한 상담 도우미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가족관계 교육 정책을 실시한다.

부부관계 교육을 제공하여 결혼생활의 안정을 돕고, 고부관계 및 친척관계에 대한 교육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대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주의 교육환경 조성 정책을 실시한다.

유아용, 초등학생용 및 청소년용 다문화주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교사대상 다문화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교육환경조성 정책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반편견 사회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일급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영농활동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체계적으로 취업정보 제공해야한다. 무엇보다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영농활동지원을 해야 한다.

여덟째,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정책을 실시한다.

업체 신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체 종사자 자격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아홉째, 출입국관리 업무체계의 강화정책을 실시한다.

여성결혼자의 입국과 관련된 결혼이민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밀입국자 색출 및 관리에 충실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보호해야한다.

차 례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의 배경	2
1. 농촌사회의 특성	2
1) 농촌의 인구학적 특성	2
2) 농촌의 경제 및 사회	3
3) 농촌의 생활문화	5
4) 농촌의 교육	8
2. 국제결혼의 배경요인	9
1) 국제결혼에 대한 선행연구동향	9
2) 노동시장의 변화	11
3) 국제결혼의 여성화	14
4)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의식(가치관)의 변화	15
5) 결혼시장의 현실 및 국제결혼시장의 상품화	18
6) 현행 입국 및 이주관련 법안	19
3.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현황	22
1) 국제결혼의 전국 현황	22
2) 출신국가별 현황	24
3) 거주도별 현황	27
4) 결혼지위별 현황	29
5) 연령별 현황	29
4. 연구방법	30
1) 조사대상 및 분석자료	30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	30
(2) 결혼이민 관련인사	35
(3) 결혼이민자 행정 담당 공무원	36
(4) 결혼중개업체(두리안)의 전화상담기록	37
2) 연구방법	37
(1)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설문조사	37
(2) 여성결혼이민자 심층면접	38
(3) 결혼이민 관련인사 면접조사	38
(4) 전화조사	40
(5) 상담기록 질적분석	41
(6) 성혼과정 참여관찰	41
3) 연구접근틀	42
III. 국제결혼업체 현황	43
1. 업체의 난립	43
2. 업체의 자격문제 및 종사자 자질문제	43
3. 매매혼의 오명	45
4. 협회결성과 자정결의	47
5. 국제결혼업체의 제도화 필요성	47
6.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	48
IV.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	49
1. 국제결혼과정	49
2. 부부관계	64
3. 자녀양육과 부모자녀관계	85
4. 가족과의 관계	106
5. 이웃·지역사회와의 관계	111
6.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부적응	118

V. 결혼이민자 가정의 요구	129
1. 한국에서의 생활 및 요구	129
2. 교육참여실태 및 요구	131
3. 취업실태 및 취업교육요구	138
4. 영농실태 및 교육요구	141
5. 공공지원요구	144
VI.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현황	147
1. 정부의 지원현황	147
2.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현황	154
VII. 정부 지원정책 제언	181
1. 정책의 방향	181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제언	183
1) 여성의 인권보호 정책	183
2)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	184
3) 한국사회 적응 지원 정책	188
4) 가족관계 교육 정책	188
5) 다문화주의 교육환경 조성 정책	189
6) 사회교육환경조성 정책	190
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영농활동 지원 정책	191
8)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 정책	192
9) 출입국관리 업무체계의 강화 정책	193
참고문헌	194
부록: 질문지	199

표 차 례

<표 2-1> 총인구 및 지역별 인구	2
<표 2-2> 3대 연령집단별 인구분포	2
<표 2-3> 월평균 가구소득	3
<표 2-4> 여성취업자 비율	3
<표 2-5> 농촌여성취업의 장애 요인	4
<표 2-6> 출산 전·후 휴가일수(2004)	4
<표 2-7> 농번기 자녀양육자	4
<표 2-8> 피복비 지출액	5
<표 2-9> 농가 음식물비 지출구성비	5
<표 2-10> 간식종류	6
<표 2-11> 가족의 외식빈도	6
<표 2-12> 주택의 형태(2000)	6
<표 2-13> 주택의 점유형태(2000)	7
<표 2-14> 문화·여가시설 만족도(2004)	7
<표 2-15> 필요·여가시설(2003)	7
<표 2-16> 국민교육수준(2000)	8
<표 2-17>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8
<표 2-18> 유치원 취원율(2004)	9
<표 2-20> 보육시설 현황(2001)	9
<표 2-21> 인터넷상의 국제결혼 알선기관	18
<표 2-22>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	22
<표 2-23> 2005년 농림어업종사자(남성)와 외국 여성과의 혼인	24
<표 2-24>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출신국별 현황	25
<표 2-25>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출신국별 혼인	26
<표 2-26> 농림어업종사자와 혼인한 외국 여성의 출신국별 혼인 건수	27
<표 2-27> 시도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 혼인건수	28

<표 2-28>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거주지역	29
<표 2-29> 출신국별 결혼유형	29
<표 2-30>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30
<표 2-31> 설문조사대상여성의 출신국별, 거주도별 인원	31
<표 2-32> 설문조사대상 여성의 일반적 특성	32
<표 2-33> 설문조사대상남성의 아내 출신국별, 거주도별 인원	33
<표 2-34> 설문조사대상 남성의 일반적 특성	34
<표 2-35> 면접조사대상여성의 출신국별, 거주도별 인원	35
<표 2-36> 국제결혼관련 면접대상 인원	36
<표 2-37> 2005년 두리안 전화상담 내담자 남성의 일반적 특성	37
<표 2-38>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업무담당 지방공무원 및 실무자 면접질문 개요	38
<표 2-39>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면접질문 개요	39
<표 2-40> 전화조사 질문내용	40
<표 4-1> 부인의 출신국별 소개 방법	49
<표 4-2> 소개 방법별 결혼 전 외국여성을 소개받은 횟수	50
<표 4-3> 부인의 출신국별 결혼 전 남편을 만난 횟수	51
<표 4-4> 소개 방법별 결혼 전 부인을 만난 횟수	52
<표 4-5> 부인의 출신국별 소개 후 결혼까지 걸린 시간	52
<표 4-6> 부인의 출신국별 돈 지불 여부	54
<표 4-7> 소개 방법별 돈 지불 여부	54
<표 4-8> 부인의 출신국별 한국인과 결혼한 1순위 이유	55
<표 4-9> 부인의 출신국별 한국인과 결혼한 2순위 이유	55
<표 4-10>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유	56
<표 4-11> 부인의 출신국별 결혼 결정시 가장 많이 고려한 것	57
<표 4-12> 외국 여성과의 결혼 결정시 가장 많이 고려한 것	58
<표 4-13> 외국 여성과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	58
<표 4-14> 소개방법별 배우자 제공정보의 정확성	59
<표 4-15> 소개시 제공받은 정보와 실제가 다른 점	60

<표 4-16>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거주지역	61
<표 4-17>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 하던 일	61
<표 4-18>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한글교육경험	62
<표 4-19>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한글교육방법	63
<표 4-20> 한글교육을 받은 것이 한국에 왔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 정도	63
<표 4-21>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 받은 교육	64
<표 4-22> 결혼이민자 가정의 결혼 유형	65
<표 4-23>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구성원	66
<표 4-24>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기간	66
<표 4-25>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67
<표 4-26> 출신국별 부인의 한국어 실력 점수 차이	67
<표 4-27> 남편의 부인 나라말 실력	68
<표 4-28> 부인의 출신국별 남편의 부인 나라말 실력 점수 차이	68
<표 4-29> 대화의 빈도	70
<표 4-30> 남편 및 가족과 대화 점수 차이	70
<표 4-31> 대화의 내용	71
<표 4-32>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 빈도	72
<표 4-33> 출신국별 남편의 가사참여도 점수	72
<표 4-34>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	73
<표 4-35> 결혼생활 중 힘든 대인관계	74
<표 4-36>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 있을 때 도움 얻는 상대	74
<표 4-37>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지원 정도	75
<표 4-38> 출신국별 가족 가치관	77
<표 4-39> 개인의 내적심리 증상	78
<표 4-40> 부부싸움 빈도	78
<표 4-41> 부부관계	79
<표 4-42> 출신국별 남편과의 관계	79
<표 4-43> 부부갈등 대처방법	80

<표 4-44> 갈등의 원인	81
<표 4-45> 부부싸움 후에 상의하는 대상	82
<표 4-46> 남편의 학대 경험	82
<표 4-47> 남편의 학대 행동종류	83
<표 4-48> 가정폭력 경험 후 도움 받는 방법 인지 여부	83
<표 4-49> 가정폭력 경험 후 사용한 해결방법	84
<표 4-50> 해결방법의 유용성	84
<표 4-51> 국제결혼 권유에 대한 생각	85
<표 4-52> 결혼 후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	85
<표 4-53> 자녀 수	86
<표 4-54> 미취학 자녀 여부	86
<표 4-55>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87
<표 4-56>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87
<표 4-57> 자녀의 기관 적응	88
<표 4-58> 자녀의 기관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	88
<표 4-59>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한 우려점	89
<표 4-60> 교사와의 의사소통 정도	90
<표 5-61> 교사와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90
<표 4-62> 교사와의 의사소통 방식	91
<표 4-63> 자녀의 한국어 능력 정도	92
<표 4-64> 자녀가 잘 어울리는 친구	92
<표 4-65>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	93
<표 4-66>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94
<표 4-67> 부인이 응답한 자녀교육에서의 관심사	95
<표 4-67.1> 남편이 응답한 자녀교육에서의 관심사	95
<표 4-68> 자녀양육 및 교육 시 어려운 점	96
<표 4-69>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곳	98
<표 4-70> 가족과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갈등	99
<표 4-71>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갈등 이유	99

<표 4-72>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남편의 역할	100
<표 4-73>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남편자신의 역할	101
<표 4-74> 자녀와의 대화 정도	102
<표 4-75>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	103
<표 4-76>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일	104
<표 4-77> 자녀의 숙제 도와주는 유무	104
<표 4-78> 자녀의 숙제 도와줄 때 어려운 점	104
<표 4-79> 자녀관계 만족도	105
<표 4-80> 자녀의 영농일 종사에 대한 입장	106
<표 4-81> 본국 부모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07
<표 4-82> 결혼 후 본국에 다녀온 경험 및 평균 횟수	107
<표 4-83>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간 경험 및 평균횟수	108
<표 4-84> 시댁 가족들이 본국에 다녀온 경험 및 평균횟수	108
<표 4-85> 친정 가족을 만난 후 시댁 가족들의 본인에 대한 태도	109
<표 4-86> 본국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경험	109
<표 4-87> 본국 가족과 지난 1년간 통화한 횟수	110
<표 4-88> 부인의 출신국별 남편과 시댁 가족의 부인에 대한 만족도	110
<표 4-89> 한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웃	111
<표 4-90> 한국인 이웃과 함께 하는 일	112
<표 4-91> 이웃에 대한 생각과 태도	112
<표 4-92> 지역사회 행사 참여 경험	113
<표 4-93> 한국에 있는 본국여성과의 만남 정도	114
<표 4-94> 만나는 장소와 방법	114
<표 4-95> 본국여성들과 하는 대화 내용	115
<표 4-96> 본국 여성들과의 만남으로 인한 부부 갈등	116
<표 4-97> 본국 여성과의 만남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6
<표 4-98> 한국여성들과의 양모(자매)결연 경험 유무	117
<표 4-99> 한국여성과의 양모(자매)결연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정도	117

<표 5-1> 출신국별 본국과의 문화차이 경험여부	129
<표 5-2> 본국과의 문화차이를 경험한 부분	130
<표 5-3>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	131
<표 5-4>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의 종류와 빈도	132
<표 5-5>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132
<표 5-6>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134
<표 5-7> 희망하는 한글교육 지원형태	135
<표 5-8> 군 소재지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136
<표 5-9> 국제결혼 남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137
<표 5-10> 희망하는 교육담당자	138
<표 5-11>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이유	139
<표 5-12> 취업을 못하는 이유	139
<표 5-13>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140
<표 5-14> 취업을 위해 취득하기 원하는 자격증	141
<표 5-15> 현재 부인의 농사일 참여정도 및 앞으로의 참여 희망정도	143
<표 5-16> 부인이 받기 원하는 영농교육의 내용	143
<표 6-1>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	147
<표 6-2> 관계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147
<표 6-3>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시행 여부	155
<표 6-4> 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담당부서 및 지원사업 현황	162
<표 6-5>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의 종류	169
<표 6-6>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참가 현황	175
<표 6-7> 민간단체 현황	179

그림 차례

<그림 2-1> 국제결혼 한국인 남녀별 비율	23
<그림 2-2> 2005년 남성혼인 대 국제결혼	24
<그림 2-3> 2005년 농촌 남성혼인 대 국제결혼	24
<그림 2-4> 한국 남성과 혼인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여성의 연도별 추이	25
<그림 2-5> 한국 여성과 혼인한 중국, 일본, 미국 남성의 연도별 추이	26
<그림 2-6> 농림어업종사자와 혼인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의 연도별 추이	27
<그림 2-7> 연구접근틀	42

I. 연구의 목적

최근 국제결혼은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며,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이 72.3%를 차지한다(통계청, 2005).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위장, 사기결혼 등으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결혼이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칠 중장기적인 파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다.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특히 도시와 생활여건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남성미혼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응의 문제점 및 그 원인을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는 국제결혼건수에서 농촌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수립, 추진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2차 계획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한 고충, 차별대우 등으로 농촌사회와 가정생활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점을 개인과 가정, 그리고 농촌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사자, 즉 이주여성의 입장과 함께 그 가정 전체의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범정부부처간의 정책적 연계와 협조 및 정책간 일관성을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정리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향점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삶과 욕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실태 및 언어, 문화, 가족, 육아, 교육, 사회 적응 등의 문제를 분석하며, 셋째,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적응 성공 사례들을 조사, 발굴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이상의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토대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농림부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농촌사회의 특성

1) 농촌의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1995년 1.01%이었으나 그 이후 1% 이하로 감소하였고 현재 출산율로 예측해보면 2022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표 2-1>과 같이 200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는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도시 인구는 증가한 반면, 농촌 인구는 감소하여 1995년부터 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표 2-2>에서 연령집단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노년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연소인구는 1985년 4,260,180명에서 2000년 1,741,651명으로 50%이상 감소하여 농촌의 인구학적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인구의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 간 차이가 있어서 도시 노동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의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1> 총인구 및 지역별 인구

(단위: 명)

연도	전 국	도 시	농 촌
1985	40,419,652	26,417,972	14,001,680
1990	43,390,374	32,290,055	11,100,319
1995	44,553,710	34,991,964	9,561,746
2000	45,985,289	36,642,448	9,342,841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2-2> 3대 연령집단별 인구분포

(단위: 명)

연도	도 시			농 촌		
	연소인구 (15세미만)	노년인구 (65세이상)	노동인구 (15-64세)	연소인구 (15세미만)	노년인구 (65세이상)	노동인구 (15-64세)
1985	7,834,710	792,902	17,790,038	4,260,180	956,647	8,784,755
1990	8,511,027	1,158,570	22,620,379	2,623,188	1,003,669	7,473,439
1995	8,306,599	1,514,517	25,170,671	1,928,905	1,125,688	6,506,921
2000	7,897,105	2,001,341	26,742,553	1,741,651	1,370,465	6,230,306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 농촌의 경제 및 사회

농촌지역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표 2-3>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농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외소득에 해당하였다.

<표 2-3>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원)

연도	연간	농업소득	농외소득			가처분소득
			농외소득	이전·비경상 소득포함	%	
1985	5,736,246	3,698,936	2,037,310	2,037,000	35.5	5,689,669
1990	11,025,781	6,263,889	4,761,892	4,762,000	43.2	10,965,423
1995	21,802,558	10,469,058	11,333,500	11,334,000	52.0	21,628,739
2000	23,072,123	10,897,081	12,175,042	12,175,000	52.8	22,838,398
2004	29,001,000	12,050,000	16,951,000	16,951,000	58.4	22,696,000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농촌진흥청의 농촌생활지표 조사 결과 68.4%로 나타났다.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농촌 여성 취업자 가운데 농림어업종사자 비율은 11.5%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비스직종사자의 비율은 21.0%로 증가 추세이다. <표 2-5>는 농촌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을 보여주는데, 응답자의 50.8%가 가정일과와 자녀교육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여성취업자 비율

(단위: %)

연도	계	전문/기술 행정/관리 직 종사자	사무 관련직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생산운수등 단순노동
1985	100.0	7.3	11.5	15.5	10.8	24.6	30.3
1990	100.0	8.7	13.0	14.5	11.1	18.1	34.6
2000	100.0	13.4	14.0	17.8	21.0	11.5	22.3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표 2-5> 농촌여성취업의 장애 요인

(단위: %)

연도	능력이 모자라서	가정일과 자녀교육상	승진 등 근로여건상	여자라는 이유	기타
2002	27.6	50.8	2.3	4.9	14.4
2004	17.8	59.9	2.9	9.3	10.1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농촌 및 도시 지역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일수를 <표 2-6>에서 살펴보면, 농림어가는 4-7일인 경우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농림어가와 도시는 21-30일인 경우가 각각 28.5%,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가 일주일 이내로 다른 여성들에 비해 훨씬 짧았는데, 이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일수의 차이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아닌 농업 종사 여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2-6> 출산 전·후 휴가일수(2004)

(단위: %)

구 분	0-3일 이하	4-7일 이하	8-10일 이하	11-15 일 이하	16-20 일 이하	21-30 일 이하	31일 이상	없음 /무응답	전체	평균
농림어가	17.9	33.4	13.2	11.8	9.5	12.5	1.6	0.3	100.0	11.8일
비농림어가	9.1	19.9	9.0	12.7	15.4	28.5	5.3	0.1	100.0	18.5일
도시	4.0	10.5	8.2	13.5	22.3	37.7	3.4	0.4	100.0	20.9일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림부,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농번기 농촌 가정의 자녀양육자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2002년에 비해 2004년에는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27.4%에서 36.2%로 증가하였고, 육아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34.9%에서 33.7%로 감소하였다.

<표 2-7> 농번기 자녀양육자(농촌)

(단위: %)

연도	부모	가족/친인척	육아시설	형제/친구와 논다	기타
2002	27.4	22.6	34.9	8.2	6.8
2004	36.2	24.3	33.7	4.6	1.2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3) 농촌의 생활문화

농촌의 생활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표 2-8>에서 도시와 농촌의 피복비 지출액을 알아보았다. 2004년 도시 근로자의 총가계비에 대한 피복비 지출 비율은 4.5%로 농촌 근로자의 비율 3.0%보다 약간 높았고, 지출금액은 도시근로자가 농촌근로자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표 2-8> 피복비 지출액

(단위: 원)

연도	도시근로자 총가계비		농가 총가계비			
	피복비	비율(%)	피복비	비율(%)		
1985	3,626,532	206,052	9.9	2,138,323	130,716	6.1
1990	7,799,628	655,284	8.4	8,227,213	377,805	4.6
1995	14,767,200	1,143,600	7.7	14,781,890	627,446	4.2
2000	19,377,600	1,111,200	5.7	18,003,433	497,910	2.8
2004	28,324,584	1,260,948	4.5	18,386,000	553,000	3.0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2-9>에서 농가 음식물 지출구성비를 살펴보면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주식 물비는 50.0%에서 27.5%로 감소하였고 외식비는 10.6%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표 2-10>과 같이 주로 먹는 간식의 종류는 과일류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면이나 국수류였다. <표 2-11>과 같이 2001년에는 외식을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한다는 응답이 20.0%였다. 2004년에도 외식을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표 2-9> 농가 음식물비 지출구성비

(단위: %)

연도	총액	종류						
		주식물비	부식물비	조미료	과실류	주류	기호품	외식비
1985	100.0	50.0	20.1	11.0	2.3	3.4	2.6	10.6
1990	100.0	40.5	25.1	9.2	3.9	3.7	3.8	13.8
1995	100.0	26.1	29.1	9.5	5.9	3.5	4.5	21.4
2000	100.0	27.5	27.7	8.8	5.5	3.1	4.6	22.7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2-10> 간식종류

(단위: %)								
연도	음료수	과일류	과자/사탕	빵	면/국수	곡류	김밥/만두/떡볶이	우유류
2001	7.6	53.7	5.6	5.5	13.8	4.8	1.7	7.2
2004	12.8	48.1	7.3	5.8	13.6	5.3	1.2	4.5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표 2-11> 가족의 외식빈도

(단위: %)						
연도	1주 1회	1달 1회	2달 1회	3달 1회	1년 1회	거의 안함
2001	5.7	20.0	6.2	4.9	12.1	51.0
2004	4.1	18.7	7.7	5.4	16.2	47.8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주택의 형태는 <표 2-12>와 같다. 도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농촌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70.2%로 가장 높았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표 2-13>와 같이 자기 소유인 경우가 도시는 67.7%, 농촌은 78.9%로 나타났다.

<표 2-12> 주택의 형태(2000)

(단위: 주택)				
주택형태	도시	비율(%)	농촌	비율(%)
계	8,123,046	100.0	2,836,296	100.0
단독주택	2,077,466	25.6	1,991,997	70.2
아파트	4,671,005	57.5	560,314	19.8
연립주택	691,371	8.5	121,501	4.3
비거주용	419,060	5.2	34,057	1.2
건물내 주택	264,144	3.3	128,427	4.5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2-13> 주택의 점유형태(2000)

(단위: 주택)

주택형태	도시	비율(%)	농촌	비율(%)
계	8,123,046	100.0	2,836,296	100.0
자가	5,296,826	67.7	2,238,231	78.9
전세	1,828,965	22.5	293,457	10.3
보증부월세	536,002	6.6	113,910	4.0
월세(사글세)	96,013	1.2	51,892	1.8
무상	165,240	2.0	138,806	4.9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표 2-14>와 같다. 농산어촌의 경우 문화 여가시설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은 반면 도시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21.7%였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문화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 거주자보다 낮았다. 농촌에 필요한 여가시설로는 <표 2-15>와 같이 60.7%가 체육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14> 문화·여가시설 만족도(2004)

(단위: %, 명)

연도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농산어촌	9.6	34.6	55.9	100.0(3,500)
도시	21.7	46.4	31.9	100.0(1,505)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림부,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표 2-15> 필요 여가시설(2003)

(단위: %, 명)

공공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체육시설	경로당	공공회관	기타
5.1	3.8	1.4	60.7	17.2	7.3	4.4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4) 농촌의 교육

교육수준은 <표 2-16>과 같이 도시는 무학력이 5.4%, 초등학교 졸업이 11.5%, 중학교 졸업이 13.2%, 고등학교 졸업이 40.4%, 전문대졸업 이상이 29.6%이어서, 고졸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많았다. 농촌은 무학력이 19.0%, 초등학교 졸업이 25.8%, 중학교 졸업이 13.9%, 고등학교 졸업이 28.%, 전문대졸업 이상이 12.6%이어서, 고졸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 무학력자도 19.0%로 도시(5.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16> 국민교육수준(2000)

교육수준	도 시		농 촌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무 학	1,204,258	5.4	1,197,449	19.0
초 졸	2,581,568	11.5	1,626,447	25.8
중 졸	2,961,620	13.2	877,162	13.9
고 졸	9,086,235	40.4	1,800,843	28.6
전문대졸 이상	6,668,445	29.6	791,237	12.6
계	22,502,126	100.0	6,293,138	100.0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표 2-17>과 같아서, 1985년 도시는 6.8%였고, 농촌은 11.8%였다. 2003년까지 도시 근로자의 총가계비 대비 교육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3%였으나 농촌의 교육비 지출비율은 약 10%대에서 계속 머물렀다.

<표 2-17>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연도	도시근로자			농가		
	총가계비	교육비	비율(%)	총가계비	교육비	비율(%)
1985	3,626,532	248,124	6.8	4,690,854	555,338	11.8
1990	7,799,628	587,808	7.5	8,227,213	862,435	10.5
1995	14,767,200	1,380,000	9.3	14,781,890	1,553,337	10.5
2000	19,377,600	2,109,600	10.9	18,003,433	1,834,460	10.2
2003	23,239,236	3,563,520	15.3	18,162,000	2,069,000	11.4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원출처: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04년 농촌과 도시 지역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은 <표 2-18>과 같이 각각 36.4%, 36.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보육시설 현황은 <표 2-19>와 같아서 2001년 보육시설의 수는 농촌이 1,873곳, 도시가 18,224곳으로 도시 보육시설이 약 10배가량 많았다. 2004년 조사 결과 도시 내 보육시설은 22,786곳으로 증가한 반면 농촌은 1,643곳으로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는 보육시설이 증가한 반면 농촌은 보육시설이 감소하여 농촌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8> 유치원 취원율(2004)

(단위: %, 명)

농산어촌	도시
36.4(85,627명)	36.8(372,234명)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림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표 2-20> 보육시설 현황(2001)

(단위: 곳)

연도	구분	전국	도시	농촌
2001	시설수	20,097	18,224	1,873
	아동수	743,287	643,604	99,683
2004	시설수	24,429	22,786	1,643
	아동수	710,522	638,237	72,285

자료: 농촌진흥청, 2005 농촌생활지표
(원출처: 농림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2. 국제결혼의 배경요인

1) 국제결혼에 대한 선행연구동향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내용과 성격은 1990년대 이후 증가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노동력 유입에 따라 급격하게 변모된다. 이 시기 이후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 이전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과는 성격

이 많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 제3세계에서 건너온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한국여성이 결혼한 경우, 외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거주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오직 가족을 임시 방문하는 권리만을 지닌 실정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 본인도 외국인 노동자 남편의 주변적 지위를 수여받게 되는 상황이었다(전수현, 2002).

1990년대 이후에는 조선족들이나 중국인들의 한국노동시장 유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국제결혼도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일본과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유지되어오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국제결혼의 양상은 중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과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연예산업의 진출로 인한 한류열풍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감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정부나 민간차원에서도 중국이나 일본과의 사회문화적 상호교류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추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이들 국가의 미래세대들 사이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정서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¹⁾,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양극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즉 한국사회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전수현, 2002).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이 이중적임을 의미한다. 즉, 서구문명국가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다소 열등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 인종주의(racism) 같은 문화심리적인 양상을 보이며 후진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우월의식을 과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제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1980년대 말까지는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란 주로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남편을 따라 곧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Kim, 1972, 1977; Lee, 1981). 이러한 연구들은 미군 아내의 대부분이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까지 겹쳐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 2003년 리서치 앤 리서치는 조사대상 600명에게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허락하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45%는 '본인이 원한다면 허락', 54%는 '본인이 원해도 불허'라고 대답했다. 미혼남녀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한 결과, 60%는 '사랑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 40%는 '사랑해도 결혼은 곤란하다'고 해 부모보다는 국제결혼에 적극적이었다. 자료 출처: 2003년 9월 20일 조선일보.

Yuh(2002)는 직접 만나본 미군 아내들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기지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른 일반 미국교포와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미국사회는 물론 교포사회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자기들만의 여성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특히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불평등한 국가관계가 어떻게 부부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 또는 일본으로 혼인이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주체에 따라 이주여성 및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는 단체, 특정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주여성지원단체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석원정, 2004)을 소개하였고, 특히 이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홍, 2003)를 보고하고 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김애령, 1998; 민경자, 2003)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수개월 이상 이주여성 및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는 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한 풍부한 사례를 전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즉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에 대한 연구(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특히 아시아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조성원, 2000; 전수현, 2002; 김정선, 2004)는 이들의 국제결혼의 과정과 적응 및 갈등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간 노동이주에 관련된 국제결혼 선행연구들을 조감한 연구(이혜경, 2004)와 단편적인 설문조사에 그쳐 다소 아쉬운 감은 있으나 한국과 일본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 연구들(인봉숙, 2001; 한주연, 2002)도 발표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현상이 가시화된 지가 약 10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한국에서는 아직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몇몇 연구가 참여관찰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수가 적고 특정집단의 사례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2) 노동시장의 변화

국제결혼의 발생원인은 앞서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전쟁, 식민지 경험, 노동력 이

동, 관광, 유학, 연예활동 등의 문화교류, 결혼알선기관 중매매체의 활성화 등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발생원인 중 주로 노동력 이동과 관련된 국제결혼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력 이동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국제결혼의 원인 중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이 주목받고 있다. 노동이동의 여성화 현상이란 국가간 이주자의 50%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으로, 과거 국가간 노동이동에 있어서 여성은 고국에 남겨지는 자이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자(tied-mover)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이 주도적인 이동의 주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것이다(이혜경, 2004).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원인은 우선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등 세 가지 대표적인 여성 직종에 대한 노동유입국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국인 여성들이 농촌 및 도시 하류층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어, 이들 남성의 배우자로 들어오는 혼인이주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송출국의 측면에서는 최근 국가간 노동이주가 과거 ‘이민’으로 대표되던 노동송출국에서 노동유입국으로 ‘한 방향’ 움직임이 아니라, 최근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서 일시적 이동과 순환이동이 급증하여, 국가간 이주가 ‘상시적’ 그리고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송출국의 가족들은 가구원 중 노동송출국으로의 입국과 취업이 용이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려는 가족전략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여성이주자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된 국제이주 및 국가간 노동이주나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나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혼인이주나 이와 관련된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국제결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혜경, 2004). 즉 20세기 초 ‘사진 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 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으로의 ‘우편 주문 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으며, 우편 주문 신부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주문 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사이버 주문 신부(cyber order brides)’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사진 신부’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인들이 몇 장의 고국 여성 사진을 받고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한 것으로, 고국의 여성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멀리

하와이로 또는 미국본토로 태평양을 건너간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인종차별적인 미국 법이 ‘백인’ 과 ‘유색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제외한 멕시코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미국 내 백인과 혼인할 수 없으므로, 고국으로부터 여성을 불러와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Schaeffer-Gabriel, 2003:177-178). 그러므로 이는 국가를 건너간 국제결혼이기는 하나, 같은 인종내의 결혼이었다. 이러한 사진신부 현상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고, 최근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주로 남성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신부감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Thai, 2002).

두 번째 유형인 ‘전쟁 신부 또는 미군 아내’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필리핀 등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 유형은 혼인이주, 인종 간 결혼인 국제결혼의 효시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재결합을 위해 남편을 ‘따라가는 자(tied-movers)’ 로 이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세 번째 유형인 ‘우편 주문 신부’ 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중매기관이 상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유형도 역시 대중매체의 관심과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주목만 받았을 뿐 그 규모에 비해서는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대중매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은 우편 주문 신부를 제3세계 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또는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위장결혼자’ 로, 또는 ‘상업화된 국제중매기관의 희생자’ , 또는 ‘국제적 인신매매의 희생자’ 로 묘사해 왔다(O'Rourke, 2002; Perez, 2003). 그러나 비교적 근래 미국에서 나온 두 편의 박사논문은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즉 Simons(2001)는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결혼 중매기관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매도될 필요는 없으며, ‘우편 주문 신부 현상’ 이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페미니즘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은 페미니즘이 보다 더 확산된 ‘남녀평등한’ 사회에서, 그러나 남성은 페미니즘이 덜 확산된 어느 정도 ‘남녀불평등한’ 사회에서 배우자를 찾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Schaffer -Gabriel(2003)은 중남미 여성들의 경우, 우편 주문 신부가 단순히 하층계급 출신의 희생자가 아니라, 중간계층의 여성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혼인이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는 Truong(1995), Piper(1997), 그리고 Yu(2001)이다. 우선 Truong(1995)과 Yu(2001)를 살펴보면, 그들은 우편 주문 신부를 경제적 이주자로 파악하며, 특히 이들의 “재생산노동자(reproductive workers)” 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국(노동유입국)의 가

사서비스 부문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3세계(노동송출국) 여성을 이주노동자 또는 혼인이주자로 불러들이며, 이는 재생산(노동)에 있어서의 국제분업을 야기한다고 보았다(Truong, 1995:142-143).

한편, Piper(1997:333)는 Walby(1990)의 가부장제 이론으로 국제결혼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아시안 여성들이 일본 내 유흥업소 밖에서는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도록 하여 이들 여성들을 유흥업 부문으로 더욱 집중시키고, 이들은 스낵바나 카테일바 등에서 만난 일본(하류층)남성들과 결혼하게 되어, 결국 일본사회의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최근 Piper와 Roces(2003)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국제결혼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모아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이라는 저작으로 편집하였다. 이들은 최근 국제이주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주자를 우편주문 신부나 부인(wife) 아니면 가정부나 유흥업 종사자 등의 노동자(worker)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들을 부인과 노동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그 여성들이 노동자로 이주하였다가 현지 남성과 혼인해 부인이 되기도 하며, 우편 주문 신부로 혼인이주 하였다가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혼인이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그들의 연구는 이후 혼인이주와 국제결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30% 정도가, 그리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35% 정도가 여성이었다(Lee, 2003). 그러나 현재 전문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연예인 비자(E-6)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5000~7000명의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들어온 혼인이주자(2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이주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3년 약 44% 정도가 된다.

3) 국제결혼의 여성화

여성의 이주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국제결혼의 여성화’를 들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젠더와 지구화 및 이주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즉,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격차는 선진국 남성과 저개발국 여성이 결혼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나라의 여성이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로 해외취업의 길로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 젊은 여성들이 결혼 이민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인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여성의 국제결혼 이주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국인의 해외 송출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김정선(2004)은 글로벌체제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가족부양의 의무 못지않게 계층 상승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여성들을 글로벌 차원의 결혼시장으로 편입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여성 본국의 가난과 실업이라는 경제적 요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4)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의식(가치관)의 변화

민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개인에게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족정체성의 감소와 희석화를 가져온다고 지적되고 있다(Eriksen, 1993: 62). 국제결혼은 무엇보다도 민족 차별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일이며 문화적 관습으로부터 이탈된 결과라는 것이다. 국제결혼과 혼혈이라는 단어는 민족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불명확한 위치의 특성을 의미한다. Eriksen(1993)은 이들을 ‘민족적 예외(ethnic anomalies)’ 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상황에 따라 또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neither-nor)’ 또는 ‘둘다(both-and)’ 에 속하는 사람들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세계화, 국제화의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민족이라는 범주와 그것을 둘러싼 민족주의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다. 민족주의는 각 민족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치적·문화적 담론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근대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강조되어왔다(전수현, 2002).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의 상황 속에서 ‘국제결혼’ 이라 함은 단일 민족의 혈통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한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으로 국제결혼은 사회문화적으로 금기시되어왔고 가족들의 반대와 함께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러한 부정적 의식의 원인을 한국인의 혈연적 집단주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내부인들 끼리는 강한 정서적 동질성을 공유하지만 외부인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리’인 한국인과 ‘남’인 외국인의 구별에 민감하고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유명기, 2001).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혈통주의 자부심에 따라 혈연이나 지연에 집착한 결과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는 폐쇄적인 경향을 띠기 쉬웠다(전수현, 2002).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전략적이고 강제적인 국제결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한국인이 일본으로 강제징용 되면서 이루어진 일본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강제이주의 성격이 강해 반강제적인 국제결혼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식민지적 입장에서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민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한국 사람과 같은 인종에 속하지만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 주둔과 함께 시작된 국제결혼은 주로 경제적 상승을 위한 탈출구로써 선택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이었다. 그때부터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미군들과 국제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일반적인 국제결혼의 형태는 미국과 한국여성간의 결혼으로 인식되었다²⁾. 그 당시 빈곤했던 한국사회에서 미군과 결혼한다는 것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경제적 안정 및 지위상승으로 상징화되었다(Yoo, 1993). 그러나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낳은 미국계 혼혈은 당시 한국사회의 최하위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³⁾,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은 폐쇄적으로 살아온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주요하게는 기지촌문화의 산물이라는 그들의 특수한 출생배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미군정 시절과 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독한 선입견과 사회적 편견들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처럼 역사적 과정에서 특정 경험만이 공식화되면서 단일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데 전략적 자원으로 이용되었다(전수현, 2002).

2) 1950년 이후 미군의 아내로 미국에 정착하게 된 한국여성은 약 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Yoo, 1993).

3) 미국계 혼혈인 수는 1970년대만 해도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982년 레이건 미행 정부가 1950-1982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계 아시아 혼혈인에 대한 입양이민허용정책을 펴면서 대부분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이후 약 2천여 명의 혼혈인이 한국에 남아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겨레 21, 2001).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로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다양한 유형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적이고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국제결혼에 대한 금기는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의 접촉은 자연스러운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이전보다 호의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결혼이 단순히 이민족과 결혼해 한민족의 순수성을 흐렸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문화적 질타를 받기보다 계층적인 차원에서 또는 성별에 따라 그들의 결혼이 달리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부는 2001년 3월 20일 방문동거자격(F-1)으로 입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체류자 40,133명 가운데 20,170명(50.2%)이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은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85개국에 이르는데,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배우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7,443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6,237명(30.9%), 필리핀인 2,758명(13.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중동포(조선족)가 6,351명으로 85.3%를 차지했다. 흔히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결혼은 ‘동족 간의 결합’으로 여겨지는데, 1990년부터 이루어진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결혼은 한국 국제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조선족 여성은 약 4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 조선족 여성들이 유입되는 것은 계급화된 결혼시장 내에서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하는 농촌지역 남성들의 수요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가지는 특수성은 국제결혼임과 동시에 ‘동족’ 간의 결합으로 보이는 연유로 국가가 이들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원하였다(김숙자·강유진, 1998). 또한 여성들은 주로 ‘피부양자’로서 이주한다는 편견 때문에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조선족 여성의 ‘결혼’을 통한 이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홍기혜, 1999). 그러나 조선족 여성들의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언어적·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동남아 여성들은 합법적인 체류통로로써 또는 현실에 대한 탈출구로써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러시아 여성들도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이민족과의 문화적 접촉과 갈등은 사실상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결혼시장의 현실 및 국제결혼시장의 상품화

한국의 국제결혼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수치도 증가하며, 최근에는 국제 결혼상담소나 국제결혼알선기관도 급증하여 국제결혼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혜경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기관은 180여 개 정도이다(<표 2-21>참조).

<표 2-21> 인터넷상의 국제결혼 알선기관

단위: 명

	한 국적만 전담하는 기관의 수	여러 국적을 다루는 기관의 수	여성 또는 남성 회원 수
외국인 여성 소개 (164개소)			
중국	27	84	5~120
필리핀	9	60	16~109
베트남	19	78	6~302
러시아	5	46	5~225
우즈벡	1	35	7~479
카자흐스탄	0	9	3~181
캄보디아	0	5	98~279
고려인	1	10	40~125
태국	0	3	0~17
몽골	2	20	27~240
키르기스스탄	-	3	17~354
아시아	-	68	20~601
남미	1	-	33
모든 국적	-	10	13~469
기타	-	9	-
외국인 남성 소개 (12개소)			
일본	10	41	2~26
미국	2	15	0~10

* 자료: 인터넷 자료조사(접근일: 2005년 2월)

6) 현행 입국 및 이주관련 법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국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며 각국 정부는 그 영토주권에 의거하여 자유로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14).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법률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를 사증(Visa)제도를 통하여 받아들인다. 이 사증제도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이동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대우를 합리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장기간 머무르며 생활하거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노동허가증 없이 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 대우는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통해 구체적인 체류자격과 그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교수(E-1), 회화(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홍행(E-6), 특별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취업관리(F-1-4)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격외취업자로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취업관리(F-1-4), 산업연수(D-3)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생산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동반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초청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한국사회가 원하지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독일, 대만 등 외국인 이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 외국 인력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더라도 그들 전원이 영주하지 않고 일정기간 취업한 후에 출국할 것을 기대한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처럼 이민을 통해 형성된 나라의 경우, 외국인 차별은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민자와 일시적 이주노동자의 차별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만 후자에게는 차별대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각국의 출입국관리법이나 이민법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들의 국제이주에 대한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이민법과 국적법, 시민권법등 법률적·제도적 형태로 표출된다. 이러한 법과 관련하여 각 국가는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국가와 인종-문화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인종-문화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카슬과 밀러(Castles & Miller)는 세계 각국이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차별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 model), 동화 모형(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설동훈, 2001 ; Vermeulen, 2005).

차별배제 모형은 노동력 유입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 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화 모형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장려하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둔다. 외국인 통합방법은 국적부여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차별배제 모형과 혈통주의(부모가 그 나라 국민인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 동화 모형과 거주지주의(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지역을 국적부여기준으로 하는 것), 다문화주의 모형과 출생지주의(태어난 곳을 국적 부여기준으로 삼는 것)가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자들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을 보이고 있다. 즉 합리적 외국인력 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해외인적자본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과 체류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도 고도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단순기능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은 자국민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에 한하여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가함으로써 이들의 체류자 귀화와 정주화를 억제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단순노동 인력의 대량유입은 노동공급에 따른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국민의 고용기회 침해를 통해 저소득층 비율의 증가를 유발하고 저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사양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주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및 사회통합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정책추진단, 2005).

따라서 외국인력의 이민관련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과 영주허용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반면, 단순노동인력에 대해서는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와 2003년 8월 법제화하여 최근 시행중인 외

국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외국인을 기업에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를 수입하되 그들에게 노동자 신분을 부여하지 않고 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하다가 노동착취의 원형적 형태라는 반발로 인해 일정기간 연수 후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대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업체이동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자를 전문 인력과 단순노무인력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이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영주권 소지자, 귀화자 등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화, 사회제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정책추진단, 2005).

선진국의 경우, 이민국가이든 아니든 해당외국인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내에 정주하려는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언어, 역사, 법률제도 등에 관한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되었다(체류법 제44조). 또한 새로운 이민자가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체류연장 허가심사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체류법 제8조 제3항).

현행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와 국제결혼에 의한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귀화의 요건으로 규정(동법 제5조 제5호)하고 있다(도중진, 2005). 산업연수생의 경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2조>에 의거하여, 언어와 문화, 관습에 대해 교육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하는 경우 한국어능력 수준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입국 전에도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오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여 간이 귀화한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배우자로 국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지만 이들 외국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알선으로 혼인하여 입국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혼인으로 무작정 입국한 경우,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사이 뿐만 아니라 한국인 가족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이혼, 별거, 폭행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법무부 2005).

이주자들은 이주국에 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적응은 이주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특히 언어의 습득과 다양한 제도적 규정들에 대한 이해 등을 말하여 주류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가치나 규범, 태도, 사고들을 익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차원에서의 이주자들의 적응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현황

1) 국제결혼의 전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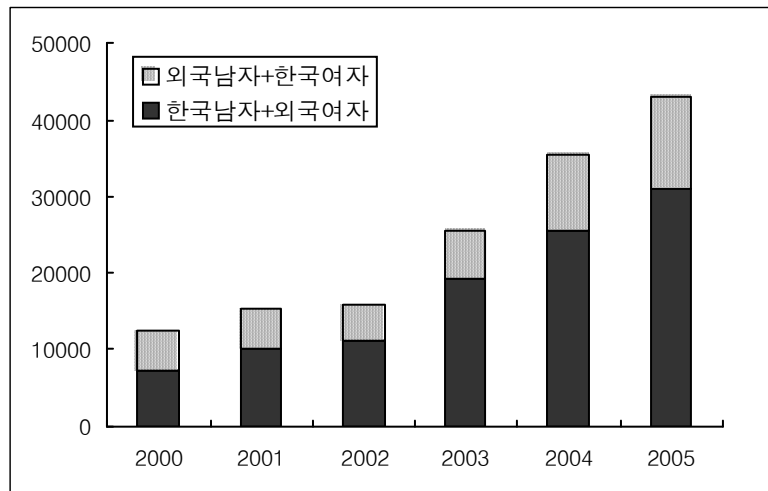
<표 2-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인의 국제결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전체혼인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3.7%이었지만 2004년부터 11.4%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5년에도 13.6%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22>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총혼인건수 대비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증 가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증 감 륜	(16.5)	(23.7)	(4.5)	(61.2)	(38.2)	(21.6)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총국제결혼건수 대비 구성비	(59.2)	(65.6)	(69.2)	(74.9)	(72.2)	(72.3)
증 감 륜	(26.5)	(37.0)	(10.1)	(74.4)	(33.2)	(21.8)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총국제결혼건수 대비 구성비	(41.8)	(34.4)	(30.8)	(25.4)	(27.8)	(27.7)
증 감 륜	(4.6)	(4.2)	(-6.4)	(31.6)	(52.9)	(21.2)

* 출처: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그림 2-1> 국제결혼 한국인 남녀별 비율

<그림 2-1>을 보면,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의 성별은 2000년에는 남자가 59.2% 여자가 41.8%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지만, 2003년부터는 전년대비 74.4% 증가하여 전체 국제결혼건수의 약 70% 이상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으로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 또는 구소련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사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드문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고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말부터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국동포 등에게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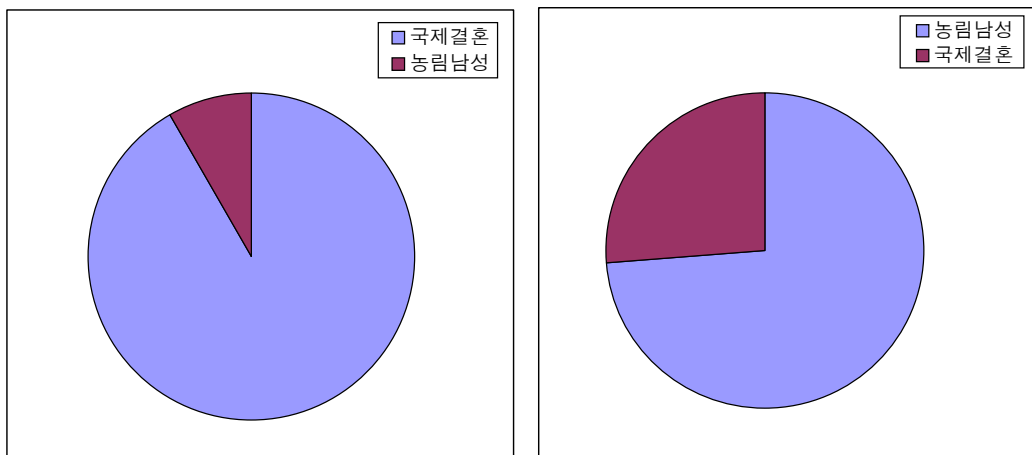
2005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실태는 <표 2-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 국제결혼 한국남성 31,180명 중 농림어업종사자는 8,027명이었으며, 이 중 2,885명이 외국 여성과 혼인을 하였다. <그림 2-2>와 <그림 2-3>에서와 같이, 전국 국제결혼 비율에 비추어 보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건수 중 9.3%가 농림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었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만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정도(35.9%)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23> 2005년 농림어업종사자(남성)와 외국 여성과의 혼인

단위: 명(%)

총혼인 (A)	외국여성 혼인한 한국남성(B)	외국여성 혼인한 농림남성(D)	농림남성 (C)	구성비 (D/B)	구성비 (D/C)	구성비 (C/A)
316,375	31,180	2,885	8,027	(9.3)	(35.9)	(2.5)

* 출처: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그림 2-2> 2005년 남성혼인 대 국제결혼 <그림 2-3> 2005년 농촌 남성혼인 대 국제결혼

2) 출신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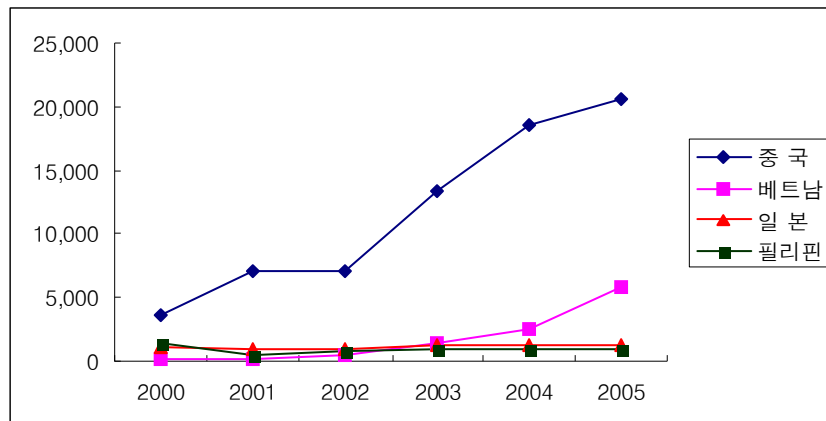
출신국가별로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5년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총 31,180건이었고, 이 중 중국 20,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2-4>를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중수교 이후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혼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2000년에 한국 남성과 혼인한 베트남 여성이 95건이었는데 2005년 5,822건으로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5년 만에 약 600%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 여성과의 혼인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2000년 1,358건에서 2005년 99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24>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출신국별 현황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1.1	34.8
미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 출처: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그림 2-4> 한국 남성과 혼인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여성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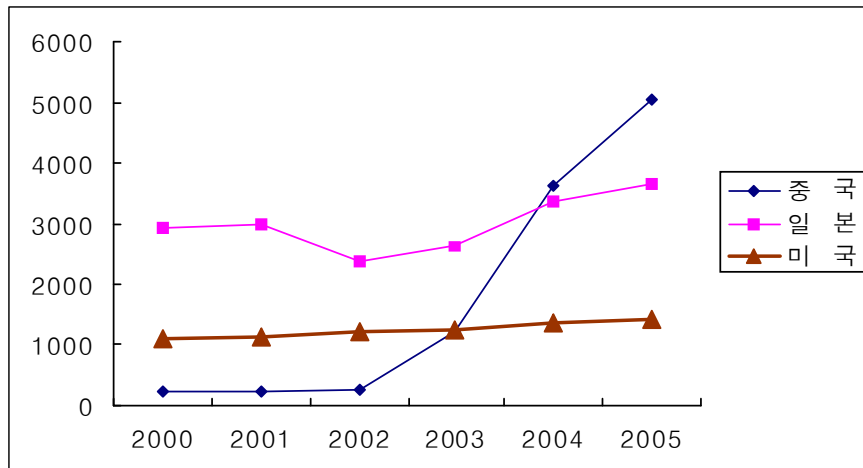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출신국별 혼인 추이는 <표 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중국 남성이 42.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 남성은 30.8%, 미국 남성은 11.8%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 여성의 혼인이 112.6%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림 2-25>를 보면 한국 여성과 중국 남성의 혼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25>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출신국별 혼인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	전년대비 증감률(%)
계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100.0	21.2
중국	218	222	272	1,199	3,621	5,042	42.2	39.2
일본	2,941	3,011	2,377	2,613	3,378	3,672	30.8	8.7
미국	1,095	1,132	1,210	1,237	1,348	1,413	11.8	4.8
캐나다	149	164	174	223	230	285	2.4	23.9
방글라데시	16	38	46	158	186	252	2.1	35.5
파키스탄	39	64	126	130	103	219	1.8	112.6
영국	66	70	87	88	120	106	0.9	-11.7
호주	74	79	89	108	136	102	0.9	-25.0
기타	417	448	515	688	731	850	7.1	16.3

* 출처: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그림 2-5> 한국 여성과 혼인한 중국, 일본, 미국 남성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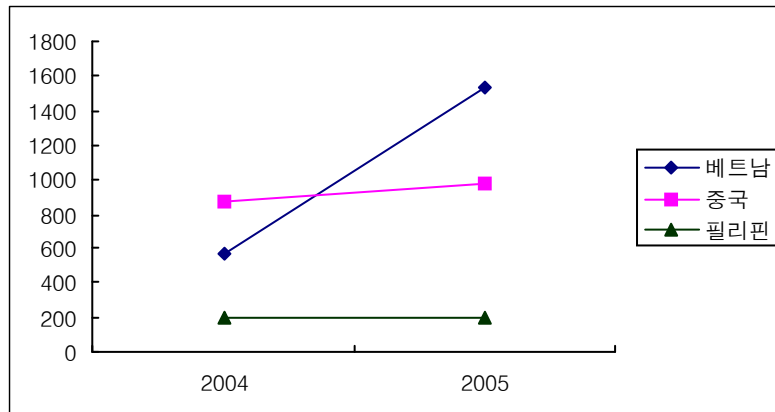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출신국은 <표 2-26>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4년에 중국(879건), 베트남(569건), 필리핀(195건)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베트남(1535건), 중국(984건), 필리핀(19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을 보면 농촌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6> 농림어업종사자와 혼인한 외국 여성의 출신국별 혼인 건수

단위: %(건)

	국 적				
	계	베 트 남	중 국	필 리 핀	기 타
2004년	100.0 (1814)	30.8 (560)	48.5 (879)	10.7 (195)	10.0 (180)
2005년	100.0 (2885)	53.2 (1535)	34.1 (984)	6.9 (198)	5.8 (168)

* 출처: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그림 2-6> 농림어업종사자와 혼인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의 연도별 추이

3) 거주도별 현황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 사람의 거주도별 현황은 <표 2-27>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거주도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혼인건수는 서울 특별시가 2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23.5%로 많았다. 인천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지역별로는 5% 내외로 거주하였다. 국내에서는 지역별로 증가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 혼인건수는 2000년 4.6%에서 2005년 2.5%로 감소 추세이다.

<표 2-27> 시도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 혼인건수

단위 : %(건)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특별시	25.2 (2527)	24.0 (2649)	24.7 (4744)	25.7 (6565)	24.5 (7637)
부산광역시	6.8 (684)	6.7 (747)	6.9 (1343)	5.4 (1386)	4.5 (1408)
대구광역시	2.7 (274)	2.6 (285)	3.2 (620)	3.2 (826)	3.2 (1014)
인천광역시	5.4 (550)	5.8 (644)	6.1 (1163)	6.1 (1565)	6.4 (2015)
광주광역시	1.6 (165)	1.5 (171)	1.6 (322)	2.1 (545)	1.6 (498)
대전광역시	2.1 (219)	2.0 (228)	2.1 (414)	2.3 (589)	2.5 (779)
울산광역시	1.2 (122)	1.3 (153)	1.4 (274)	1.4 (363)	1.7 (560)
경기도	22.7 (2269)	22.5 (2482)	22.6 (4342)	23.3 (5967)	23.5 (7341)
강원도	2.7 (274)	3.1 (347)	3.1 (593)	2.4 (611)	2.5 (769)
충청북도	2.7 (275)	4.3 (393)	3.4 (663)	3.2 (809)	2.9 (920)
충청남도	4.1 (409)	4.1 (481)	3.9 (752)	4.0 (1027)	4.4 (1378)
전라북도	4.4 (442)	4.2 (452)	3.7 (719)	4.7 (1195)	4.4 (1385)
전라남도	3.9 (396)	4.4 (460)	3.9 (764)	4.0 (1030)	4.3 (1327)
경상북도	3.8 (388)	4.4 (484)	4.4 (844)	4.0 (1030)	4.7 (1489)
경상남도	4.7 (472)	4.4 (474)	4.0 (770)	4.2 (1077)	5.2 (1636)
제주도	0.7 (76)	0.9 (105)	1.1 (202)	1.4 (268)	0.7 (231)
국외	4.6 (464)	4.2 (462)	3.5 (685)	2.9 (741)	2.5 (793)
계	100.0 (10006)	100.0 (11017)	100.0 (19214)	100.0 (25594)	100.0 (31180)

* 출처: 통계청 자료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3:1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이는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혜경, 2005).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여성으로 그들의 5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표 2-28>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거주지역

단위: %(명)

	중국동포 (N)	중국한족 (164)	일본 (101)	필리핀 (77)	베트남 (66)	태국 (19)	몽골 (15)	구소련 (29)	기타 (26)	전체 (945)
도시	82.1	78.0	64.4	48.1	52.6	52.6	73.3	79.3	84.6	74.3
농촌	17.9	22.0	35.6	51.9	42.4	47.4	26.7	20.7	15.4	25.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4) 결혼지위별 현황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유형을 보면 <표 2-2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926명 가운데 둘 다 초혼인 경우가 62.1%, 남성은 초혼이고 여성은 재혼인 경우가 7.8%, 여성은 재혼이고 남성은 초혼인 경우가 13.5%, 둘 다 재혼인 경우가 16.6%이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여성과 혼인한 경우 남성이 재혼이고 여성은 초혼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일본여성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가 91.0%로 다른 출신국의 여성보다 비율이 높았다.

<표 2-29> 출신국별 결혼유형

단위: %(명)

	중국 동포 (N)	중국 한족 (161)	일본 (100)	필리핀 (74)	베트남 (62)	태국 (19)	몽골 (14)	구소련 (29)	기타 (25)	전체 (926)
둘 다 초혼	54.3	42.2	91.0	83.8	80.6	73.7	57.1	72.4	84.0	62.1
남-초혼 / 여-재혼	7.2	16.8	2.0	2.7	1.6	5.3	0	10.3	16.0	7.8
남-재혼 / 여-초혼	15.2	16.1	4.0	13.5	16.1	10.5	21.4	10.3	0	13.5
둘 다 재혼	23.3	24.8	3.0	0	1.6	10.5	21.4	6.9	0	16.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5) 연령별 현황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평균 연령을 <표 2-30>를 통해 살펴보면, 외국인 부인은 평균 34.3세, 한국인 남편은 평균 41.3세이었으며,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로 남편의

나이가 더 많은 편이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은 평균 26.7세이고 그들의 남편은 평균 38.1세여서 나이차가 평균 11.4년으로 가장 컸다. 반면 일본 여성은 평균 39.0세이고 그들의 남편은 평균 40.6세여서 나이차가 평균 1.6년으로 가장 작았다.

<표 2-30>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단위: 세(명)									
(N)	중국동포 (448)	중국한족 (164)	일본 (100)	필리핀 (77)	베트남 (66)	태국 (19)	몽골 (15)	구소련 (30)	기타 (26)	전체 (945)
부인 평균연령	35.4	34.7	39.0	32.0	26.7	34.7	29.1	27.1	31.3	34.3
남편 평균연령	42.5	41.7	40.6	39.9	38.1	39.4	38.6	37.7	39.7	41.3
연령차이	7.1	7.1	1.6	8.0	11.4	4.7	9.5	10.6	8.4	7.0

* 출처: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4.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3가지로 실시되었다. 첫째로 한국농촌에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 온 여성들과 그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로 결혼이민사업과 관련된 공무원과 관련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인 지원체계를 조사하기 위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① 설문조사대상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남편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국제결혼이민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4대 출신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도 4개국에서 온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정했으며, 설문조사대상 여성의 출신국가별, 현재 거주도별 인원은 <표 2-31>과 같다. 특별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현재 거주지 주소

를 기준으로 군단위 거주여성 및 그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개도(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4개 출신국가(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 여성이 69명(41.6%), 일본 여성이 36명(21.7%), 중국 여성이 15명(9%), 그리고 필리핀 여성이 46명(27.7%)으로 총 166명의 여성이 부인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2-31> 설문조사대상여성의 출신국별, 거주도별 인원

단위: 명(%)

국 적	거 주 지 역				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베트남	2	42	8	17	69(41.6)
일본	16	10	0	10	36(21.7)
중국	2	5	2	6	15(9.0)
필리핀	13	13	12	8	46(27.7)
계	33	70	22	41	166(100)

여성조사대상의 인구배경 특성은 <표 2-32>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나이, 출신국, 결혼기간, 결혼지위, 자녀수, 교육기간, 농업종사여부, 종교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되는 여성의 인원과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항목에 따라 무응답자의 수에 차이가 있어 항목별 응답자수를 제시하였다.

우선 연령별 구성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30.8%, 20대 후반이 20.8%, 30대가 28.3%, 그리고 40대 이상이 20.1%이므로 20대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 조사대상의 20%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난 현상이다. 하나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 여성들이 국적 취득의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결혼기간이 짧아서 미처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국적 취득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온 결혼이민자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없었다.

<표 2-32> 설문조사대상 여성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	계
나 이	19-24세	49(30.8)	159
	25-29세	26(20.8)	
	30-39세	45(28.3)	
	40-세	32(20.1)	
국 적	본국국적유지	126(79.2)	159
	한국국적취득	33(20.8)	
결혼기간	1년 미만	57(34.3)	164
	1-5년	55(33.2)	
	6년 이상	53(32.5)	
결혼지위	초혼	149(96.8)	154
	재혼	5(3.2)	
자녀수	0명	85(51.2)	164
	1-2명	56(33.7)	
	3명 이상	25(15.1)	
교육기간	1-6년	16(10.2)	114
	7-9년	20(12.0)	
	10-12년	48(28.9)	
	13년 이상	30(18.0)	
농업종사여부	농업에 종사함	53(34.9)	152
	농업에 종사하지 않음	99(65.1)	
종 교	개신교	9(5.4)	166
	가톨릭	34(20.5)	
	불교	39(23.5)	
	통일교	47(28.3)	
	기타	7(4.2)	
	종교 없음	21(12.7)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기간은 1년 미만이 34.3%,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2%, 6년 이상이 32.5%이다. 이들의 89.8%가 초혼여성이며 3.6%가 재혼여성이다. 나머지는 무응답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90%가 초혼이고 나머지 10%는 초혼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와 다소 수치의 차이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무자녀가 절반이 넘고 자녀가 1, 2명 있는 경우가 33.7%, 3명 이상이 15.1%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과 그에 준하는 학력이 10.2%, 중학교 졸업이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이 12.0%, 고등학교 졸업과 그에 준하는 학력이 28.9%이다. 대학재학이나 졸업자도 18%에 이른다. 무응답인 51명(30.7%)은 무학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지역에서 조사대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31.9%에 불과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12.7%가 무교이며 나머지 87.3%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종교는 통일교(28.3%), 불교(23.5%), 가톨릭(20.5%), 개신교(5.4%)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국제결혼 남성의 부인의 출신국별, 거주도별 인원은 <표 2-33>와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배우자 중 총 141명이 남편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베트남 여성과 혼인한 사람은 경상도와 충청도에 많이 거주하며, 일본여성과 혼인한 남성은 강원도와 경상도에 많이 거주하고 중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전국에 고루 거주하며, 필리핀 여성과 혼인한 남성도 전국에 고루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는 무선으로 전수조사된 것이 아니라 임의 표집조사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편중된 분포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표 2-33> 설문조사대상남성의 아내 출신국별, 거주도별 인원

출신국	거주지역				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베트남	1	32	8	15	56
일본	15	10	0	9	34
중국	2	5	2	5	14
필리핀	9	10	11	7	37
계	27	57	21	36	141

국제결혼한 남성 조사대상자의 인구배경 특성은 <표 2-34>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나이, 결혼기간, 결혼지위, 교육연수, 월소득, 농업종사여부, 종교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되는 남성의 인원과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남성 역시 항목에 따라 무응답자의 수에 차이가 있어 항목별 응답자수를 제시하였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대 후반이 3%, 30대가 32.6%, 그리고 40대가 54.8%, 50대

이상이 9.6%이므로 40대가 절반을 넘는다.

결혼기간은 1년 미만 28.8%, 1년 이상 5년 미만 32.6%, 6년 이상이 38.9%이다. 이들 중 74.5%가 초혼이며 17.0%가 재혼이고 1.4%가 삼혼이다. 나머지는 무응답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75%가 초혼이고 나머지 25%는 초혼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4> 설문조사대상 남성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	계
나 이	26-30세	4(3.0)	135
	31-39세	44(32.6)	
	41-49세	74(54.8)	
	50-58세	13(9.6)	
결혼기간	1년 미만	38(28.8)	132
	1-5년	43(32.6)	
	6년 이상	51(38.9)	
결혼지위	초혼	105(74.5)	131
	재혼	24(17.0)	
	삼혼	2(1.4)	
교육년수	1-6년	9(6.4)	110
	7-9년	22(15.6)	
	10-12년	64(45.4)	
	13년 이상	15(10.6)	
월소득	100만원 미만	14(9.8)	77
	100만원-200만원미만	41(29.0)	
	200만원 이상	22(15.6)	
농업종사여부	농업에 종사함	66(46.8)	120
	농업에 종사하지 않음	54(38.3)	
종 교	개신교	10(7.1)	131
	가톨릭	9(6.4)	
	불교	21(14.9)	
	통일교	40(28.4)	
	기타	6(4.2)	
	종교 없음	45(31.9)	

국제결혼 남성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과 그에 준하는 학력이

6.4%, 중학교 졸업이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이 15.6%, 고등학교 졸업과 그에 준하는 학력이 45.4%이다. 대학재학이나 졸업자도 10.6%에 이른다. 무응답인 31명(18.7%)은 무학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결혼 남성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매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9.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9%, 200만원 이상의 경우가 15.6%이다. 이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남성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무응답이 64명(41.6%)에 이르러 정확한 실태를 알기에는 부족하다.

농촌지역에서 조사대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46.8%에 불과하다. 국제결혼남성들은 31.9%가 무교이며 나머지 68.1%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종교는 통일교(28.4%), 불교(14.9%), 가톨릭(6.4%), 개신교(7.1%)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결혼이민 여성의 종교 비율과 일치하는 것은 통일교뿐인데 이는 통일교를 믿는 여성과 남성이 종교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② 면접조사대상

면접조사대상 여성의 출신국가별, 거주도별 인원은 <표 2-35>에 제시되어 있다. 면접대상여성은 총 12명으로, 3개 도(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4개 출신국가(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여성을 각각 한 명씩 면접하였다.

<표 2-35> 면접조사대상여성의 출신국가별, 거주도별 인원

출신국	거주지역			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베트남	1	1	1	3
일본	1	1	1	3
중국	1	1	1	3
필리핀	1	1	1	3
계	4	4	4	12

(2) 결혼이민 관련인사

이 연구는 국제결혼 및 이민 담당 공무원 7명, 사회복지사 1명, 교육담당자 2명, 업체 대표 3명을 면접 조사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36>과 같다. 현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각각 선정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면접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프로그램

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을 면접하여 현장의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기간 중, 베트남 현지의 상황과 외교적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호치민 영사를 면접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면서 결혼중개업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업체 사장 3명을 만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의 결혼과정을 참여관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이들 사장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2-36> 국제결혼관련 면접대상 인원

구 분	면 접 대 상	인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담당 지방공무원	강원도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장 및 실무담당자, 양구군청 주민복지과장 및 실무담당자	4
	충청도청 아동복지과 계장	1
	경상도 산청군 여성정책과 계장 및 실무담당자	2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담당 사회복지사 교육프로그램강사	강원도 원주 명륜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
	경상도 김해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진영군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실무자	2
베트남 현지 공무원	베트남 호치민 영사	1
결혼중개업체종사자	결혼중개업체 사장	3
계		14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한 전화조사는 각 시군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의 시청 및 군청의 결혼이민자 업무 담당자 총 156명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3) 여성결혼이민자 행정 담당 공무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조연구원 3명이 전국 시청 및 군청의 결혼이민자 또는 여성결혼이민자 업무 담당자와 두 차례에 걸쳐 전화 면접을 시행했다. 5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156개 지방자치단체(시 단위 75곳, 군 단위 81곳)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응답 기관(13기관)을 제외한 143개 기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담당 공무원이 전화 조사에 응답하여 주었다.

(4) 결혼중개업체(두리안)의 전화상담기록

국제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부적응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중개업체의 상담일지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룬 가정 중 총 277쌍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화상담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상담기간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랐다.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상담한 국제결혼 남성의 일반적 특성은 <표 2-37>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이 초혼이고, 직업으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이 많으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표 2-37> 2005년 두리안 전화상담 내담자 남성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계
결혼지위	초혼	209
	이혼 후 재혼	59
	사별 후 재혼	5
	삼혼	4
직업	농, 임, 어, 축업	52
	회사원	121
	단순노무	37
	자영업(전문직포함)	67
학력	초졸	10
	중졸	39
	고졸	208
	대졸이상	20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실시된 연구방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여성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설문 조사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06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4개 도의 군청 및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주로 한글교육을 위해 모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일정액의 농산물상품권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 심층면접

여성결혼이민자의 심층면접조사는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면접은 연구자 3인과 보조연구원 3인이 실시했으며, 양적 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질문을 바탕으로 1인당 약 2시간에서 4시간씩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결혼기간이 길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자와 여성이 1:1로 면접하였으며, 결혼기간이 짧아 한국어만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담당자나 남편의 도움을 받아 면접을 하거나 영어를 함께 사용하여 면접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일정액의 면접료를 전달하였다.

(3) 결혼이민 관련인사 면접조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및 실무자 면접은 2006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자가 해당지역 군청 및 복지관, 결혼이민자센터, 문화원 등을 방문하여 <표 2-38>의 질문개요에 따라 면접하였다.

<표 2-38>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담당 지방공무원 및 실무자 면접질문 개요

1. 담당하는 시, 군 관내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괄적 현황
- 전체 숫자 - 출신국 - 연령 - 결혼 기간 - 가족 정보 - 취업 상태 - 농업 종사 여부 및 형태 등
2. 소속 시, 도의 주요 관련 지원 정책 및 중점 사업
3. 담당자가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지원사업 및 활동
- 지원사업과 활동의 개요 및 특징 - 지원사업과 활동 추진 내용 - 지원사업과 활동 추진 방법(지원 규모: 소요인력 및 재정 포함) - 지원사업과 활동의 성과(정착지원 구체적 성공 사례 포함) - 어려운 점 및 문제점
4. 향후 담당자가 중단기적으로(5년 이내) 추진예정인 지원사업과 활동 개요
5. 농림부 주관의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 및 주안점 - 향후 지원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현 문제점과 연계)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면접은 2006년 5월 28일 서울대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세 사장과 한 자리에서 현재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현황과 결혼시장의 상황 및 결혼중개업협회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이후에 한 명씩 조용한 공간에서 <표 2-39>의 질문개요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였다.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면접은 2006년 6월초 베트남 현지 참여관찰 중에도 필요에 따라 실시하였다. 면접에는 전체 간담으로 30분, 개인면접으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베트남 호치민영사 면접은 2006년 6월초 호치민영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세 명의 연구자가 호치민영사관을 방문하여 베트남 현지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국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해야 할 방안에 대한 제안점을 들었다. 영사면접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표 2-39>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면접질문 개요

질문영역	세 부 질 문 내 용	
1. 업체소개	1) 업체명 2)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 홈페이지 여부(주소) 3) 국내 지사 및 해외지사 여부(개수) 4) 설립연도, 전체 직원수 5) 주로 소개하는 국가와 혼인대상(여성 또는 남성) 6) 월평균 소개 건수 및 성사율	
2. 국제결혼 및 사업에 대한 견해	1)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 및 이해 2) 사업에 대한 만족도 3) 사업에 대한 불안 및 개선되어야 할 점 4) 한국과 상대국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5) 국제결혼 사업의 현재 추세/경향 및 향후 전망/계획	
3. 주요고객	남성	① 초혼/재혼 여부 ②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층, 거주지역, 직업, 학력, 종교 등) ③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④ 결혼 대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공감 ⑤ 결혼 후 적응/어려움
	여성	① 초혼/재혼 여부 ② 주요 국적(주요 4개국) ③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층, 거주지역, 직업, 학력, 종교 등) ④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공감 및 한국어 실력 ⑥ 결혼 후 적응/어려움
	3) 주요 고객층 유무 및 주요 고객층의 특성 4) 비용관련 사항(남성과 여성의 비용부담 비율 및 액수) 5) 고객 만족도(남성, 여성) 6) 이혼율(또는 가출, 별거하는 대략적 비율)	

질문영역	세 부 질 문 내 용
4. 소개절차	1) 현지 여성 모집 과정 2) 국내 남성과의 만남 과정(만남주선기준, 만남장소, 인원) 3) 결혼 성사까지 기간 4)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교육 여부 및 교육내용과 방법 (예: 여성 - 한글교육, 한국문화/관습에 대한 교육 등 남성- 상대방 여성의 나라 문화 및 관습에 대한 정보제공) 5) 정착 지원 시설 소개 및 구체적 정보제공 여부 6) 소개하는 정착 지원 시설의 종류(사회복지기관/ 상담소 등) 7) 특별히 보람을 느꼈거나 인상 깊었던 사례 8) 특별히 어려웠거나 문제가 되었던 사례
5. 결혼한 부부에 대한 사후관리	1) 결혼한 부부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및 사후관리 방식 (남편인 한국남성, 아내인 여성결혼이민자) 2) 결혼 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 또는 상대국업체와 추후연락 여부
6. 응답자 인적사항	1) 직위(사장/직원) 2)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층, 고향, 학력, 종교 등) 3) 결혼 여부(국제결혼) 및 자녀수 4) 이전의 직업 5) 국제결혼 중개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 6) 자신의 생각하는 결혼중개업 관련 장점

(4) 전화조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1차 조사는 2006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변경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2차 조사는 2006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6명이 전국의 시청 및 군청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표 2-40>의 내용을 조사했다.

<표 2-40> 전화조사 질문내용

번호	문 항 내 용
1	군청(시청)에서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 실시 및 계획 중인 정책,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의 외부기관 위탁여부.
3	위탁한 기관의 수와 기관의 성격 : 대학부설, 종교재단부설, 시민단체 등.
4	외부 위탁기관 지원방식 : 장소 제공, 직원 파견, 재정지원 등
5	군청(시청)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여부
6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용 : 한글교육, 문화예절교육, 요리 활동,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등.
7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출신국가 및 인원
8	프로그램 실무자 : 사회복지사,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상담전문가 등.
9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 : 직접 제작, 여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10	군청(시청) 내 국제결혼이민자 관련 업무 담당 과와 담당자의 직위

(5) 상담기록 질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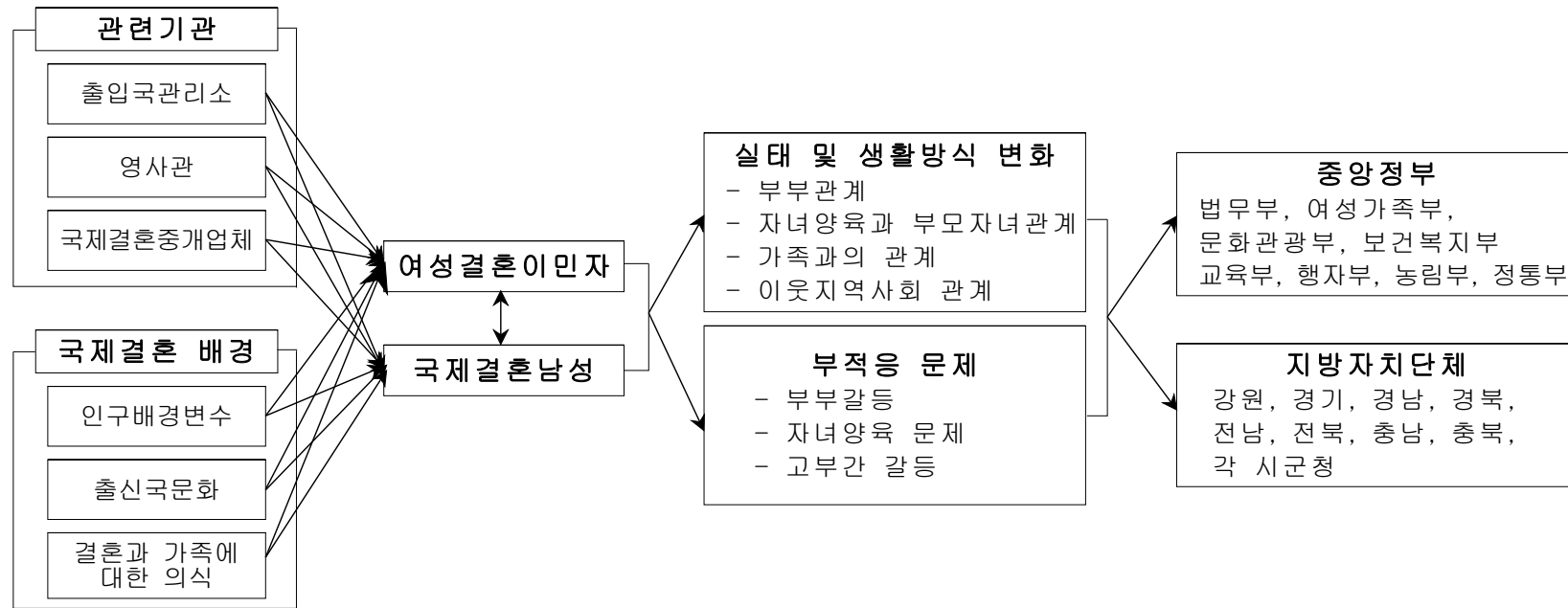
2005년 두리안 결혼정보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화상담기록을 분석하였다. 상담자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이며 피상담자가 베트남여성일 경우 베트남어로 상담했기 때문에 상담일지가 베트남어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연구원 1명이 베트남 통역 및 담당직원과 면접하며 상담내용을 정리했다. 전체 상담일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 주제들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주제별로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15개의 사례를 가족특성과 주요갈등내용, 상담의 방향 및 현재 적응상황을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6) 성혼과정 참여관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2인은 2006년 6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성혼과정에 동행하여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원 3인은 혼인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남성들과 동행하고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과 합류한 후, 베트남에서 3일을 지내면서 성혼이 결정되는 과정과 현지 결혼식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일자별 성혼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베트남 호치민시 도착.
- 제2일 오전 맞선보기, 오후 혼인을 결정한 여성과 시내 외출하여 함께 지내기.
- 제3일 병원에 가서 여성의 신체검사(남성은 동행).
고향에 성혼을 알림.
오후 영사관에 비자서류 신청하기.
- 제4일 합동결혼식 후 호텔에서 함께 지내기.
- 제5일 신랑 베트남 출발. 인천공항 도착.
- 3개월 후 신부 베트남 출발. 인천공항 도착.

3) 연구접근틀



<그림 2-7> 연구접근틀

Ⅲ. 국제결혼업체 현황

1. 업체의 난립

국제결혼관련 업체는 법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통해서 존립하므로 난립이 문제이다.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업체가 수백 개라는 추정만 할 뿐 실제로 몇 개나 되며 어떤 규모이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국제결혼을 담당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근래에 협회를 조직해서 협회를 통해 130개가 넘는 국제결혼단체가 모였다. 그 협회를 통해 자정능력을 길러 나가면서 질적 제고를 꾀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회는 아직 질적 제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관심이 있다.

2. 업체의 자격문제 및 종사자 자질문제

국제결혼업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적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자들이 면접한 협회 소속 3명의 사장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노라고 말했다. 사업을 하면서 국가와 공익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경우처럼 자신감 있게 자기를 노출할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도로에 붙여진 플랫카드, “베트남 처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에서 보듯 국제결혼업체들은 낮은 인권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업체들이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4월 21일,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도 국제결혼이 베트남 여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 <조선일보> 4월21일 기사가 알려지면서 베트남 네티즌들은 ‘분노’, ‘치욕’, ‘수치심’, ‘서글픔’, ‘자기반성’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베트남 네티즌들이 주요하게 지적한 것은 베트남 여성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굴종을 감내하는 대가가, 한국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밥을 짓는 것에 불과함에도 ‘키 큰 체형’ 등을 언급하고 얼굴 사진까지 내보이며 베트남 여성을 상품처럼 다룬 보도 태도였다(한겨레 21, NAVER.COM에서 인용).

이 기사의 내용을 입증하듯 실제로 NAVER의 하재홍 전문위원은 자신의 경험을 보

도하기도 했다. 그가 가짜 맞선자가 되어 문화방송과 함께 매매혼 현장을 취재할 때 맞닥뜨렸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혀 길게 내밀어봐, 이~ 크게 하고 이빨도 자세히 보여주고... 그래, 손도 앞으로 해서 손등하고 손바닥 좀 보여주고. 좋아 좋아, 한번 일어나서 한 바퀴 천천히 돌아봐, 천천히... 됐어. 신발 벗고 똑바로 서봐. 어때요, 신랑님들! 이상 없는 것 같죠? 그럼 한번 가서들 안아보세요.”

베트남에서 ‘4·21 조선일보 사태’라고 불리는 <조선일보>의 베트남 국제결혼 단체맞선 과정에 대한 현지 르포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한국과 베트남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마침 국제결혼 문제를 기획하고 있던 <한겨레21>은 주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반발 움직임을 포착해 이들의 항의 기자회견을 준비 과정부터 베트남 여성연합회의 반응이 나오기까지 세세히 보도했다(<한겨레21> 608호 참조). 아래 기사는 한겨레 21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업체 사장 3인 면접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조선일보> 기사가 베트남 여성을 상품 취급했다고 주장한 유학생들의 기자회견 소식이 베트남 언론에 전해지자, 베트남 사회는 들끓었다. 베트남 최대의 여성조직인 베트남 여성연합회가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국 정부 각 기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5월 3일 한-베트남 외교정책 협의를 위해 방한한 응웬 푸 빙 베트남 외교차관은 ‘4·21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터져서 유감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보름이 지나서야 베트남 여성연합회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조선일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트남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베트남 관영 유력지 <뚜오이제>는 사과문 전문을 5월 11일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국제결혼 현상을 결코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또 일부러 미화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응옌 티 타잉 여성연합회 부위원장은 <뚜오이제>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너무 많이 해명하고 있다”며 ‘해명성 사과’에 일침을 놓았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의 결혼중개업체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베트남 공안이 단속을 강화해, 일부 한국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업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최근 베트남에서 돌아온 김인수 두리안 사장은 현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방의 각 성에서도 한국인과의 결혼증명서를 내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타이닌성은

이유를 불문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업계가 공멸합니다. [결혼중개업체 사장]”

하지만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적 관행이 쉽사리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장들은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며 걱정이 가득했다. 일부 사장들은 “베트남 여성 인권이 중요하듯이 그곳에서 사업하는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다”, “우리는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구속되기도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 매매혼의 오명

조선일보의 기사가 알려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베트남 여자 유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베트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유진 사장은 말했다. 호치민에 있는 한국 영사도 공산주의 사회인 베트남에서 매매혼이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제 생각건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뭐, 사실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도 돈을 주고서 매매혼을 한다면 절대로 못하게 하죠, 그건.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지금 뭐 한국의 국내 결혼에서 아주 큰 국내 결혼 소개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업화 돼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뭐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되고,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해약이 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방지하고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체를 막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남녀간의 만남이다. 그것을 그 속에 돈을 개입시켜가지고는 절대 안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인식하는 기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개입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결혼을 소개해도 여기서 관계없어요. 돈이 개입이 안된다고 하면. 여성연맹의 여성지원센터니 뭐 거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직원이든지 뭐 누구를 베트남 여자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소개시켜주고 한다면 이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쪽에서 소개

를 시켜주고 커미션을 얼마를 받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제 생각에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금전이 오고가는 것은 이쪽에서도 그래도 묵인을 하거나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개입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호치민 영사]”

“여기서 지금 베트남 정부 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내의 여론이랄지 언론에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이 만약에 그런 똑같은 것을 당했다고 한다고 해도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시끄럽게 하고 한국이 잘못됐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과연 입장을 똑같이 바꿔 놓고서 한국에서 그랬다면 한국은 조용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한다한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인신매매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그래도 가서 잘 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베트남 호치민 영사]”

베트남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인식은 만연되어 있었는데 그 인식은 실제 사실이 아닌 듯하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1100만원의 결혼 비용 가운데 베트남 처가에 전해지는 돈의 액수는 \$1000에 불과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혼인과 더불어 오는 금전적 도움이라기보다는 잘사는 국가에 결혼하는 것으로써 베트남 농촌의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이유인 듯하다. 경제력의 차이가 큰 한국으로 이주하여 본국의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코리언드림을 이루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결혼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가 국제결혼을 시장화하면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100만원대 비용은 국제결혼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 절반 가격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경제적 이윤이 낮아진 후에 업체는 혼인에 대한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국제결혼을 박리다매 성격의 거래로 왜곡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한 국제결혼업체 사장은 ‘단속 열풍이 잠잠해지면, 예전의 나쁜 관행이 되살아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결의해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일대일 맞선으로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체류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500만~600만원까지 내려가는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죠. [한겨레 21]”

4. 협회결성과 자정결의

조선일보 보도 이후 벌어진 베트남 언론과 한국 언론에서의 질타에 대해서 업체 안에서도 자정노력이 시도되었다. 2005년 연말에 창립총회를 열고 국제결혼정보업협회를 결성해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2006년 4월 4일자 Naver.com). 이들은 2006년 5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용사의 집. 전국에서 모인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20여 명이 ‘국제결혼정보업체 자정결의대회’ 라고 쓰인 현수막 앞에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김윤수 국제결혼정보업협회 회장은 “인권단체가 우리 업체를 사기집단으로 매도하는 속에서 자정결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며 개회사를 했다. 사장들은 오른손을 올리고 선서를 시작했다. 선서 내용은 첫째 일대일 맞선으로 결혼 진행방법 개선, 둘째 불법 현수막 자제 및 내용 수정, 셋째 베트남법 준수 등이었다(한겨레 21).

이러한 자정결의의 하나로 협회는 국제결혼신고센터(전화 02-595-9372)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5. 국제결혼업체의 제도화 필요성

조선일보 보도 이후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 사회인식 역시 달라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이 가능하고,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인권단체 등에 의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제결혼정보업협회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협회도 이 상태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행 꿈을 가진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행 비자를 기다리느라고 호치민 영사관에 넘쳐나는 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결혼행동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

6.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

호치민 한국 영사도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가 무슨 객관적으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결혼하신 분들을 확인해 본 것을 아니지만, 여기 베트남 결혼을 할 때 여자분들이랄지, 대상들,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한국인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국제결혼이 여러 가지 문제를 시작부터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죠. [베트남 호치민 영사]”

호치민 한국 영사는 국제결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해서 정부가 교육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베트남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녀들 교육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한국학교가 상당히 크게 있어요. 한국학교를 보내는데 한국학교의 수업준비를 초등학교 애들은, 저학년 애들은 수업 준비를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것을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베트남 호치민 영사]”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혼인을 저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국제결혼이 제기되었다. 국제결혼을 인정하면서 외국에서 낳은 한국사회로 들어온 배우자에 대한 교육과 그들 자녀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IV. 농촌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1. 국제결혼과정

1) 소개받은 방법 및 과정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 조사의 대상자들이 남편을 소개받은 방법을 출신국별로 <표 4-1>에 제시하였다. 총 164명의 여성 중 68명은 베트남, 36명은 일본, 15명은 중국, 45명은 필리핀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은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77.9%), 일본(100%)과 필리핀(73.3%)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소개받은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부모, 형제의 소개나 친구소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부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남편에게도 물었을 때 소개받은 방법별로 부인의 응답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으며(81.1%), 일본(100%)과 필리핀(64.7%)은 종교단체를 통한 만남이 가장 많았다. 부인과 남편 모두의 응답 중 기타 응답에 속하는 응답으로는 자유연애가 있었다.

<표 4-1> 부인의 출신국별 소개 방법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아내 응답	부모, 형제의 소개	5.5(9)	7.4(5)	0(0)	20.0(3)	2.2(1)
	친구소개	10.4(17)	10.3(7)	0(0)	26.7(4)	13.3(6)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37.2(61)	77.9(53)	0(0)	26.7(4)	8.9(4)
	종교단체의 소개	42.7(70)	1.5(1)	100(36)	0(0)	73.3(33)
	기 타	4.3(7)	2.9(2)	0(0)	4(26.7)	2.2(1)
	계	100(164)	100(68)	100(36)	100(15)	100(45)
남편 응답	부모, 형제의 소개	3.0(4)	3.8(2)	0(0)	14.3(2)	0(0)
	친구소개	14.1(19)	15.1(8)	0(0)	35.7(5)	17.6(6)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39.3(53)	81.1(43)	0(0)	28.6(4)	14.7(5)
	종교단체의 소개	40.7(55)	0(0)	100(34)	0(0)	64.7(22)
	기 타	3.0(4)	0(0)	0(0)	21.4(3)	2.9(1)
	계	100(135)	100(53)	100(34)	100(14)	100(34)

다음은 각각 이모의 소개, 친구소개, 통일교회의 소개로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애기 아빠가 이모 친구네 집에서 숙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결혼도 하고 백두산도 구경하고 하는 차로 온거였어요. 구경도 하면서 소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모가 같이 가자고 해서 만났어요. [중국(조선족), 36세, 결혼 13년]”

“제 친구가 한국말 통역원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결혼회사 사장님이 우리 남편 친구예요. 저는 통역원 친구랑 같이 일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남편 소개했어요. [베트남, 39세, 2년]”

“통일교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교제하는거 금지해요. 그러니까 결혼 소개받고 해요. 교회 있으면서 자기 맘에 들어서 결혼하는거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사람과 결혼하게 된건 문선명 선생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자기가 일본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축복받고 싶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다 결정하시는대로 제가 맡기는 거죠. [일본, 43세, 결혼 10년]”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에게 현재 부인을 만나기 전 외국여성과 맞선을 보거나 외국여성을 소개받은 적이 몇 번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총 134명의 응답자 중 70.9%가 전혀 없고 현재의 부인이 처음으로 소개받은 외국여성이었다고 밝혔다. <표 4-2>에서 소개 받은 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소개의 경우 이전에 외국여성을 3번 이상 소개를 받았다는 응답이 21.1%였으며, 결혼중개업체나 종교단체 소개의 경우에도 이전에 외국여성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36.5%, 26.0%였다. 특히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를 받아 결혼한 남성의 경우 이전에 외국여성을 소개받은 경험이 5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5%로 다른 소개방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 소개 방법별 결혼 전 외국여성을 소개받은 횟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소개방법				
		부모, 형제 소개	친구소개	결혼중개업체 소개	종교단체 소개	기타
전혀없음	70.9(95)	100(4)	78.9(15)	63.5(33)	74.1(40)	50.0(1)
1,2번	14.2(19)	0(0)	0(0)	19.2(10)	13.0(7)	50.0(1)
3,4번	6.0(8)	0(0)	15.8(3)	5.8(3)	3.7(2)	0(0)
5번 이상	9.0(12)	0(0)	5.3(1)	11.5(6)	9.3(5)	0(0)
계	100(134)	100(4)	100(19)	100(52)	100(54)	100(2)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몇 번을 만났는지를 부인에게 물었을 때, 총 응답자 162명 중 32.1%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곧 결혼한 경우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출신국 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처음 만나 결혼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국에 관계없이 1-2번 만난 후 결혼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중국은 3-4번 만나고 결혼한 경우도 28.6%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다른 출신국 보다 남편을 소개받은 방법에 있어 부모, 형제의 소개나 친구의 소개 비율이 높아 결혼 전 만남의 횟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4-3> 부인의 출신국별 결혼 전 남편을 만난 횟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한 번도 만난 적 없음	32.1(52)	31.3(21)	52.8(19)	7.1(1)	24.4(11)
1-2번	47.5(77)	58.2(39)	27.8(10)	35.7(5)	51.1(23)
3-4번	10.5(17)	7.5(5)	8.3(3)	28.6(4)	11.1(5)
5-9번	4.3(7)	3.0(2)	8.3(3)	7.1(1)	2.2(1)
10번 이상	5.6(9)	0(0)	2.8(1)	21.4(3)	11.1(5)
계	100(162)	100(67)	100(36)	100(14)	100(45)

다음은 통일교회를 통해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결혼과정 이야기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만난적 없어요. 축복식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40일 전에 사진 받았어요. 남편도 그때 내 사진 받고.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랬어요. 먼저 한국에 살고있는 언니들이 통역해줬어요. 나중엔 저도 한국어 공부하고. [일본, 43세, 결혼 10년]”

남편이 부인을 소개받은 방법 역시 부인의 응답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4-4>에서 부인을 소개받은 방법별로 살펴보면 결혼하기 전에 1-2번 만난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난 경우와 종교단체의 소개로 만난 경우 각각 처음 만나서 결혼한 비율이 37.3%, 34.5%로 전체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모형제의 소개나 친구소개로 만난 경우 각각 3-4번 만난 후 결혼한 비율이 25.0%, 33.3%로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4> 소개 방법별 결혼 전 부인을 만난 횟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소개방법				
		부모, 형제 소개	친구소개	결혼중개 업체소개	종교단체 소개	기타
한 번도 만난 적 없음	30.9(43)	25.0(1)	20.0(3)	37.3(19)	34.5(19)	0(0)
1-2번	46.8(65)	50.0(2)	40.0(6)	49.0(25)	45.5(25)	50.0(2)
3-4번	14.4(20)	25.0(1)	33.3(5)	9.8(5)	10.9(6)	25.0(1)
5-9번	2.2(3)	0(0)	0(0)	2.0(1)	1.8(1)	0(0)
10번 이상	5.8(8)	0(0)	6.7(1)	2.0(1)	7.3(4)	25.0(1)
계	100(139)	100(4)	100(15)	100(51)	100(55)	100(4)

소개 받은 후 결혼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표 4-5>에 제시하였다. 출신국별로 살펴 보면, 베트남의 경우 85.3%의 여성이 소개받은 지 1주일 안에 결혼하였고, 중국의 경우 93.3%의 여성이 만난 지 1개월 이후에 결혼을 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많아 소개에서 결혼까지의 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 부모형제의 소개나 친구 소개를 통한 결혼이 많아 소개에서 결혼까지의 시간이 좀 더 긴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 소개에서 결혼까지 만남의 횟수는 매우 적었던 것에 비해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비교적 길게 나타나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결혼을 준비한 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부인의 출신국별 소개 후 결혼까지 걸린 시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1-3일	32.7(54)	47.1(32)	11.1(4)	0(0)	39.1(18)
1주일	18.2(30)	38.2(26)	5.6(2)	0(0)	4.3(2)
한 달	12.1(20)	4.4(3)	27.8(10)	6.7(1)	13.0(6)
한 달 - 6개월	16.4(27)	7.4(5)	16.7(6)	33.3(5)	23.9(11)
6개월 이상	20.6(34)	2.9(2)	38.9(14)	60.0(9)	19.6(9)
계	100(165)	100(67)	100(36)	100(14)	100(45)

다음은 중국 현지에서 결혼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 부인이 입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사례이다.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속을 빨리 해야 해서, 결혼증도 빨리 내야하고, 그래야 빨리 요청해서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애기 아빠는 오고 저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일러 가게를 한다고 해서 가야 한다고 해서 만난지 열흘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애기아빠가 한국에 와서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그래서 감방에 몇 달, 서너달 있었대요. 그런데 그동안 결혼증을 냈으니까 합법적이니까 여관을 갔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는 크면서 수속은 안 되고 속을 태웠죠. 임신 9개월 되어서 왔어요. 편지하고 전화만 하고 못 만났어요. 애기아빠 큰집에서는 그냥 지방 갔다고 그러고, 저는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도 애 낳기 전에는 왔어요. [중국(조선족), 36세]”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 남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과정 뿐 아니라 출신국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입국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가피하게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남편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지불한 돈이 있는지를 부인에게 물었을 때, 총 응답자 118명 중 85.6%(101명)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14.4%(17명)는 돈을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표 4-6>은 소개과정에서 부인이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부인의 출신국별로 보여준다.

<표 4-7>은 소개 방법별로 부인과 남편이 돈을 지불했는지를 보여준다. 부인이 돈을 지불한 경우는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를 받은 경우(20.0%)와 종교단체의 소개를 받은 경우(16.1%)에서 나타났다. 남편이 돈을 지불한 경우는 모든 소개방법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부인을 소개받은 경우 돈을 지불한 비율이 73.2%로 가장 높았다. 남성응답자 총 112명 중, 49.1%(55명)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50.9%(57명)는 돈을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표 4-6> 부인의 출신국별 돈 지불 여부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없다	85.6(101)	82.9(34)	90.9(30)	92.3(12)	80.6(25)
있다	14.4(17)	17.1(7)	9.1(3)	7.7(1)	19.4(6)
계	100(118)	100(41)	100(33)	100(13)	100(31)

<표 4-7> 소개 방법별 돈 지불 여부

단위: %(명)

구 분	전 체	소개방법					
		부모, 형제 소개	친구소개	결혼중개업체 소개	종교단체 소개	기타	
부인 응답	없다	85.6(101)	100(4)	100(12)	80.0(32)	83.9(47)	100(4)
	있다	14.4(17)	0(0)	0(0)	20.0(8)	16.1(9)	0(0)
	계	100(118)	100(4)	100(12)	100(40)	100(56)	100(4)
남편 응답	없다	49.1(55)	50.0(1)	66.7(8)	26.8(11)	59.6(28)	71.4(5)
	있다	50.9(57)	50.0(1)	33.3(4)	73.2(30)	40.4(19)	28.6(2)
	계	100(112)	100(2)	100(12)	100(41)	100(47)	100(7)

2) 국제결혼을 하게 된 이유

부인에게 다른 나라 사람보다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 선택하도록 했을 때 응답한 내용이 <표 4-8>과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1순위의 경우 총 응답자 136명 중 33.1%(45명)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응답했으며, 26.5%(36명)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22.0%(31명)가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응답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남성과 결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필리핀의 경우 종교단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표 4-8> 부인의 출신국별 한국인과 결혼한 1순위 이유

단위: %(명)

구 분	전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남편을 사랑해서	33.1(45)	20.4(10)	29.4(10)	66.7(10)	40.5(15)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26.5(36)	65.3(32)	2.9(1)	13.3(2)	2.7(1)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3.7(5)	6.1(3)	0(0)	0(0)	5.4(2)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12.5(17)	8.2(4)	0(0)	13.3(2)	29.7(11)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1.4(2)	0(0)	0(0)	6.7(1)	2.7(1)
종교적인 이유로	22.0(31)	0(0)	70.6(24)	0(0)	18.9(7)
계	100(136)	100(49)	100(34)	100(15)	100(37)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로 한 가지를 더 응답한 총 86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1순위에 서는 매우 적은 인원이 응답하였던 항목인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출신국에 따라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응답과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4-9> 부인의 출신국별 한국인과 결혼한 2순위 이유

단위: %(명)

구 분	전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남편을 사랑해서	19.8(17)	10.3(4)	47.6(10)	0(0)	16.7(3)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13.9(12)	18.0(7)	0(0)	37.5(3)	11.1(2)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16.3(14)	28.2(11)	0(0)	12.5(1)	11.1(2)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22.1(19)	41.0(16)	0(0)	25.0(2)	5.6(1)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5.8(5)	0(0)	4.8(1)	25.0(2)	11.1(2)
종교적인 이유로	22.1(19)	2.6(1)	47.6(10)	0(0)	44.4(8)
계	100(86)	100(39)	100(21)	100(8)	100(18)

“... 그래도 살기는 중국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생각에 그냥 평생 살거면 한국남자를 선택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또 가장 많이 고려한 건 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였어요. [중국(조선족), 31세]”

“한국사람이 좋아요. 여기 한국이 잘 살아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할아버지 있고, 일본에 일본인과 결혼한 친구 있지만 나는 한국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서 결혼했어요. [베트남, 22세, 결혼 1년 6개월]”

남편에게 외국 여성과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표 4-10>과같이 총 응답자 126명 중 48.4%(48명)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한국 미혼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가진 기대수준이 높아 결혼이 어려워 외국여성과 결혼했다는 응답이 33.3%(42명)을 차지하였고, 마지막으로 외국 여성이 한국여성보다 현재의 농촌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 같아 외국여성과 결혼했다는 응답이 18.3%(23명)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한국사회의 통념에 따른 결혼적령기를 놓치고 나니 한국여성과 결혼하기가 어려워 외국여성을 만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응답자의 결혼당시 평균연령이 37세인 것을 고려할 때, 농촌 남성들이 결혼적령기를 놓친 경우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유

구 분	%(명)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서	48.4(61)
한국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가진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서	33.3(42)
외국 여성이 농촌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 같아서	18.3(23)
계	100(126)

“제가 결혼중개업체 사장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나이는 열 살 이내로 차이 나와 되고, 한국말이나 영어 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도 있어요? 없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혼은 해야겠고, 시골에서 혼자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올 한국 여자가 없고. 시골에서 누가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한국여자 선 여러 번 봐도 올 사람 없어요. [베트남 여성 남편, 50세, 재혼 2년]”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응답한 내용들이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총 응답자 158명 중 가장 많은 수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34.8%), 다음으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인지를 고려했다는 응답을 하였다(32.3%).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58.2%), 종교단체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높은 일본(44.1%)이나 필리핀(41.9%)의 경우에는 나를 사랑해줄지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42.9%).

<표 4-11> 부인의 출신국별 결혼 결정시 가장 많이 고려한 것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나를 사랑해 줄 것인지	32.3(51)	19.4(13)	44.1(15)	35.7(5)	41.9(18)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인지	34.8(55)	58.2(39)	2.9(1)	14.3(2)	30.2(13)
친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8.9(14)	7.5(5)	0(0)	7.1(1)	18.6(8)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허용할 것인지	9.5(15)	10.4(7)	5.9(2)	42.9(6)	0(0)
기타	14.6(23)	4.5(3)	47.1(16)	0(0)	9.3(4)
계	100(158)	100(67)	100(34)	100(14)	100(43)

“친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을 가장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에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10만원 정도요. [필리핀, 42세, 7년]”

남편에게 현재의 부인과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점을 물었을 때 응답한 내용이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경우 총 응답자 135명 중 37.8%가 한국에서의 생활, 특별히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인지를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비율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잘할 것인지를 고려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에 비해 나를 사랑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17.8%).

<표 4-12> 외국 여성과의 결혼 결정시 가장 많이 고려한 것

구분	%(명)
나를 사랑해 줄 것인지	17.8(24)
한국에서의 생활(농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인지	37.8(51)
나를 성적으로 만족시켜 줄 것인지	0.7(1)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잘할 것인지	37.8(51)
기타	5.9(8)
계	100(135)

외국 여성과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표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응답자 135명 중 46.7%(63명)가 혼자서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도 26.7%(36명)로 나타나 4분의 1이상의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동의와 심리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외국 여성과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

구분	단위: %(명)					
	혼자서	부모님	결혼중개업자	친구	기타	계
	46.7(63)	26.7(36)	9.6(13)	5.9(8)	11.1(15)	100(135)

남편을 대상으로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총 응답자 133명 중 128명은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명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지원을 받은 5명의 남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지원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3) 결혼 이전에 받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내용 및 정확성

부인에게 결혼을 결정할 때 제공받은 남편의 정보와 실제의 일치정도를 물었을 때, 61.4%가 일치했다고 응답했으며 31.6%는 약간 달랐다고 응답했다. <표 4-14>에서 소개받은 방법별로 살펴보면 부모, 형제의 소개로 만난 경우 일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87.5%), 다음으로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난 경우 일치했다는 응답이 많

았다(69.5%). 약간 달랐다는 응답은 친구 소개에서 가장 많았으며(52.9%), 종교단체의 소개에서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34.8%).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전혀 달랐다는 응답도 5.1%가 나타나 중개업체에 따른 정보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의 경우 전혀달랐다는 응답이 12.1%로 나타나 소개받은 방법 중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게 결혼을 결정할 때 제공받은 부인의 정보와 실제의 일치정도를 물었을 때, 61.2%가 일치했다고 응답했으며 32.8%는 약간 달랐다고 응답했다. <표 4-14>에서 소개받은 방법별로 살펴보면 부모, 형제의 소개로 만난 경우 일치했다는 응답이 100%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경우 일치했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낮았다. 약간 달랐다는 응답도 결혼중개업체가 41.7%로 가장 많았고, 친구소개의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35.3%). 부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결혼중개업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우 전혀 달랐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4-14> 소개방법별 배우자 제공정보의 정확성

단위: %(명)

구 분	전 체	소개방법					기타
		부모, 형제 소개	친구소개	결혼중개업체 소개	종교단체 소개		
부인 응답	일치했다	61.4(97)	87.5(7)	47.1(8)	69.5(41)	53.0(35)	66.7(4)
	약간 달랐다	31.6(50)	12.5(1)	52.9(9)	25.4(15)	34.8(23)	33.3(2)
	전혀 달랐다	7.0(11)	0(0)	0(0)	5.1(3)	12.1(8)	0(0)
계	100(158)	100(8)	100(17)	100(59)	100(66)	100(6)	
남편 응답	일치했다	61.2(71)	100(4)	58.8(10)	52.1(25)	71.4(30)	1(33.3)
	약간 달랐다	32.8(38)	0(0)	35.3(6)	41.7(20)	21.4(9)	2(66.7)
	전혀 달랐다	6.0(7)	0(0)	5.9(1)	6.3(3)	7.1(3)	0(0)
계	100(116)	100(4)	100(17)	100(48)	100(42)	100(3)	

“친구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한국남자고 몇 살이고, 무슨 직업, 학력, 어디에 살고, 결혼은 했었는지, 아들이 있다는 것도 다 정보 줬어요. 생활 어떤지 다 정보 알았어요. [베트남, 39세, 2년]”

제공받은 정보와 실제가 달랐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정보가 실제와 다른지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총 여성응답자 80명 중, 직업이 달랐다는 응답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격, 가족관계, 소득수준, 학력, 건강상태 및 장애여부가 달랐다고 응답했다<표 4-15>. 총 남성응답자 58명 중에서는 성격이 달랐다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장애여부, 직업, 소득수준이 달랐다고 응답했다.

<표 4-15> 소개시 제공받은 정보와 실체가 다른 점

단위: 명

구분	직업	학력	소득수준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장애여부	성격	계
부인응답	28	10	13	15	6	17	80
남편응답	6	9	5	8	8	35	58

“거의 반은 거짓이었던거 같아요. 생활수준이 많이 틀렸어요.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조선족), 31세, 결혼 10년]”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영어 못하는데 좀 한다고 그랬어요. 또 말 안해준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나이 많은 것 같은데 막내라고 했었는데, 한국 와보니까 장남이었어요. [필리핀, 42세, 결혼 7년]”

“신랑이 돈 번다고 했지 농사짓는다고는 말 안했어요. 나는 대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농사한다고 말 안해서 마음 아프고 화났어요. 와서 농사일 알았어요. 이게 뭐야, 집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필리핀 간다고 전화해서 울기도 했어요. [필리핀, 39세, 결혼 7년]”

4) 본국에서의 생활

부인을 대상으로 결혼 이전에 본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국에서의 거주지역은 <표 4-16>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은 40.9%가 본국에서 중소도시에 거주하였으며 다음으로 34.1%가 농어촌에, 20.7%가 대도시에 거주하였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농어촌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각각 63.9%, 60.0%로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국에서 대도시에 거주하였던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였던 여성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표 4-16>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거주지역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대도시	20.7(34)	4.4(3)	30.6(11)	26.7(4)	35.6(16)
중소도시	40.9(67)	20.6(14)	63.9(23)	60.0(9)	46.7(21)
농어촌	34.1(56)	72.1(49)	2.8(1)	6.7(1)	11.1(5)
기타	4.3(7)	2.9(2)	2.8(1)	6.7(1)	6.7(3)
계	100(164)	100(68)	100(36)	100(15)	100(45)

본국에서 하던 일은 <표 4-17>에 제시되어 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가사일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영농일도 20.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80.6%가 기타에 속하였으며, 영농일에 종사하였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도 가사나 영농보다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하였던 경우가 86.6%로 크게 많았으며, 필리핀의 경우에도 일본과 유사하게 58.1%가 기타에 속했다. 기타응답으로는 회사원(사무, 판매) 21명, 전문직(교사 또는 간호사) 10명, 공무원 2명, 학생 1명이 있었다.

<표 4-17>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 하던 일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가사일	26.4(43)	43.1(28)	5(13.9)	6.7(1)	18.6(8)
영농일	10.1(16)	20.0(13)	0(0)	6.7(1)	4.7(2)
공장일	18.2(29)	16.9(11)	2(5.6)	53.3(8)	18.6(8)
기타	45.3(72)	20.0(13)	29(80.6)	33.3(5)	58.1(25)
계	100(159)	100(68)	100(36)	100(15)	100(45)

현재 조사대상 여성들이 모두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결혼 후 입국하여 이들 여성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이 단순히 한국 문화와 가정환경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와 농업에까지

연결되어 있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 본국에서 농어촌지역 거주 비율이 높고 가사와 영농을 담당하였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현재의 한국생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와 언어 면에서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 여성의 경우 사회적·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본국에서 중소도시 이상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취업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는 농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본국에서의 교육경험

결혼이전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4-18>과 같다. 총 응답자 159명 중 54.1%가 한글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5.9%는 한글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76.6%가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70.4%가 한글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8>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한글교육경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있다	54.1(86)	76.6(49)	44.4(16)	53.3(8)	29.6(13)
없다	45.9(73)	23.4(15)	55.6(20)	46.7(7)	70.4(31)
계	100(159)	100(64)	100(36)	100(15)	100(44)

<표 4-19>는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총 응답자 127명 중 43.3%가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통해 한글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베트남 여성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한글교육 경험이 66.7%로 다른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여성의 경우 종교단체(통일교)에서 실시하는 한글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기타응답에 포함되어 기타응답의 비율이 30%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9>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한글교육방법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혼자서	28.3(36)	20.6(13)	40.0(8)	25.0(3)	37.5(12)
학원/학교강의	18.1(23)	6.3(4)	30.0(6)	66.7(8)	15.6(5)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의	43.3(55)	66.7(42)	0(0)	8.3(1)	37.5(12)
기타	10.2(13)	6.3(4)	30.0(6)	0(0)	9.4(3)
계	100(127)	100(63)	100(20)	100(12)	100(32)

“일본에 있을 때 문화센터 같은 곳 있어요. 거기서 유학생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니까. 결혼 전에 통일교회 10년 정도 다녔으니까..... 통일교회 자체가 문선명 선생님이 한국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고 싶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일년 정도 배웠어요. [일본, 43세, 결혼 10년]”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에 1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5점을 주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평균이 4.11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과 같이 한글교육을 받은 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학원이나 학교강의 및 결혼중개업체의 강의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와 종교단체를 통한 한글교육이나 친구의 개인 교습을 받은 기타 응답의 경우 모두 평균 4점 이상의 만족을 보였다. 한글교육을 받은 방식에 따라 교육경험이 한국에 왔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159, p<.05). 이러한 결과는 본국에서 혼자 한글을 공부한 경우보다 외부의 지원을 받아 공부한 경우 한국에 왔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입국 이전에 한글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0> 한글교육을 받은 것이 한국에 왔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수(명)

구 분	전체 (125)	교육방법			
		혼자서 (34)	학원/학교강의 (22)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의 (54)	기타 (12)
평 균	4.11	3.74	4.23	4.26	4.25

본국에서 한글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4-21>와 같이 응답하였다. 총 응답자 163명 중 41.1%가 문화예절교육을, 17.8%가 생활정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4.4%는 한국인과의 결혼에 앞서 이러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한글교육에 있어서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다른 교육의 경우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문화예절 교육을 받은 경험이 각각 61.1%, 60.9%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부인의 출신국별 본국에서 받은 교육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교육받은 적이 없다	34.4(56)	50.0(34)	33.3(12)	23.1(3)	15.2(7)
문화예절	41.1(67)	16.2(11)	61.1(22)	46.2(6)	60.9(28)
생활정보	17.8(29)	26.5(18)	2.8(1)	30.8(4)	13.0(6)
출산과 육아	5.5(9)	5.9(4)	0(0)	0(0)	10.9(5)
기타	1.2(2)	1.5(1)	2.8(1)	0(0)	0(0)
계	100(163)	100(68)	100(36)	100(13)	100(46)

“결혼하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40일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한국문화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필리핀, 42세, 결혼 7년]”

2. 부부관계

1) 결혼유형과 가족구조

조사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표 4-22>에서와 같이 여성의 경우 초혼인 경우가 96.1%이었으며 재혼인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초혼인 경우가 80.1%이었으며 재혼인 경우 18.3%이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부인들은 일본과 중국 여성의 경우 재혼인 경우도 있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모두 초혼이었다. 반면 남편의 경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의 30.2%가 재혼이었으며, 16%가 삼혼이었고, 중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14.3%,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17.7%가 재혼으로 베트남 여성의 남편들은 재혼인 경우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일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모두 초혼이었다. 즉 본 연구 대상의 여성결혼 이민자 대부분은 초혼이었으나 상대 한국 남성의 경우 재혼 혹은 세 번째 결혼인 경우가 더 많았고 특히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한국 남성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4-22> 결혼이민자 가정의 결혼 유형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부인 응답	초혼	96.1(149)	100(64)	94.1(32)	78.5(11)	100(42)
	재혼	3.9(5)	0(0)	5.9(2)	21.5(3)	0(0)
	계	100(154)	100(64)	100(34)	100(14)	100(42)
남편 응답	초혼	80.1(105)	66.0(35)	100.0(30)	85.7(12)	82.3(28)
	재혼	18.3(24)	30.2(16)	0(0)	14.3(2)	17.7(6)
	삼혼	1.6(2)	3.8(2)	0(0)	0(0)	0(0)
	계	100(131)	100(53)	100(30)	100(14)	100(34)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구성원을 살펴본 결과 <표 4-23>에서와 같이 부부와 시댁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사는 경우(21.8%),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21.1%), 부부와 자녀 및 시댁가족이 사는 경우(20.4%) 순으로 많았다. 친정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1.4% 있었으며, 자녀까지 포함하여 3세대가 사는 경우도 2.7%가 있었다. 남편 없이 본인과 시댁가족만 사는 경우(2.7%), 자녀와 시댁가족이 사는 경우(4.8%)도 있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시댁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40.9%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를 합치면 60.5%로 과반수 이상이 시댁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부부와 자녀만 생활하는 경우가 3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가 41.8%(5명)이었다. 필리핀의 경우 핵가족만 사는 경우와 시댁가족이 함께 사는 대가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시댁가족과 사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3>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구성원

단위: %(명)

구 분	전체	국 적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부부	21.1(31)	21.4(13)	12.5(4)	41.8(5)	21.4(9)
부부+시댁식구	25.1(37)	40.9(25)	12.5(4)	8.3(1)	16.7(7)
부부+친정식구	1.4(2)	0(0)	3.1(1)	8.3(1)	0(0)
부부+자녀	21.8(32)	13.2(8)	31.2(10)	25.0(3)	26.2(11)
부부+자녀+시댁식구	20.4(30)	19.6(12)	25.0(8)	8.3(1)	21.4(9)
부부+자녀+친정식구	2.7(4)	3.3(2)	3.1(1)	8.3(1)	0(0)
본인+시댁식구	2.7(4)	0(0)	6.3(2)	0(0)	4.8(2)
본인+자녀+시댁식구	4.8(7)	1.6(1)	6.3(2)	0(0)	9.5(4)
계	100(147)	100(61)	100(32)	100(12)	100(4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혼인 기간을 살펴본 결과 <표 4-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 147명의 평균결혼기간은 4.4년이였다. 이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 여성의 경우 9.2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필리핀이 4.8년, 중국이 3.8년, 베트남이 1.4년이였다. 즉, 일본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반면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이 신혼 초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결혼이민자 가정 이어도 출신국에 따라 평균 결혼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4-24>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기간

단위: 년(명)

	전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평균결혼기간	4.4(147)	1.4(58)	9.2(35)	3.8(13)	4.8(41)

2) 부부간의 의사소통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질문에 <표 4-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 들은 스스로에 대해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실력에 대해 각각 35.0%, 34.2%, 30.9%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쓰기 실력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28.1%)과 약간

서툴다는 응답(27.5%)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들은 부인의 한국어 말하기, 읽기 실력에 대해 각각 40.1%, 30.3%가 약간 잘한다고 응답하였고, 듣기 능력은 약간 잘한다는 응답(30.8%)과 약간 서툴다는 응답(30.1%)이, 쓰기 능력도 약간 잘한다는 응답(29.0%)과 약간 서툴다는 응답(30.5%)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실력에 비해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남편들은 부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것보다 부인의 한국어 실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4-25>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단위: %(명)

구분	매우 능숙	약간 잘함	그저 그러함	약간 서툰	매우 서툰	계	
부인	말하기	10.2(16)	15.9(25)	35.0(55)	27.4(43)	11.5(18)	100(157)
	듣기	13.5(21)	18.7(29)	34.2(53)	25.2(39)	8.4(13)	100(155)
응답	읽기	13.8(21)	26.3(40)	30.9(47)	21.1(32)	7.9(12)	100(152)
	쓰기	8.5(13)	22.9(35)	28.1(43)	27.5(42)	13.1(20)	100(153)
남편	말하기	8.0(11)	40.1(55)	16.1(22)	24.8(34)	10.9(15)	100(137)
	듣기	9.8(13)	30.8(41)	18.8(25)	30.1(40)	10.5(14)	100(133)
응답	읽기	13.6(18)	30.3(40)	23.5(31)	23.5(31)	9.1(12)	100(132)
	쓰기	10.7(14)	29.0(38)	16.8(22)	30.5(40)	13.0(17)	100(131)

부인의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 점수는 <표 4-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2.9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F 검증결과, 출신국별로 한국어 실력 차이가 있었으며(F=6.78, p<.0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베트남 여성들은 2.54점으로 일본 3.13점, 필리핀 3.36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베트남 여성들이 일본이나 필리핀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남편 응답에서는 부인의 한국어 실력 점수가 3.06점으로 부인의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출신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26> 출신국별 부인의 한국어 실력 점수 차이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출신국				F값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부인의 한국어 실력	부인응답	2.99(150)	2.54(57)	3.13(36)	3.28(15)	3.36(42)	6.78 ***
	남편응답	3.06(129)	2.92(50)	3.37(33)	3.00(12)	3.00(34)	1.36

*** p<.001

남편의 부인 나라말 실력은 <표 4-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들은 남편의 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에 대해 각각 62.7%, 58.5%, 58.9%, 63.3%가 매우 서툴다고 응답하였고 남편들도 본인의 부인 나라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에 대해 각각 70.0%, 68.5%, 69.8%, 72.3%가 매우 서툴다고 응답하였다. 즉, 남편들은 대부분 부인의 출신국 언어 실력이 매우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7> 남편의 부인 나라말 실력

단위: %(명)

구 분	매우 능숙	약간 잘함	그저 그러함	약간 서툴	매우 서툴	계	
부인 응답	말하기	2.0(3)	3.3(5)	12.0(18)	20.0(30)	62.7(94)	100(150)
	듣기	4.1(6)	6.8(10)	12.9(19)	17.7(26)	58.5(86)	100(147)
	읽기	2.7(4)	6.8(10)	15.1(22)	16.4(24)	58.9(86)	100(146)
	쓰기	2.0(3)	4.8(7)	12.9(19)	17.0(25)	63.3(93)	100(147)
남편 응답	말하기	7.7(10)	3.8(5)	9.2(12)	9.2(12)	70.0(91)	100(130)
	듣기	9.4(12)	3.9(5)	9.4(12)	8.7(11)	68.5(87)	100(127)
	읽기	9.3(12)	6.2(8)	6.2(8)	8.5(11)	69.8(90)	100(129)
	쓰기	8.5(11)	5.4(7)	5.4(7)	8.5(11)	72.3(94)	100(130)

남편의 부인 나라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 점수는 <표 4-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 응답에서는 평균 1.6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F 검증결과, 출신국별로 남편의 본국어 실력 차이가 나타났으며(F=3.66, p<.05),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일본 여성(1.38점)과 필리핀 여성(1.96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본 여성들은 필리핀 여성들에 비해 남편의 본국어 실력에 대해 더 서툴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남편 응답 점수는 1.73점으로 부인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출신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28> 부인의 출신국별 남편의 부인 나라말 실력 점수 차이

단위: 점(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F값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남편의 부인나라말 실력	부인응답	1.66(143)	1.63(53)	1.38(36)	1.44(13)	2.02(41)	3.66 *
	남편응답	1.73(126)	1.69(49)	1.38(31)	2.07(13)	1.96(33)	1.53

* p<.05

전반적으로 부인의 한국어 실력은 보통 정도이나 남편의 본국어 실력은 매우 서투른 편으로 부인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의사소통 수준이 달라진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어 발음과 문법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를 많이 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한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문, 문장 어려워요. 발음이랑 문법 어려워요. 힘들어요. [베트남, 39세]”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인줄 알았는데요. 처음에 저도 한국말 잘 못하니까. 의사소통 문제 있고. [일본, 40세]”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은 시댁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남편의 경우에도 친정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남편이 부인 나라말을 조금이라도 알 경우 친정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인의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남편에게 부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본적인 회화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말도 높임말을 써야하는데, 그런거 안 배웠으니까. 어머니도 남편도 다 저한테는 반말을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쓰는거 아니라고 혼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해주시면 나도 배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끝나니까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할 수도 없고, 발음 배울 기회도 없고. [일본, 43세]”

(남편은 베트남어를 잘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하나도 몰라요. 엄마아빠 베트남 전화 와서 남편이 대화하고 싶어도 베트남 하나도 몰라 대화 못해요. [베트남, 39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이나 함께 사는 가족과 대화하는 빈도는 <4-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과 보통 이상으로 대화하는 비율이 약 95.1%이었으며 시댁가족과 보통 이상으로 대화하는 비율은 78.7%로 남편과의 대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도 부인과 대화하는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대화를 보통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94.9%로 부인이 지각하는 것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4-29> 대화의 빈도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거의 안함	보통 정도	자주 함	계
부부간	부인응답	0.6(1)	1.3(7)	45.4(74)	49.7(81)	100(163)
대화	남편응답	0.7(1)	4.4(6)	54.0(74)	40.9(56)	100(137)
시댁가족과 대화		10.7(16)	10.7(16)	58.7(88)	20.0(30)	100(150)

부부간의 대화 점수를 출신국별로 F 검증한 결과 <표 4-30>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인의 응답에서 출신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5.22, p<.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베트남 여성(3.48점)과 필리핀 여성(3.59점)이 일본 여성(3.11점)보다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응답에서는 출신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댁가족과의 대화 점수를 출신국별로 F 검증한 결과, 출신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79, p<.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베트남 여성(3.06점)과 중국 여성(3.42점)은 필리핀 여성(2.52점)보다 시댁가족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하였다.

즉, 한국어 실력은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부족하였지만 남편과의 대화를 오히려 일본 여성보다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과 의사소통 문화가 각 나라 별로 차이가 있거나 베트남 여성들이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시댁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시댁가족과의 대화가 부족하고, 중국 여성의 경우 핵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시댁가족과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 여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시댁가족과의 의사소통 장벽이 클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시댁가족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한국어 교육과 함께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표 4-30> 남편 및 가족과 대화 점수 차이

		단위: 점(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F값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부부간	부인응답	3.44(163)	3.48(66)	3.11(36)	3.60(15)	3.59(46)	5.22 **
대화	남편응답	3.35(137)	3.33(56)	3.35(34)	3.46(13)	3.32(34)	0.17
시댁가족과 대화		2.88(150)	3.06(66)	2.79(28)	3.42(12)	2.52(44)	5.79 **

** p<.01

부부간 대화와 시댁가족과의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4-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가 부부간 대화 및 시댁가족과 대화 모두 31.3%(부인응답), 40.0%(남편응답),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인은 남편과 인생계획(19.8%), 자녀양육 및 교육(18.4%), 시부모 및 직계 가족(12.9%) 순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하였고 부인은 남편과 자녀양육 및 교육(19.2%), 시부모 및 직계 가족(12.3%), 앞으로의 인생계획(10.8%) 순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하여, 부인이 지각한 것과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부인과 시댁가족은 시부모 및 직계 가족(18.4%), 자녀양육 및 교육(10.3%) 순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즉, 부부간 대화의 내용이 일상적인 내용에서부터 앞으로의 인생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표 4-31> 대화의 내용

단위: %(명)

구 분	부부간 대화		가족과 대화
	부인응답	남편응답	
하루 일과	31.3(52)	40.0(52)	47.1(64)
시부모 및 직계 가족	12.9(21)	12.3(16)	18.4(25)
자녀양육 및 교육	18.4(30)	19.2(25)	10.3(14)
친척 및 이웃사람들	3.1(5)	9.2(12)	5.1(7)
앞으로의 인생계획	19.6(32)	10.8(14)	5.9(8)
가치관	4.3(7)	3.1(4)	3.7(5)
돈 관리	1.8(3)	2.3(3)	1.5(2)
취업	6.7(11)	0.8(1)	8.1(11)
기타	1.2(2)	2.3(3)	0.0(0)
계	100(163)	100(130)	100(136)

3) 남편의 가사 및 육아참여

남편의 가사 및 육아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 4-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의 응답에서는 식사준비, 시장보기, 빨래, 청소 등 가사를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63.3%이었고, 자녀와 놀아주기, 돌보기, 숙제 도와주기 등 육아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5.8%이었고, 친척 길흉사, 반사회나 주민모임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5.2%이었고, 구청이나 은행 일을 보는 등 공공업무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

는 72.2%로 나타났다. 남편이 응답한 것에 의하면 가사에 보통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74%이었고, 육아는 85.9%, 모임참석은 74.4%, 공공업무는 77.4%로 부인이 응답한 것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32>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 빈도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거의 안함	보 통	자주 함	항상 함	계	
부인	가사	21.5(34)	15.2(24)	38.6(61)	17.7(28)	7.0(11)	100(158)
	육아	9.5(11)	14.7(17)	36.2(42)	22.4(26)	17.2(20)	100(116)
응답	모임참석	12.0(16)	12.8(17)	42.9(57)	16.5(22)	15.8(21)	100(133)
	공공업무	16.8(23)	10.9(15)	24.8(34)	20.4(28)	27.0(37)	100(137)
남편	가사	8.9(12)	17.0(23)	42.2(57)	22.2(30)	9.6(13)	100(135)
	육아	5.1(5)	9.1(9)	58.6(58)	18.2(18)	9.1(9)	100(99)
응답	모임참석	10.4(13)	15.2(19)	40.0(50)	20.8(26)	13.6(17)	100(125)
	공공업무	12.1(15)	10.5(13)	32.3(40)	16.9(21)	28.2(35)	100(124)

가사, 육아, 모임참석, 공공업무의 평균점수를 가사참여도로 하여 출신국별로 살펴본 결과 <표 4-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참여도는 3.0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필리핀(3.32점), 베트남(3.10점), 중국(2.95점), 일본(2.79점) 순으로 나타났다. F검 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수 순으로 보면 일본 여성의 남편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사참여도 전체 평균이 3.11점으로 부인이 응답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F검 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베트남(3.34점), 필리핀(3.08 점), 중국(3.00점), 일본(2.92점) 순으로 가사 참여도 점수가 높았다. 즉, 대체적으로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보통 정도이며 심층 면접에서도 여성들이 남편의 가사참여를 좀 더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남편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표 4-33> 출신국별 남편의 가사참여도 점수

단위: 점(명)

구 분	전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부인응답	3.05(103)	3.10(27)	2.79(34)	2.95(10)	3.32(32)
남편응답	3.11(95)	3.34(29)	2.92(28)	3.00(7)	3.08(31)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음 좋겠어요. 힘들 때는 똑같이 나눠서 같이 일하고, 저는 집에 오면 또 가사일을 해야 하니까, 저녁이 되면 정말 녹초예요. 밖에 나가서 같이 밭일을 하고, 집에 오면 밥하고 애들 씻기고 공부시키는데, 남편은 밥 먹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자면 끝인데, 저는 일과가 계속 되니까. 거의 늦게는 12시 넘어서까지 있어요. 좀 빠르다 싶으면 10시까지. 항상 잠을 못 자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자야되니까요. 그래서 피곤하기는 제가 더 그렇죠. 남편은 저보단 힘쓰는 일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소소하게 자기 품 팔면서 하는 건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 31세]”

4) 결혼생활의 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표 4-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문화 및 예절(24.3%), 친족관계(16.4%), 한국생활(12.5%), 자녀양육(11.8%), 음식 만들기(10.5%), 농사일(7.9%), 전통의례(5.9%), 농촌생활(2.0%), 가사노동(2.0%)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문화와 우리 문화의 일부분인 친족관계가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34>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

단위: %(명)	
구 분	빈 도
한국문화 및 예절	24.3(37)
한국 생활	12.5(19)
친족관계	16.4(25)
전통의례	5.9(9)
자녀양육	11.8(18)
음식만들기	10.5(16)
농사일	7.9(12)
농촌생활	2.0(3)
가사노동	2.0(3)
기타	6.6(10)
계	100(152)

결혼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대인관계는 <표 4-3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부모(19.5%), 남편(18.8%), 친인척(9.7%) 순으로 나타났다. 48.1%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시부모 및 시댁 친인척으로 인한 어려움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더 컸는데, 이는 한국문화와 예절을 잘 모르고, 복잡한 친족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시댁과의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5> 결혼생활 중 힘든 대인관계

단위: %(명)	
구 분	빈 도
별로 마음고생 안함	48.1(74)
남편	18.8(29)
시부모	19.5(30)
친인척(시누이, 시댁어른 등)	9.7(15)
기타	3.9(6)
계	100(154)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성들이 도움을 얻는 상대는 <표 4-3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편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에 사는 본국 친구(24.5%), 본국의 친정부모 및 가족(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웃(1.3%)이나 시부모(2.6%) 및 시댁식구(2.0%)에게 도움을 얻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표 4-36>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 있을 때 도움 얻는 상대

단위: %(명)	
구 분	빈 도
남편	53.0(80)
시부모	2.6(4)
시부모 이외의 시댁식구	2.0(3)
본국의 친정부모 및 가족	11.3(17)
이웃	1.3(2)
한국에 사는 본국 친구	24.5(37)
기타	5.3(8)
계	100(151)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 시부모, 친구, 행정기관, 민간단체 각각으로부터 심리적 위로, 생활정보 제공, 방문 및 연락을 받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심리적 위로는 평균 3.90점(135명)으로 남편의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3.50점)였다. 생활정보 제공도 남편의 지원이 3.47점(1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3.29점)이었다. 방문 및 연락은 친구의 지원이 3.60점(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서 심리적 위로 및 생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시부모, 민간단체, 행정기관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 심층 면접 대상자들도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서 심리적인 위로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과제가 되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표 4-37>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지원 정도

구 분	단위: 점(명)				
	남편	시부모	친구	행정기관	민간단체
심리적 위로	3.90(135)	2.46(100)	3.50(113)	1.83(89)	1.95(86)
생활정보제공	3.47(129)	2.70(90)	3.29(103)	2.15(86)	2.19(79)
방문 및 연락	해당 없음	2.81(90)	3.60(115)	1.85(85)	1.90(80)
계	3.59(107)	2.69(80)	3.42(98)	1.98(83)	1.98(76)

“2층 아주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K-Mart 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몇시 몇 시에 버스가 와요. 처음에는 아줌마랑 같이 가고 나중에는 혼자 가고 그랬어요. 또 애기 아프고 그러면 병원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2층 아줌마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데 애들 때문에 못나가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회사 갔다 올 때 사다줘요. [베트남, 42세]”

“중국에서 온 친구들, 동네 아줌마들 2명 정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속 터진다고 얘기 하고.(중략)...속상하다는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왜 사냐 이러다가 그래도 못한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려고. 그럼 이튿날 밝은 얼굴로 일어나서. [중국, 36세]”

5) 부부의 가치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부장주의 가치관 및 부부평등주의 가치관에 대해 F검증을 실

시한 결과 <표 4-3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부장주의 가치관은 5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3.21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출신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부평등주의 가치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6.84$, $p<.001$), 사후 검증 결과 베트남 여성(3.61점)과 일본 여성(3.27점)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부가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일본여성의 경우 낮게 나타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성들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들의 가부장제 의식의 평균점수는 3.44점이었고 부부평등의식은 3.29점으로 부인보다 더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부 평등 의식이 낮았다. 남편의 가치관은 부인의 출신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여기서 한국 남성들이 부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부부의 의식의 괴리가 있어 부부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사회의 남성우월주의 문화에 대해 진술하였다. 특히 국제결혼은 남녀간 의식 차이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 요구된다.

“예전 홍콩에서 일하던 집 주인이, 나한테 한국에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편만 위하는 나라고 밥도 남자가 먼저 먹고 여자는 나중에 먹는다고 그랬어요. [필리핀, 42세]”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너무 하고 싶고, 가족에 대해서도 그 위해서 되는 일이라면 좀 몇 번 설득하고 그 래도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고. [일본, 40세]”

<표 4-38> 출신국별 가족 가치관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출신국				F값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부인	가부장제	3.21(126)	3.15(39)	3.42(34)	3.18(12)	3.11(41)	1.90
응답	부부평등	3.58(148)	3.61(54)	3.27(35)	3.45(15)	3.82(44)	6.84 ***
남편	가부장제	3.44(115)	3.47(43)	3.49(31)	3.18(11)	3.44(30)	0.89
응답	부부평등	3.29(128)	3.42(50)	3.04(32)	3.15(11)	3.39(35)	2.28

1. 가부장제 점수는 범위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적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부부평등 점수는 범위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평등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p<.001

6) 부인의 심리상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존감과 심리증상에 대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3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존감 평균 점수는 3.58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출신국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마음의 안정이 안 되거나 기분이 울적해지는 등의 심리증상은 일본 여성이 1.60점으로 베트남(2.12점), 중국(2.11점), 필리핀(1.96점) 여성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본 여성이 다른 출신국 여성보다 심리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신국별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들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결혼 초기에는 불안하고 우울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착초기에는 필요한 경우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근데 약 먹으면 괜찮고 그래요. 그리고 한참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한참 서있어야 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 많고 그런데 가면 불안하고 가슴도 떨렸어요. [베트남, 42세]”

<표 4-39> 개인의 내적심리 증상

단위: 점(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F값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자존감	3.58(141)	3.43(48)	3.11(35)	3.40(14)	3.50(44)	2.29
심리증상	1.93(132)	2.12(44)	1.60(34)	2.11(12)	1.96(42)	4.12 **

1. 자존감 점수는 범위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심리증상 점수는 범위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이상 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p<.01

7) 부부갈등 및 가정폭력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부싸움 빈도는 <표 4-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의 안 하는 경우가 30.3%, 1년에 1-2회가 12.9%, 6개월에 1-2회가 17.4%, 한달에 1-2회가 28.4%, 일주일에 1-2회 이상이 11%로 나타났다.

<표 4-40> 부부싸움 빈도

단위: %(명)

구 분	거의 안함	1년에 1-2회	6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이상	계
빈 도	30.3(47)	12.9(20)	17.4(27)	28.4(44)	11.0(17)	100(155)

부부관계에 대해 부인에게 응답한 결과 <표 4-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68.9%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49.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편을 신뢰하고 있는지, 결혼생활이 행복한지에 대하여 각각 33.8%, 35.9%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74%의 응답자들이 남편과 다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들도 부인과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4.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9.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부인을 신뢰하는지와 결혼생활이 행복한지에 대해 각각 41.5%, 33.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국제결혼생활에 대해 남편들도 행복해 하는 편으로 보인다.

<표 4-41> 부부관계

단위: %(명)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부 인 에 대 한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다	68.9(102)	7.4(11)	17.6(26)	4.7(7)	1.4(2)
	남편을 신뢰하고 있다	5.3(8)	2.6(4)	27.8(42)	33.8(51)	30.5(46)	100(151)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	49.7(71)	10.5(15)	23.8(34)	11.2(16)	4.9(7)	100(143)
	남편과 다툼 적이 있다	15.8(23)	10.3(15)	42.5(62)	21.2(31)	10.3(15)	100(146)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2.0(3)	5.9(9)	31.4(48)	35.9(55)	24.8(38)	100(153)
남 편 에 대 한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다	64.6(84)	15.4(20)	8.5(11)	6.2(8)	5.4(7)	100(130)
	부인을 신뢰하고 있다	10.0(13)	5.4(7)	18.5(24)	24.6(32)	41.5(54)	100(130)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	49.6(64)	23.3(3)	14.0(18)	6.2(8)	7.0(9)	100(129)
	부인과 다툼 적이 있다	20.5(27)	14.4(19)	41.7(55)	12.9(17)	10.6(14)	100(132)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5.3(7)	6.0(8)	24.1(32)	30.8(41)	33.8(45)	100(133)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별로 남편과의 관계를 F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 여성이 2.55점으로 베트남(2.02점), 중국(2.01점), 필리핀(2.31점) 여성에 비해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이 전반적으로 보통(3점) 이하인 것을 보았을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 것은 이들의 평균결혼기간이 9.16년이므로 부부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또한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하거나 결혼에 대해 후회하는 정도가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4-42> 출신국별 남편과의 관계

단위: 점(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F값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남편과의 관계	2.24(136)	2.02(48)	2.55(35)	2.01(12)	2.31(41)	4.19 **

** p<.01

부부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은 <표 4-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난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이 52.4%였고 가끔 있음이 28.7%였다. 말없이 지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28.4%가 응답하였고 의견 차이를 말로 해결하는 경우는 41.7%가 가끔 있다고 하였고 주변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28.8%이었다. 남편의 응답도 부인의 응답과 유사하게 주로 비난이나 회피보다는 말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43> 부부갈등 대처방법

단위: %(명)

구 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그랬음	항상 그랬음	계
부 인 응 답	남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모욕을 주었다	52.4(75)	14.7(21)	28.7(41)	2.8(4)	1.4(2)	100(143)
	며칠간 남편과 말없이 지냈다	48.2(68)	14.9(21)	28.4(40)	7.8(11)	0.7(1)	100(141)
	앉아서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말로 상의했다	16.5(23)	11.5(16)	41.7(58)	18.0(25)	12.2(17)	100(139)
	주변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	38.1(53)	20.1(28)	28.8(40)	7.2(10)	5.8(8)	100(139)
남 편 응 답	부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모욕을 주었다	41.4(53)	32.0(41)	22.7(29)	0.8(1)	3.1(4)	100(128)
	며칠간 부인과 말없이 지냈다	37.3(47)	34.1(43)	20.6(26)	5.6(7)	2.4(3)	100(126)
	앉아서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말로 상의했다	14.1(18)	14.8(19)	40.6(52)	14.8(19)	15.6(20)	100(128)
	주변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	34.4(44)	28.1(36)	28.9(37)	3.9(5)	4.7(6)	100(128)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표 4-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격(21.7%), 금전관리 및 소비(15.8%)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습관, 사고방식 및 가치관, 의사소통이 각 10%로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원인은 시부모 및 친척관계(13.3%), 자녀양육 및 교육과 성격(12.1%), 의사소통(11.0%)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 차이와 시댁가족과의 관계가 부부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댁과의 갈등 사례는 다음과 같이 형제와 경제적인 갈등, 시아버지의 구박, 시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있었다.

“형이 가을 되면 준다 이렇게 맨날 부러먹고서는 가을 되면 안 주는 거예요. 형네하고 싸우고 (중국으로) 갔어요. 갈 때는 내가 애들 떼어 놓고 온다. 와서 벌어서 이 동네 뜨고 살자 이렇게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왔지요. [중국인(조선족), 36세]”

“지금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버님 때문에 마음 고생 했어요. 거의 술 드

시면, 너 중국에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많이 하셨어요. [중국(조선족), 31세]”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음식이나, 제가 알아요. 제가 한국말 못하니까. 또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랑 같이 살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요. 전엔 많이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만 힘들게 아니고, 나도 어머니랑 사는게 힘들었는데... [필리핀, 42세]”

<표 4-44> 갈등의 원인

단위: %(명)

구 분	부인응답		남편응답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성격	21.7(26)	12.1(11)	27.9(31)	3.8(4)
생활습관	10.0(12)	7.7(7)	20.7(23)	12.5(13)
사고방식(가치관)	10.0(12)	9.9(9)	17.1(19)	21.2(22)
건강	5.0(6)	2.2(2)	5.4(6)	2.9(3)
대화(의사소통)	10.0(12)	11.0(10)	10.8(12)	13.5(14)
부부간의 성생활	1.7(2)	1.1(1)	0.9(1)	6.7(7)
애정이나 관심	2.5(3)	2.2(2)	0.9(1)	0.0(0)
외도나 부정	0.0(0)	2.2(2)	0.9(1)	1.0(1)
금전관리 및 소비	15.8(19)	9.9(9)	7.2(8)	15.4(16)
가사노동 분담	0.8(1)	3.3(3)	0.0(0)	1.0(1)
시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9.2(11)	13.2(12)	1.8(2)	7.7(8)
자녀양육 및 교육	8.3(10)	12.1(11)	1.8(2)	4.8(5)
사회적 활동	1.7(2)	4.4(4)	4.5(5)	4.8(5)
취업 및 직업	3.3(4)	8.8(8)	0.0(0)	4.8(5)
계	100(120)	100(91)	100(111)	100(104)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부싸움 후에 주로 상의하는 대상은 <표 4-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국인 친구(31.5%), 친정 식구나 친척(18.1%), 시댁 식구나 친척(12.8%), 종교단체 성직자(9.4%),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4.0%), 제3국인 친구나 상담소 상담원(1.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부부싸움 후에 멀리 있는 친정 가족 대신 가까이 있는 본국인 친구에게 가장 상의를 많이 하고 제3국인 친구나 상담원에게 상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5> 부부싸움 후에 상의하는 대상

단위: %(명)	
구 분	빈 도
친정 식구나 친척	18.1(27)
시댁 식구나 친척	12.8(19)
본국인 친구	31.5(47)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	4.0(6)
제3국인 친구	1.3(2)
상담소 상담원	1.3(2)
종교단체 성직자	9.4(14)
기타	0.7(1)
도움받은 사람 없다	20.8(31)
계	100.0(149)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남편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표 4-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53명 가운데 언어적 학대가 28.1%(43명), 147명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9.5%(14명), 144명 가운데 성적 학대가 9%(13명)로 나타났다.

<표 4-46> 남편의 학대 경험

단위: %(명)						
구 분	없음	1-2번	3-4번	5-9번	10번 이상	계
언어적 폭력	71.9(110)	18.3(28)	4.6(7)	1.3(2)	3.9(6)	10(153)
신체적 폭력	90.5(133)	4.1(6)	3.4(5)	1.4(2)	0.7(1)	100(147)
성폭력	91.0(131)	4.9(7)	2.8(4)	0.7(1)	0.7(1)	100(144)

남편의 학대를 경험한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학대 종류를 조사한 결과 <표 4-4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35.7%(15명), 외출 금지가 24.4%(10명), 의처증이 22%(9명), 송금 금지가 26.8%(11명), 신분증을 빼앗는 행위가 22%(9명)였다. 즉, <표4-4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150 명 가운데 10%가 생활비 또는 용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6-7%의 여성이 외출금지, 의처증, 송금 금지, 신분증을 빼앗긴 경험이 있었다.

<표 4-47> 남편의 학대 행동종류

구 분	단위: %(명)			전체추정치*
	없다	있다	계	
생활비 또는 용돈을 주지 않았다	64.3(27)	35.7(15)	100(42)	10.0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75.6(31)	24.4(10)	100(41)	6.7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78.0(32)	22.0(9)	100(41)	6.0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73.2(30)	26.8(11)	100(41)	7.3
신분증을 빼앗았다	78.0(32)	22.0(9)	100(41)	6.0

* 전체 응답자 15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학대 종류별 퍼센트임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4-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 51명 가운데 전혀 모르는 경우가 52.9%로 절반 이상이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학대를 받아도 외부 도움을 얻을 방법조차 모르고 있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 상담소나 상담전화는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여성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체로 해결했어요. 상담전화도 119 이런 식으로 쉽게 기억나면 할 텐데... 책 찾 고 언제 그럴 새가 있어요... [중국인(조선족), 36세]”

<표 4-48> 가정폭력 경험 후 도움 받는 방법 인지 여부

구 분	단위: %(명)
	전 체
전혀 모른다	52.9(27)
상담 또는 신고 전화번호 안다	21.6(11)
도와줄 단체를 찾아가는 방법을 안다	25.5(13)
계	100(51)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사용한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표 4-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 34명 가운데 38.2%(13명)의 여성이 아무런 방법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35.3%(12명), 상담소 방문 상담이 14.7%(5명),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가 5.9%(2명)였다. 가정폭력을 당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여성이 10명 중 약 4명이 되는 것은 이들이 폭력에 지속

적으로 노출된 채 생활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9> 가정폭력 경험 후 사용한 해결방법

구 분		단위: %(명)
		빈 도
경찰에 신고		35.3(12)
상담소에 방문 상담		14.7(5)
상담전화 이용		5.9(2)
기타		5.9(2)
아무런 방법도 사용하지 못함		38.2(13)
계		100(34)

<표 4-50>을 보면, 응답자 30명 내지 36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8.9%(14명)이며, 상담소 방문은 30%(9명), 상담전화 이용은 36.7%(11명)이었고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한국에 와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해결방법을 모르는 상태이다. 또한 도움을 얻고자 다가간 경찰이나 상담소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으로 한국 여성들보다 더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학대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50> 해결방법의 유용성

구 분	단위: %(명)					
	전혀 되지 않음	도움 별로 되지 않음	보통	약간 도움이 됨	큰 도움이 됨	계
경찰에 신고	33.3(12)	5.6(2)	25.0(9)	22.2(8)	13.9(5)	100(36)
상담소 방문 상담	23.3(7)	6.7(2)	33.3(10)	23.3(7)	13.3(4)	100(30)
상담 전화 이용	26.7(8)	10.0(3)	30.0(9)	23.3(7)	10.0(3)	100(30)

8) 국제결혼 권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변인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권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표 4-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7%의 여성이 권장을 할 의향이

있으며, 19.4%는 말리지는 않고 내버려 둘 생각이라고 응답하였다.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면 반대하고자 하는 여성은 29.7%가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표 4-51> 국제결혼 권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 분	적극적 말림	약간 말림	내버려둠	약간 권장	적극 권장	계
빈 도	8.3(12)	21.5(31)	19.4(28)	19.4(28)	31.3(45)	100(144)

“난 내 생각에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와서 너가 고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 말라고도 하지도 않고. 친구가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겠는데, 고생하면 내 책임 아니라고 할꺼예요. 난 좋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필리핀, 42세]”

결혼 후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는 <표 4-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슷하거나 좋아진 경우가 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여 결혼생활에서 언어장벽,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52> 결혼 후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

						단위: %(명)
구 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비슷함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계
빈 도	0.0(0)	12.0(18)	25.3(38)	42.7(64)	20.0(30)	100(150)

3. 자녀양육과 부모자녀관계

1) 자녀의 구성

전체 응답 여성 166명 중 81명인 48.8%가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17.5%로 가

장 많고, 자녀가 두 명인 사람이 16.3%, 자녀가 세 명인 사람이 10.8%, 자녀가 네 명 이상인 사람이 4.2%였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81명 여성들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베트남 6명, 일본 33명, 중국 6명, 필리핀 36명으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대부분은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분포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표 4-54>와 같이 전체 응답자 81명 중 미취학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가 92.6%, 취학 자녀만 있는 경우는 7.4%에 불과했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 중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들이 상당 수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 보육과 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의 보육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4-53> 자녀 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자녀 없음(무응답, 현재임신 포함)	51.2(85)	91.3(63)	8.3(3)	60.0(9)	21.7(10)
1명	17.5(29)	7.2(5)	8.3(3)	20.0(3)	39.1(18)
2명	16.3(27)	1.4(1)	27.8(10)	20.0(3)	28.3(13)
3명	10.8(18)	0(0)	36.1(13)	0(0)	10.9(5)
4명 이상	4.2(7)	0(0)	19.4(7)	0(0)	0(0)
계	100(166)	100(69)	100(36)	100(15)	100(46)

<표 4-54> 미취학 자녀 여부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취학 자녀만 있는 경우	7.4(6)	16.7(1)	15.2(5)	0(0)	0(0)
미취학 자녀 있는 경우	92.6(75)	83.3(5)	4.8(28)	100(6)	100(36)
계	100(81)	100(6)	100(33)	100(6)	100(36)

2)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종류를 <표 4-55>에서 살펴보았다. 민간/사립 시설 비율이 40.5%로 가장 높고, 국공립 시설이 25.7%, 교회 등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9.5%, 미취학 자녀가 어떤 보육시설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이다.

<표 4-55>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구 분	%(명)
국공립시설	25.7(19)
민간/사립 시설	40.5(30)
교회 등 종교기관	9.5(7)
안다님(무응답 포함)	18.9(14)
기타	5.4(4)
계	100(74)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더니 <표 4-56>과 같이 18명이 응답하였다. 8명은 비용부담이 크다고 하였고, 보육시설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주변에 적절한 보육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가 적긴 하지만 이 중에서 비용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성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 시대 특히 농촌을 지킬 미래 세대가 없는 현재 농촌에 시집와서 농촌을 지키고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하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보육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표 4-56>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구 분	%(명)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필요한 조건/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다	11.1(2)
주변에 자녀에게 알맞은 기관이 없다.	5.6(1)
비용부담이 크다	44.4(8)
기타	38.9(7)
계	100(18)

자녀 보육 및 교육 시설 적응 수준을 보면 <표 4-57>와 같이 자녀가 시설에 매우 잘 적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81명 중 50.6%, 어느 정도 적응하는 비율이 39.5%로 대부분 자녀들이 보육 및 교육 시설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표 4-57> 자녀의 기관 적응

구 분	%(명)
전혀 적응을 못함	4.9(4)
별로 적응을 못함	4.9(4)
어느 정도 적응함	39.5(32)
매우 잘 적응 함	50.6(41)
계	100(81)

자녀가 보육 및 교육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표 4-58>와 같이 전체 응답자 81명 중 37.0%가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자녀의 적응력이 34.6%로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고,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이 13.6%, 부모의 노력이 7.4%의 비율을 차지했다. 교사의 배려와 관심,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등의 비율을 합하면 약 50.6%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가 보육 및 교육기관에 적응함에 있어 교사의 도움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육 및 교육시설의 교사들이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58> 자녀의 기관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

구 분	%(명)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37.0(30)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13.6(11)
교사가 학급에서 본국을 소개	2.5(2)
자녀의 적응력	34.6(28)
부모의 노력	7.4(6)
기타	4.9(4)
계	100(81)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해 여성들이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4-59>과 같이 70명이 응답을 했고 이들이 1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또래관계, 급간식, 교육방식, 의사소통 순서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선택한 항목의 빈도를 살펴보면 학업, 의사소통, 또래관계, 교육방식, 교사와의 관계, 잦은 부모참여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어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과 의사소통에 대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학업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표 4-59>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한 우려점

구 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급간식	10	0	1	11
낮잠	2	5	2	9
준비물	2	1	0	3
부모참여	5	5	5	15
규칙과 지시	3	2	0	5
교육방식	9	7	6	22
또래관계	15	4	4	23
교사	4	7	5	16
등하원	3	4	4	11
학업	6	16	10	32
의사소통	7	6	13	26
기타	5	0	0	6

3) 교사와의 관계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여성들에게 자녀의 교사와 의사소통 하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표 4-60>과 같이 79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51.9%, ‘별로 못한다’ 고 대답한 비율은 27.8%, ‘잘하는 편이다’ 는 15.2%, ‘매우 잘하는 편이다’ 와 ‘전혀 못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였다. 결과를 보면 잘하는 편 또는 매

우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9%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그다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0> 교사와의 의사소통 정도

구 분	%(명)
전혀 못한다	2.5(2)
별로 못한다	27.8(22)
보통이다	51.9(41)
잘하는 편이다	15.2(12)
매우 잘 한다	2.5(2)
계	100(79)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 <표 5-61>과 같이 72명이 응답하였고 그중 72.2%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대답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본인이 바빠서가 15.3%였고 소수 의견으로 교사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거나 교사가 나와의 대화를 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상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점이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곧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1> 교사와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구 분	%(명)
한국어를 잘 못함	72.2(52)
내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 없음	15.3(11)
교사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 없음	5.6(4)
교사가 나와의 대화를 피함	6.9(5)
계	100(72)

심층면접에서 여러 여성들은 교사와 의사소통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교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청하였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자녀교육 문제에서 가장 가깝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므로 결혼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애들 때문에 발음이 안 좋은거 고치고 싶고... 그런 거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좀 물어봤는데 시간이 바쁘신가 봐요. 나중에 애들 만나서 이야기해준다 하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그래요. 특수학급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국 애기엄마라면 몇 번 가서 상대방이 이야기 해 줄 수 있을 텐데 나는 외국인이라 그런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일본, 43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사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4-62>와 같이 79명이 응답하였는데 그중 교사가 전달하는 편지나 알림장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하원 시간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였다. 어머니가 교사에게 먼저 전화하는 비율이 16.9%, 교사가 가정으로 전화하는 비율이 15.6%로 32.5%로 전화를 이용해서 교사와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 또는 다른 가족이 교사와 의사소통한다는 비율도 10.4%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사와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2> 교사와의 의사소통 방식

구 분	%(명)
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15.6(12)
교사가 편지나 알림장으로 전달	22.1(17)
등하원 시간 이용	18.2(14)
교사와의 직접 만남 시도	7.8(6)
교사에게 전화	16.9(13)
학교행사에 참석	2.6(2)
남편 또는 다른 가족이 의사소통	10.4(8)
기타	6.5(5)
계	100(77)

4) 자녀의 한국어 능력 정도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4-63>과 같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 매우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5%, 별로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로 대부분 여성들은 자녀들의 한국

어 실력이 보통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들이 자녀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자녀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여성들이 평가한 것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교사가 결혼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일 것이다.

<표 4-63> 자녀의 한국어 능력 정도

구 분	%(명)
전혀 못한다	-
별로 못한다	8.9(7)
보통이다	39.2(31)
잘하는 편이다	35.4(28)
매우 잘 한다	16.5(13)
계	100(79)

5) 자녀의 친구관계

자녀는 주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질문한 결과 <표 4-64>와 같이 85명의 여성이 응답하였고 그중 자녀가 구분 없이 모두와 잘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인 부모 가정의 자녀와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9.4%,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와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7.1%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특수한 친구집단을 구성하여 어울리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 4-64> 자녀가 잘 어울리는 친구

구 분	%(명)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7.1(6)
한국인 부모 가정의 자녀	9.4(8)
구분 없이 모두와 잘 지냄	83.6(71)
계	100(85)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을 조사한 결과 <표 4-65>와 같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93.8%로 국제결혼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통 한국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경험을 조사한 결과보다 더 낮은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조사지역이 군단위 농촌지역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65>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

구 분	%(명)
있다	6.2(5)
없다	93.8(76)
계	100(81)

6) 자녀양육 가치관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라는 질문을 한 결과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고 여러 항목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93명 중 이 항목을 선택한 비율로 분석하였다. <표 4-66>과 같이 여성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78.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에서 자녀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부 잘하는 것이 45.2%,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23.7%,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19.4%였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가정이고 여성 또한 경제적 이유로 한국으로 결혼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과 건강 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선택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남편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127명이 응답하였고 그중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선택한 비율이 90.6%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45.7%로 응답 남성의 절반 정도가 이 항목을 선택하였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26.0%,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14.2%, 공부 잘 하는 것이 11.8%였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5.5%에 불과했다. 여성들과 비교해 보면 자녀인생에서 공부 잘 하는 것을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남성들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집단 속에서 어울려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표 4-66>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구 분	단위: %(명)	
	아내응답	남편응답
건강하게 자라는 것	78.5(73)	90.6(115)
공부 잘 하는 것	45.2(42)	11.8(15)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23.7(22)	26.0(33)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32.3(30)	45.7(58)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	19.4(18)	14.2(18)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2.2(2)	5.5(7)
기타	4.3(4)	1.6(2)
계	100(93)	100(127)

자녀교육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무엇인지 여성들에게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표 4-67>에 제시되어 있다. 총 85명이 응답하였고 이들이 1순위로 선택한 항목은 건강과 안전(42명), 주변사람들에 대한 예절(14명), 식습관(10명)이었다.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마찬가지로 건강과 안전(56명), 예절(50명), 친구관계(33명)로 1순위 선택 항목은 아니지만 자녀교육에서 우선으로 관심을 두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언어발달(26명), 훈육방법(24명), 학업성적(23명)을 선택했다.

남편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표 4-67.1>과 같이 105명이 응답을 하였다. 이들이 1순위로 선택한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과 안전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절(16명), 식습관(10명)을 선택하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건강과 안전(86명)이었고, 다음으로 예절(67명), 친구관계(43명), 언어(29명), 학업(24명), 식습관(22명)을 선택하여 여성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4-67> 부인이 응답한 자녀교육에서의 관심사

구 분	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식습관	10	2	3	15
배변훈련	4	0	0	4
건강과 안전	42	6	8	56
친구관계	5	18	10	33
예절	14	24	12	50
학업성적	2	9	12	23
언어발달	3	13	10	26
훈육방법	3	7	14	24
교육비	0	1	8	9
기타	1	0	1	2
계	84	80	78	242

단위: 명

<표 4-67.1> 남편이 응답한 자녀교육에서의 관심사

구 분	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식습관	16	3	3	22
배변훈련	1	1	1	3
건강과 안전	58	23	5	86
친구관계	6	24	13	43
예절	11	22	34	67
학업성적	1	9	14	24
언어발달	5	10	14	29
훈육방법	1	3	3	7
교육비	2	4	12	18
기타	1	1	1	3
계	102	100	100	302

단위: 명

7)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 및 정보의 출처

자녀양육과 교육 시 어려운 점으로 3가지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결과 <표 4-68>과 같이 78명의 여성들이 응답하였다. 1순위로 꼽은 항목은 사교육 또

는 양육비용(36명), 돌볼 사람이 없는 점(18명), 건강관리(7명), 성적과 학습(7명)순이었다.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마찬가지로 사교육 또는 양육비용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적과 학습(29명), 돌볼 사람이 없는 것(28명), 건강관리(22명)이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서 정체성 혼란(16명)의 경우 1순위로는 1명만이 선택했지만 3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양육비용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혼혈아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하는 경우도 응답자 중 16명이 선택한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8> 자녀양육 및 교육 시 어려운 점

구 분	단위: 명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돌볼사람 없음	18	5	5	28
보육시설 부족	1	4	2	7
사교육비/양육비용	36	14	2	52
건강관리	7	8	7	22
성적과 학습	7	13	9	29
학교생활 부적응	1	5	3	9
정서와 행동문제	4	2	7	13
정체성혼란	1	4	11	16
기타	2	3	5	10
계	77	58	51	186

아래의 내용은 교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이다.

“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돈 조금 있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어떡해요. 애기 하나만 있어도 돈 많이 들어요. 너무..... [필리핀, 37세]”

“경제적인 것이 어려웠어요. 어린이집 같은 거 못 보내서요. 그런 거도 있고, 돈 있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죠. 책도 사서 읽어 주고, 테이프도 사서 틀어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계시니까 옛날식으로 생각

하셔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책은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고 그러세요. 애들 감기 걸려도 병원 데리고 가지 말고 침 있잖아요, 침 맞히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폐렴 까지 걸려서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입원비가 30만원 들었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일본, 43세]”

“거의 아이들 집에 있으면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를 들고 쫓아 다녀요. 하루도 제가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집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요. 제가 하루 종일 논과 밭에 데리고 다녀요. 옷을 항상 가방에 챙겨서 다녀요. 아이들이 노느라고. 어머니도 관절이 안좋으셔서 예전에는 애 들고 봐주고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 봐주세요. 또 집이 큰 길 옆이어서 애를 두고 다니기가 불안해서 저도 일 제대로 못해요. 제가 일할 때 같이 데리고 다녀요. 지금은 또 방학이어서 매일 데리고 다녀요. [중국, 31세)]”

“학원이 없어지면 다 같이 안다니고 학교에서 배우고 끝나고 그러면 되는데 학원 안 다니고 그 수준에서 똑같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보내요. 지금 초중고 학비 안 받지만 안 받으면 뭐해요.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는데... [중국(조선족), 36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순위별로 3가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표 4-69>과 같이 여성 68명이 응답하였다. 1순위로 남편을 선택한 사람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의 본국 친구(18명), 시부모와 친척이(7명), 자녀의 교사(5명), TV 및 라디오(5명), 인터넷(4명)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응답자(29명)가 남편을 선택하였고, TV 및 라디오(28명), 한국의 본국친구(25명), 자녀의 교사(19명), 육아서적과 잡지(18명), 인터넷(15명)의 순서로 응답하여 비록 1순위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남편이나 한국의 본국 친구들 외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TV 및 라디오, 인터넷, 육아잡지 등에서 2, 3순위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알림장, 주변의 한국 친구, 학교, 교육기관, 또래 어머니들, 복지관 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매체 형식을 통해 제작하여 무료로 여성들에게 배포한다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9>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곳

단위: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남편	23	4	2	29
시부모/친척	7	4	2	13
한국의 본국친구	18	5	2	25
친정어머니	3	3	2	8
보건소직원/의사	0	3	1	4
자녀의 교사	5	8	6	19
상담기관/상담전화	1	0	1	2
TV/라디오	5	14	9	28
육아서적/잡지	0	8	10	18
인터넷	4	3	8	15
계	66	52	43	161

8) 자녀양육 갈등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여성들이 응답한 남편 및 시댁식구와의 갈등정도와 남편들이 응답한 부인과의 갈등정도를 살펴보면 <표 4-70>과 같다. 여성들의 경우 90명이 이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많았고 가끔 있다가 33.3%, 종종 있다는 18.9%, 매우 자주 있다는 3.3%로 그래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다

남성들의 경우 107명이 이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전혀 없다가 50.5%, 가끔 있다가 43.0%, 종종 있다 5.6%, 매우 자주 있다가 0.9%로 여성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해 갈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의견이 중요시 되는 부부관계의 불평등성 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70> 가족과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갈등

단위: %(명)

구 분	부인응답	남편응답
전혀 없다	44.4(40)	50.5(54)
가끔 있다	33.3(30)	43.0(46)
종종 있다	18.9(17)	5.6(6)
매우 자주 있다	3.3(3)	0.9(1)
계	100(90)	100(107)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4-71>과 같다. 여성 56명과 남성 68명이 응답하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교육에서 자신과 남편과의 가치관과 방식의 차이가 42.9%, 자녀의 영양과 건강문제가 26.8%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치관과 방식의 차이가 38.2%, 자녀의 영양과 건강문제가 20.6%로 나타났다. 두 가지 항목의 순위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높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비해 사교육비 문제의 경우에는 여성의 8.9%가 선택한 것에 비해 남성은 14.7%를 선택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책임과 부양 의무를 느끼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 비용 문제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남편들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은 부인이 자녀양육보다 직장을 더 중시하는 것,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해당 안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4-71>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갈등 이유

단위: %(명)

구 분	부인응답	남편응답
가치관과 방식의 차이	42.9(24)	38.2(26)
사교육비 문제	8.9(5)	14.7(10)
학업과 성적	7.1(4)	7.4(5)
자녀의 친구관계	-	2.9(2)
자녀와 교사의 관계	3.6(2)	-
영양과 건강 문제	26.8(15)	20.6(14)
기타	10.7(6)	16.2(11)
계	100(56)	100(68)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아내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역할과 남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의견을 직접 쓰도록 한 결과가 <표 4-72>과 <표 4-73>에 제시되어있다. 여성은 60명, 남성은 51명이 응답하였다.

<표 4-72>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남편의 역할(아내, N=60)

범 주	응 답 내 용
말하기	나를 믿고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양육 돕기	나를 도와주는 것, 나를 돕고 지지해 주는 것, 내가 없을 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것, 자녀 돌보는 것을 도와주기.
자녀와 친밀한 관계	남편이 아이와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 좋겠다. 놀아주고 같이 식사하고 목욕하기, 쉬는 날 야회학습 다녔으면 한다, 시간을 내어 돌봐주는 것, 아이들과 대화, 아이를 돌봐주고 질 높은 시간을 갖는 것, 아이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부자관계에 있어서 더욱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으면, 아이와 함께 잘 놀아주면 한다, 자녀에게 관심 갖기, 자녀에게 관심 갖기 시간나면 자녀와 놀아주기, 정서적인 도움, 좀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함께 놀아주고 사랑해 준다, 항상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협조와 이해.
경제적 책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것. 경제적 도움, 재정문제, 가정경제, 직업을 가지는 것, 확실한 경제활동으로 돈을 제대로 벌길 바란다.
한글과 교육	나의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주길 원한다,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책을 많이 읽어 줬으면, 내가 한국의 교육을 모르기에 아이들 교육 지원에 힘쏟아 주세요, 학교 숙제를 도와준다, 내가 모르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한국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가정의 좋은 전통을 잘 가르쳐 주었으면, 한국문화와 습관과 한국어를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 교육, 한국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길 바란다. 한국어 말하기, 어른공경, 한글 읽기 할 수 있게 돕기, 한글을 가르치길 원한다. 책 읽어주기, 교육에 관심 갖기, 남편도 자녀를 교육해 주고 관심 갖기 영어공부, 자녀교육, 자녀교육하기 학교 데려다 주기, 함께 자녀의 공부를 봐주고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바란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대신 해주면(책 읽어 주기)
중요한 역할	훈육, 정신적 기동, 중요한 역할, 양육에 있어서 보조적인 입장이라도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길,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남편이 교육시켰으면, 자녀교육에 책임 갖고 같이 양육했으면, 자녀교육에 책임 갖기, 같이 가르치길 원한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기타	돈벌러 나가게 허락해 줬으면, 지금은 남편의 역할에 특별히 불만이 없음

<표 4-73>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남편자신의 역할(남편, N=51)

범 주	응 답 내 용
말기기	거의 없다, 모든 것을 부인에게 맡긴다, 아니요, 없다, 처에게 전체를 맡긴다, 부인에게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강요만 한다, 부인에게 맡기는 것이 도와주는 것, 장에 일찍 나갔다가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 보다 우선 아이들을 위해 신경 좀 써 달라고 합니다.
양육 돕기	자녀와 대화를 자주하고 부인이 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주 자녀를 돌봐줌. 필요한 것 사오기.
자녀와 친밀한 관계	아이들과 놀아준다.
경제적 책임	경제, 경제적 도움, 경제적인 도움. 교육비, 금전, 정신적 지원. 절약, 일만 하는 편. 정신적 경제적으로
한글과 교육	시간이 많아서 내 자신이 가르칠 것 같습니다, 아이와 놀아주거나 말을 가르친다. 언어의 도움, 한국어 교육, 한국의 전통문화 교육, 한글 숫자 등을 매일 가르친다, 예절교육, 건강을 위해 편식 시키지 않기, 자녀에게 일상생활 교육, 예절, 부인에게는 공부, 예절을 도움, 책을 읽어 주고 조금은 부인이 공부를 하게 유도한다, 가끔 숙제를 도와준다, 한국문화, 예절, 훈육, 말을 잘 가르치고 건강하게 키울 것, 사람이 하면 안되는 것 교육, 인성교육.
정서적 지지와 조언	사랑, 부드러운 언어표현 성실히 조언, 모르는 것에 대한 설명과 충고. 가정의 기둥이 되어 갈등 없이 지내게 한다. 가족에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자녀 없음, 낳아서 길러봐야 알 수 있다, 글을 잘 몰라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서로 잘 봐주고 있다.

농촌 여성들의 경우 농사일과 가사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양육에서 남편들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좀 도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때는 똑같이 나눠서 일하고, 저는 집에 오면 또 가사일을 해야 하니까, 저녁이 되면 정말 녹초예요. 밖에 나가서 같이 밭일을 하고, 집에오면 밥하고 애들 씻기고 공부시키는데, 남편은 밥먹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자면 끝인데, 저는 일과가 계속 되니까 거의 늦게는 12시 넘어서까지 있어요. 좀 빠르다 싶으면 10시까지 항상 잠을 못자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자야 되니까요. 그래서 피곤하기는 제가 더 그렇죠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조선족), 31세]”

“남편은 집안일 전혀 안 도와줍니다. 혼자 다 해요. 너무 힘들어. 진짜 비닐하우스에서 나 혼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요. [필리핀, 39세]”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근데 이제는 잘 안하죠. 애기 낳고도 첫애는 잘 안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도 안가도 그럴 때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기 잘 안봐줘요. 어떤 때는 집에 있는데 애가 들인데 하나가 아프면 아빠가 하나 봐주면 제가 금방 갔다 오잖아요. 근데 잘 안봐줘요. 비도 오고 그래도 애 들 데리고 제가 다 병원 가야해요. 은비 아프면 ‘은비만 데리고 빨리 갔다 올게’ 그러면 ‘둘 다 데리고 가 시끄러워서 잠 못자’ 그렇게 이야기 해요. 저도 일하느라 힘든 거는 아는데 잠깐 한 두 시간은 괜찮잖아요. 근데도 잘 안봐줘요. 그런데 힘들게 들 데리고 갔다 와 보면 잠도 안자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베트남, 32세]”

9)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공동 활동

평소에 자녀와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질문한 결과 여성들은 93명이 응답하였고 남성들은 100명이 응답하였다. <표 4-74>와 같이 여성들의 경우 충분히 많이 한다가 29%, 매일 조금씩 한다가 28%, 너무 어려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없다가 24.7%, 필요한 경우만 한다가 16.1%, 거의 하지 않는다가 2.2%였다. 남성들의 경우 매일 조금씩 한다가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가 27%, 너무 어려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없다가 24%, 충분히 많이 한다가 13%였고,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7%의 응답자가 해당되었다. 전반적으로 남편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아내에 비해 자녀들과의 대화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어 능력과 자녀와의 대화정도와는 상관이 없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자녀양육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74> 자녀와의 대화 정도

구 분	단위: %(명)	
	부인응답	남편응답
거의 하지 않는다	2.2(2)	7.0(7)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16.1(15)	27.0(27)
매일 조금씩 한다	28.0(26)	29.0(29)
충분히 많이 한다	29.0(27)	13.0(13)
너무 어려서 이야기 못함	24.7(23)	24.0(24)
계	100(93)	100(100)

자녀와의 대화를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여성들에게만 질문한 결과는 <표 4-75>와 같다. 응답자 59명 중 과반 수 이상인 54.2%가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시간이 없어서가 13.6%, 자녀가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6.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들 중 자녀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실력이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점은 자녀 교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여성들의 자녀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4-75>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

구 분	% (명)
자녀보다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54.2(32)
시간이 없어서	13.6(8)
자녀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6.8(4)
기타	25.4(15)
계	100(59)

가정에서 자녀와 주로 함께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는 <표 4-76>과 같다. 여성 106명과 남성 93명이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책 읽어 주기가 32.1%, 숙제와 공부 돕기가 22.6%, 놀이·게임·운동하기가 12.3%, 대화하기가 10.4%, TV보기와 가사일이 각각 4.7% 정도이고 기타가 3.8%였다. 남성의 경우 놀이·게임·운동하기가 21.5%, TV보기가 20.4%, 대화하기가 16.1%, 숙제와 공부 돕기가 15.1%, 책 읽어 주기가 12.9%, 가사일과 기타가 각각 6.5%, 7.5%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의 경우 책 읽어 주기와 공부 돕기의 비율을 합하면 50% 이상으로 주로 자녀들과 학업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남편들의 경우 놀이와 TV보기의 비율을 합하면 41.9% 정도로 주로 아이들의 학업보다는 놀이와 휴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들의 경우 공부와 책 읽어 주기 같은 활동도 10%이상의 비율로 조사되어 자녀의 학업 부분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기타의견으로 ‘너무 어려서 함께 할 활동이 없다’라는 의견과 ‘전혀 함께하는 활동이 없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4-76>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일

구 분	단위: %(명)	
	부인응답	남편응답
책 읽어 주기	32.1(34)	12.9(12)
대화하기	10.4(11)	16.1(15)
놀이, 게임, 운동하기	12.3(13)	21.5(20)
숙제와 공부 돕기	22.6(24)	15.1(14)
TV보기	4.7(5)	20.4(19)
가사일	4.7(5)	6.5(6)
기타	3.8(4)	7.5(7)
계	100(106)	100(93)

여성들이 자녀 숙제를 도와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한 결과 <표 4-77>과 같이 75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85.3% 여성이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표 4-78>과 같이 응답자의 66.2%가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역시 한국어 능력의 문제가 자녀들의 숙제를 돕는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7> 자녀의 숙제 도와주는 유무

구 분	%(명)
도와준다	85.3(64)
도와주지 않는다	14.7(11)
계	100(75)

<표 4-78> 자녀의 숙제 도와줄 때 어려운 점

구 분	%(명)
한국어 능력의 부족	66.2(45)
교과내용이 익숙하지 않음	27.9(19)
기타	5.9(4)
계	100(68)

자녀관계 만족도는 <표 4-79>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들의 경우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자녀의 생활태도와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 등에 대한 항목은 그저 그

렇다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5점 척도로 만족도 점수를 부여한 경우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 관계가 4.04점,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가 3.93점,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이 3.78점,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3.76점, 자녀의 생활태도가 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여성 보다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만족도 평균점수로 볼 때는 매우 불만이나 대체로 불만의 비율이 낮아서 여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79>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전반적 관계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	대화를 나누는 정도	자녀의 생활태도	유치원/어린이집 학교생활	
부 인 이 담	매우 불만	2.0	5.2	4.2	5.2	1.2
	대체로 불만	4.1	8.2	10.5	10.3	8.2
	그저 그렇다	25.5	17.5	22.1	33.0	30.6
	대체로 만족	24.5	26.8	31.6	35.1	31.8
	매우 만족	43.9	42.3	31.6	16.5	28.2
	계	100(98)	100(97)	100(95)	100(97)	100(85)
	평균점수	4.04	3.93	3.76	3.47	3.78
남 편 이 담	매우 불만	1.0	1.1	0	0	1.2
	대체로 불만	3.1	10.5	6.4	10.6	4.7
	그저 그렇다	28.9	27.4	33.0	37.2	25.6
	대체로 만족	34.0	41.1	42.6	37.2	43.0
	매우 만족	33.0	20.0	18.1	14.9	25.6
	계	100(97)	100(95)	100(94)	100(94)	100(86)
	평균점수	3.95	3.68	3.72	3.56	3.87

주: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10) 자녀의 영농업 종사에 대한 입장

자녀의 영농업 종사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표 4-80>와 같이 여성은 99명이 응답하였고 남성은 118명이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45.5%가 자녀가 영농업을 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별로 원하지 않는다가 23.2%, 보통이다가 23.2%, 조금 원한다와 매우 원한다가 각각 6.1%, 2.0%로 조사되었다. 남편들의 경우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가 34.7%, 별로 원하지 않는다가 34.7%, 보통이다가 23.7%,

조금 원한다와 매우 원한다가 각각 5.1%, 1.7%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이 자녀가 영농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절대 원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많이 보였고 남편들의 경우도 별로 원하지 않는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아이가 대학교 끝나고 회사 일했으면 좋겠어요. 농사 안돼요 너무 힘들어요...
[필리핀 , 37세]”

<표 4-80> 자녀의 영농일 종사에 대한 입장

구 분	단위: %(명)	
	부인응답	남편응답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45.5(45)	34.7(41)
별로 원하지 않는다	23.2(23)	34.7(41)
보통이다	23.2(23)	23.7(28)
조금 원한다	6.1(6)	5.1(6)
매우 원한다	2.0(2)	1.7(2)
계	100(99)	100(118)

4. 가족과의 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의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은 <표 4-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딸이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할까 걱정하는 경우(54.4%)가 많았다. 이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52%), 중국(64%), 필리핀(66%) 여성의 부모는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일본 여성의 부모의 경우 57%가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현재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종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한국의 경제수준이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81> 본국 부모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딸이 고생을 덜 하게 되었다고 기뻐함	7.0(11)	1.0(6)	3.0(1)	14.0(2)	6.0(2)
딸이 잘 살아서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기뻐함	9.5(15)	16.0(11)	0.0(0)	0.0(0)	12.0(4)
딸이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할까 걱정	54.4(86)	52.0(34)	40.0(14)	64.0(9)	66.0(29)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현재는 받아들임	29.1(46)	31.0(14)	57.0(20)	22.0(3)	16.0(9)
계	100(158)	100(65)	100(35)	100(14)	100(44)

결혼 후 여성들이 본국에 다녀온 경험은 <표 4-82>에 제시된 바와 같이 59.9%가 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었다. 본국에 다녀온 여성들은 40.1%였는데 이 중 92명이 경험 횟수를 응답하였다. 출신국별로 본국에 다녀온 횟수를 F검증 및 사후 검증 결과, 일본 여성이 4.61회로 베트남(1.92회), 중국(1.75회), 필리핀(1.66회)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본 여성들이 다른 출신국 여성에 비해 결혼기간이 길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남편과 약속하여 지켜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4-82> 결혼 후 본국에 다녀온 경험 및 평균 횟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F값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있다	59.9(97)	1.92(24)	4.61(31)	1.75(8)	1.66(29)	15.24 ***
없다	40.1(65)					
계	100(162)	평균횟수=2.73(92)				

*** p<.001

“남편이 처음에 왔을 때 그랬어요. 많이는 못 보내줘도, 해마다는 못 보내줘도 한 3년 정도에는 한 번씩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막상 처음에는 3년 있다가 친정에 한 번 가고, 또 3년 있다가 한 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두 번 다녀왔어요. [중국,

31세]”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간 경험은 <표 4-8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5.8%가 있었으며 시댁 가족들이 본국에 다녀온 경험도 <표 4-8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1.7%였다. 출신국별 평균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다른 출신국 여성들의 가족에 비해 일본 여성의 가족왕래가 더 많았다.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딸이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안심하며 돌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사는 것을 보신 후 친정 가족의 반응)

“예.. 너무.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너무 좋아하셨대요. [일본, 40세]”

<표 4-83>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간 경험 및 평균횟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있다	25.8(42)	1.25(4)	2.09(23)	1.43(7)	1.29(7)
없다	74.2(121)				
계	100(163)	평균횟수=1.76(41)			

<표 4-84> 시댁 가족들이 본국에 다녀온 경험 및 평균횟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있다	21.7(35)	1.08(13)	1.44(9)	1.25(4)	1.25(8)
없다	78.3(126)				
계	100(161)	평균횟수=1.24(34)			

친정 가족을 만난 후 시댁 가족들의 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85>와 같이 좋아진 경우가 41.7%였으며 변화가 없는 경우가 56%였고, 더 나빠진 경우는 2.4%였다. 이는 출신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볼 때 양가 가족간의 만남이 시댁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이를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85> 친정 가족을 만난 후 시댁 가족들의 본인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좋아졌다	41.7(35)	50.0(21)	31.0(5)	44.4(4)	29.4(5)
변화 없다	56.0(47)	48.0(20)	69.0(11)	65.6(5)	64.7(11)
더 나빠졌다	2.4(2)	2.0(1)	0(0)	0(0)	5.9(1)
계	100(84)	100(42)	100(16)	100(9)	100(17)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는 <표 4-86>과 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7%,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5.3%로 유사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67.7%)과 필리핀(85.4)은 도와준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9.4%)과 중국(20%) 여성은 도와준 경우가 적었다. 중국 여성의 남편의 경우 처가에 경제적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부인의 응답 결과와 매우 다르다.

<표 4-86> 본국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경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부인 응답	있다	54.7(81)	67.7(40)	9.4(3)	20.0(3)	85.4(35)
	없다	45.3(67)	33.3(20)	90.6(29)	80.0(12)	14.6(6)
	계	100(148)	100(60)	100(32)	100(15)	100(41)
남편 응답	있다	60.3(79)	78.9(41)	12.5(4)	61.5(8)	76.4(26)
	없다	39.7(52)	21.1(11)	87.5(28)	38.5(5)	23.6(8)
	계	100(131)	100(52)	100(32)	100(13)	100(34)

본국 가족과 지난 1년간 통화한 횟수는 <표 4-87>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가 50.9%로 가장 많았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1-2회(46%)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일본(69%), 중국(44%), 필리핀(46%) 여성은 한달에 1-2회가 많았다.

<표 4-87> 본국 가족과 지난 1년간 통화한 횟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거의 매일	4.9(8)	4.0(3)	3.0(1)	14.0(2)	4.0(2)
일주일에 1-2회	26.4(43)	46.0(31)	3.0(1)	21.0(3)	18.0(8)
한 달에 1-2회	50.9(83)	44.0(30)	69.0(25)	44.0(6)	46.0(22)
2-3달에 1-2회	11.0(18)	6.0(4)	14.0(5)	7.0(1)	18.0(8)
6개월에 1-2회	3.7(6)	0.0(0)	5.0(2)	7.0(1)	10.0(3)
1년에 1-2회	2.5(4)	0(0)	3.0(1)	7.0(1)	4.0(2)
전혀 하지 못했다	0.6(1)	0(0)	3.0(1)	0(0)	0(0)
계	100(163)	100(68)	100(36)	100(14)	100(45)

국제결혼에 대한 남편과 시댁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4-88>과 같이 남편과 시댁은 동일하게 3.68점으로 결혼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점수로는 중국 여성의 남편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본 여성의 시댁 가족이 만족도가 높았다. 중국 여성의 경제적 활동력과 일본 여성의 가부장적 의식이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만족을 주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88> 부인의 출신국별 남편과 시댁 가족의 부인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남편의 만족도	3.68(82)	3.57(26)	3.96(23)	4.04(5)	3.50(28)
시댁가족의 만족도	3.68(83)	3.66(22)	3.86(23)	3.75(9)	3.52(29)

5. 이웃 · 지역사회와의 관계

1) 여성들의 이웃과의 관계

한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웃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표 4-89>와 같이 전혀 없다가 35.8%, 1~3명이 35.8%, 4~6명이 10.8%, 10명 이상이 13.5%로 나타났다.

“2층 아주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마트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몇 시에 버스가 오는 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주머니랑 같이 가고 했는데 지금은 혼자 가요. 또 애기 아프고 그러면 병원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런 것도 2층 아주머니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데 애들 때문에 못 나가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회사 갔다 올 때 사다줘요.[충남, 베트남]”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낯선 곳에 오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안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야 하므로 도움을 주는 이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일상정보는 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표 4-89> 한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웃

구 분	%(명)
전혀 없다	35.8(53)
1~3명	35.8(53)
4~6명	10.8(16)
7~9명	4.1(6)
10명 이상	13.5(20)
계	100(148)

여성들이 한국인 이웃들과 주로 함께 하는 일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가 <표 4-90>에 제시되어 있다. 일상적 대화가 2.62점, 경조사 돕기가 2.19점, 농사일 돕기가 2.11점, 어려운 일 의논이 2.02점, 생활용품 빌리기가 1.89점, 돈거래가 1.78점, 아기 맡기기와 집보기가 1.57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4-90> 한국인 이웃과 함께 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아기보기 집보기	경조사 참석	생활용품 빌리기	돈거래	어려운 일 의논	일상적 대화	농사일 돕기
거의 안 함	67.9	41.7	54.7	72	45.7	27.3	44.6
별로 안 함	9.7	13.7	10.1	31	18.8	16.1	16.5
가끔 함	20.1	32.4	28.8	30	25.4	34.3	26.6
자주 함	1.5	7.9	4.3	3	8.0	12.6	7.9
매우 자주	0.7	4.3	2.2	2	2.2	9.8	4.3
계	100 (134)	100(139)	100 (139)	100 (138)	100 (138)	100 (143)	100 (139)
* 평균	1.57	2.19	1.89	1.78	2.02	2.62	2.11

* 평균은 5점 척도의 “거의 안함”에 1점, “매우 자주”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이웃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4-9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들과 교류가 없는 경우가 적게 나타났다. 소외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전혀 없다 52.7%, 보통이다 20.3%, 별로 그렇지 않다가 17.6%였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성들이 이웃을 만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는 항목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 52.9%, 별로 그렇지 않다 19.1%, 보통이다 19.1%로 응답했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이웃과 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본국 문화에 대한 이웃들의 이해 정도는 보통이다가 41.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91> 이웃에 대한 생각과 태도

단위: %

구 분	거의 왕래 없음	소외와 무시당한다고 생각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참여	나의 문화에 대한 이웃의 이해	남편, 시어머니가 이웃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25.0	52.7	25.5	15.6	52.9
별로	22.3	17.6	22.8	18.4	19.1
보통	37.2	20.3	29.0	41.5	19.1
그런편	9.5	7.4	11.7	12.9	1.5
매우그런편	6.1	2.0	11.0	11.6	7.4
계	100(148)	100(148)	100(145)	100(147)	100(136)
*평균	2.49	1.89	2.60	2.86	1.91

* 평균은 5점 척도의 “전혀 없음”에 1점, “매우 많음”에 5점을 주어 계산하였음.

2) 지역사회 참여

여성들에게 지역사회 행사 참여 경험 정도를 질문한 결과 <표 4-92>와 같이 138명이 응답하였다. 48.5%는 전혀 없다, 34.1%는 몇 번 있다, 17.4%는 많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 수 이상의 여성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한국어 교실에 출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임을 감안한다면 평균적인 여성결혼이민자 보다는 참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92> 지역사회 행사 참여 경험

구 분	전혀 없다	몇 번 있다	많이 있다	계
%(명)	48.5(67)	34.1(47)	17.4(24)	100(138)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21명이 응답하였다. 아기가 어려서, 농촌에 안 살아서, 몰라서(3명),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 못해서(4명),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2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3) 한국에 있는 본국 여성과의 관계

한국에 있는 본국 여성과의 만남 정도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4-93>과 같이 145명이 응답하였다. 1주일에 1번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고, 1달에 1번 정도가 25.5%,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만 한다가 22.1%,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가 4.8%였다.

<표 4-93> 한국에 있는 본국여성과의 만남 정도

구 분	%(명)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	4.8(7)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만	22.1(32)
6개월에 1번 정도	4.1(6)
1달에 1번 정도	25.5(37)
1주일에 1번 이상	43.4(63)
계	100(145)

만나는 장소와 방법을 묻는 질문에 95명이 <표 4-94>와 같이 응답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글교실로 51.6%였으며, 다음으로 친구집 또는 자기집이 34.7%, 교회가 33.7%, 집근처 공원이나 시장 등이 15.8%,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5.3%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화로만, 직장, 문화센터 또는 문화원, 노래방, 식당, 여행, 외국인센터, 여러 가지 장소 등이 있었다. 즉 한글교실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학습의 장일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4> 만나는 장소와 방법

구 분	%(명)
한글교실	51.6(49)
집	34.7(33)
교회	33.7(32)
집근처(공원, 시장, 슈퍼 등)	15.8(15)
각종 모임	5.3(5)
기타	10.5(10)
계	100(95)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본국 여성들과 만나서 주로 하는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표 4-95>와 같이 148명이 응답하였다. 한국생활의 적응문제가 62.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신의 부부관계가 33.8%, 임신/출산/양육 문제가 32.4%, 취업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10.1%, 친정에 대한 이야기가 8.8%였으며, 기타의견이 8.1%로 나타났다. 본국 친구들이 적응문제를 의논하고 서로 돕는 상대가 되고 있으며, 정보를 얻는 통로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5> 본국여성들과 하는 대화 내용

구 분	%(명)
자신의 부부관계	33.8(50)
임신, 출산, 자녀양육	32.4(48)
한국생활의 적응문제	62.2(92)
취업정보	10.1(15)
본국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8.8(13)
기타	8.1(12)
계	100(148)

본국 친구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야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본국 친구 중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좋은 친구 많으면 좋아요. 때때로 나쁜 친구 만나면 안 좋아요. 친구가 때때로 생각이 틀려요. 그 사람이 내 생각이랑 달라요. 나는 한국 좋아요. 다른 친구가 한국 싫다. 뭐뭐뭐가 싫다 이런 사람 나하고 생각 틀려요. 안 맞아요. 이런 친구 만나면 안 좋아요. 좋은 친구 만나면 좋아요. 정보를 주세요. 제가 한국 왔을 때 한국요리 몰라요. 한 친구가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김치 만들어요? 어떻게 김치찌개 요리해요? 그 친구는 시어머니 같이 살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그 친구는 알아요. 저는 친구 집에 방문했어요. 친구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친구 있으면 많이 많이 배워요... [베트남, 39세]”

대체로 여성결혼이민자들 간의 만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그러함 만남이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조사해 보았다. <표 4-96> 과 같이 151명의 여성들 중 갈등이 없었다가 66.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약간 있었다가 21.9%, 종종 있다가 9.9%, 자주 있다가 1.3%로 나타나 갈등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40%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 간의 만남이 남편과의 갈등을 가져온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일방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해감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적응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120명의 남편이 응답하였다. 아내가 본국 여성들과 만남으로 인해 갈등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약간 있었다가 32.5%, 종종 있었다가 9.2%, 자주 있었다가 2.5%로 여성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4-96> 본국 여성들과의 만남으로 인한 부부 갈등

구 분	단위: %(명)	
	부인응답	남편응답
없었다	66.9(101)	55.8(67)
약간 있었다	21.9(33)	32.5(39)
종종 있었다	9.9(15)	9.2(11)
자주 있었다	1.3(2)	2.5(3)
계	100(151)	100(120)

본국 여성들과의 만남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질문한 결과 <표 4-97>과 같이 여성은 153명, 남성은 123명이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31.4%, 그저 그렇다가 30.7%,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28.1%, 별 도움이 안된다가 7.8%,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2.0%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37.4%, 매우 도움이 된다가 22.8%, 그저 그렇다가 22.8%, 별 도움이 안된다가 9.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7.3%로 나타났다.

<표 4-97> 본국 여성과의 만남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 분	단위: %(명)	
	부인응답	남편응답
전혀 도움이 안된다	2.0(3)	7.3(9)
별 도움이 안된다	7.8(12)	9.8(12)
그저 그렇다	30.7(47)	22.8(28)
도움이 되는 편이다	28.1(43)	37.4(46)
매우 도움이 된다	31.4(48)	22.8(28)
계	100(153)	100(123)

4) 양모(자매)결연

지역사회 여성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 여성간의 양모결

연 및 자매결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4-98>과 같이 150명의 응답자 중 경험이 있는 경우가 39.3%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모(자매)결연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표 4-99>와 같이 73명이 응답하였는데, 그저 그렇다가 37%, 매우 도움이 된다가 23.3%, 조금 도움이 된다가 17.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2.3%,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9.6%로 나타났다. 양모(자매결연)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 응답한 사람과 ‘매우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험자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는 의견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 의견을 밝힌 사람들도 12.3%로 적지 않아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양모(자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98> 한국여성들과의 양모(자매)결연 경험 유무

구 분	있다	없다	계
%(명)	39.3(59)	60.7(91)	100(150)

<표 4-99> 한국여성과의 양모(자매)결연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정도

구 분	%(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2.3(9)
별 도움이 안 된다	9.6(7)
그저 그렇다	37.0(27)
조금 도움이 된다	17.8(13)
매우 도움이 된다	23.3(17)
계	100(73)

다음 여성의 경우 양모결연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를 부담스러워했다.

“행사 때, 그때 만나서 끝났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나니까 신경 쓰여서 가볍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랑 비슷한 세대면 좋겠어요. 저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일부러 나가서 이야기 하는 편은 아니니까 기회는 있으

면 좋겠어요. [일본, 43세]"

6.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부적응

1) 전화상담의 개요

(1) 상담현황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두리안은 설립 이래로 국제결혼 사후관리를 위해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해왔으며, 전화상담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아내)와 한국 남성(남편)이다. 부부를 상담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부모, 자녀 등 가족들도 상담해 왔다.

(2) 상담자정보

베트남 여성들의 상담은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5년 전에 베트남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들로 언어와 생활적응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며, 베트남어로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상담은 회사 내부의 인력, 즉 사장, 지사장, 실장 등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3) 상담방식 및 상담과정

초기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 현지에서 결혼 후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5회 이상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한다.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결을 돕는다.

3개월 후 적응이 순탄한 경우에 회사측에서 먼저 전화하지는 않고 상담을 종료하나 적응에 문제가 있어 갈등이 이어지는 가정에 대해서는 1주일에 1회 이상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베트남 여성이나 한국 남성이 통역을 필요로 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무실의 상담전용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전화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 상담자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갈등을 가진 부부를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여 상담하기도 한다.

2) 주요 상담내용

전화상담의 기본은 통역에 있다. 부부 간에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인한 의사소통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통역으로 서로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해주고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문제로 자주 상담이 이루어지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주제이다. 구체적으로 부부갈등은 부부의 성격차이, 문화차이로 인한 오해, 남편의 과도한 음주, 남편의 폭력 사용문제 등이 주된 갈등의 요인이다.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들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국제결혼을 하여 상당기간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먼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2) 시부모 및 시댁가족와의 갈등

부부갈등은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더 심화되기도 한다. 시부모 및 시댁식구와의 갈등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나 동서, 시누이 등 시댁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경우 생기는 갈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주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의 방향은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된다.

(3) 재혼가정의 경우 나타나는 자녀와의 갈등

베트남 아내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크고,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는 나이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외국인 새어머니에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베트남 아내 역시 문화 차이로 인해 사춘기의 자녀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남편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의 자녀가 있는 재혼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경우 부부를 상담하는 동시에 자녀들도 만나 새어머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4) 통역이 필요한 경우 돕기

남편이 부재중일 때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처럼 급박한 상황에 처한 베트남 여성이 전화로 도움을 청할 경우 주위의 한국사람 및 의사와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상담사례

위에서 소개한 4가지 주요상담주제에 속하는 전형적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1) 사례 1 : 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신부입국일	2006년 2월
가족특성	전북 거주. 남편 직업은 직업이 있으나 함께 농사도 지음
상담기간	2006년 2월 - 2006년 7월(현재 진행 중)
상담내용	<p>남편이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불같이 화를 냄 자기 성격을 본인도 알고 있어서 상담자에게 아내에게 자기가 화났을 때에는 그때만 넘기면 되니 눈앞에서 피하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하기도 함. 그러면서도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음.</p> <p>아내를 이웃집 베트남 여성과 비교하면서 ‘그 여자는 살림도 잘하고 농사일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말을 자주하여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p> <p>남편은 화가 나면 말로 마구 쏟아내지만 아내는 말이 능숙치 않아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 크게 울고 소리를 지름. 남편은 아내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화를 냄. 아내가 이런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함. 실제로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표현을 계속 과격하게 함. 아내에게 ‘정 내말 안 들으면 베트남 보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함.</p> <p>두 사람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지만 남편이 속마음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상담자는 앞으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음.</p>

(2) 사례 2 : 남편의 술 문제로 인한 갈등

신부입국일	2005년 10월
가족특성	충남 거주. 남편은 직장생활을 함.
상담기간	2005년 10월 - 2006년 4월
상담내용	<p>아내가 언어를 빨리 배우는 편이고 열심히 배웠는데 주위 환경이 열악하여 욕설을 배워 사용하게 됨. 아내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하지만 남편은 매우 싫어하고 이 문제로 몇 차례 다툼.</p> <p>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먹을 때마다 안 좋은 술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가 힘들어했으나 상담을 통해 설득하여 점차 버릇도 고치고 주량도 줄였음.</p> <p>술을 많이 마실 때 신부가 문화 차이를 많이 경험하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 상담자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데 시간이 걸렸음.</p> <p>술을 마시다보니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는 것, 상가에 가서 밥을 새우는 것 등 한국사회의 직장문화와 술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만 생각함.</p> <p>무조건 아내만 이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남편도 결혼 전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가도록 설득하였음.</p>

(3) 사례 3 : 남편의 과음 문제와 약속 지키지 않는 문제

신부입국일	2005년 3월
가족특성	경북 거주. 남편인 농사를 지음.
상담기간	2005년 3월 - 2005년 7월
상담내용	<p>남편이 경도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p> <p>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는 점잖고 순한 성격을 보이지만, 술을 마시면 과격한 성격이 나오고 회사로 전화를 자주 함.</p> <p>술에 취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용변 실수를 하는 등의 문제로 신부가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참고 잘 견디는 편.</p> <p>처음 결혼하고 와서 친정에 가고 싶어 하자 7월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음. 그러나 비행기운임이 비싼 시기여서 사정이 여의치 않자 신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속상해 함.</p> <p>아직 남편이 모든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 나이 어린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상담자가 이해시켰음.</p> <p>남편에게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쉽게 아내와 약속하지 말라고 조언함.</p>

(4) 사례 4 : 남편의 성격과 잠자리 문제

신부입국일	2005년 5월
가족특성	충남 거주. 남편이 농사를 지음. 시어머니와 거주.
상담기간	2005년 5월 - 2006년 2월
상담내용	<p>남편의 성격이 괴팍하고 화를 많이 내는 편. 아내에게도 욕을 많이 하고 거칠게 대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였음. 남편이 '그럼 베트남 가라'라고 소리치면 아내가 속상한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가방을 챙기면 길로 내던지면서 가라고 소리치기도 함. 남편이 문제가 많고 아내가 고통스러워 남편, 아내 모두와 상담자가 여러 차례 상담을 하였음.</p> <p>남편이 잠자리 요구를 많이 하여 아내가 힘들어하였음. 낮에도 어머니를 나가계시라고 하고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아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상담 전화를 하였음. 아내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남편이 전혀 배려하지 않아 상담자도 어려웠음.</p> <p>이후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 즈음부터 남편의 태도도 점차 나아져서 상담을 종료함. 임신 이후 아내를 베트남 친정에도 다녀오도록 하였고 서로 많이 적응하여 큰 문제가 없어졌음. 현재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음.</p>

(5) 사례 5 : 남편의 폭력 사용과 아내의 가출 문제

신부입국일	2005년 9월
가족특성	전북 거주. 남편이 농사를 지음.
상담기간	2005년 9월 - 2006년 5월
상담내용	<p>아내가 친정에 돈을 좀 보내주길 원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았음. 남편이 술을 마시면 크게 싸우고 아내를 몇 차례 때린 적이 있으며, 밤에 아내가 가방을 싸고 남편이 가방을 던지면서 싸우기도 하였음. 남편이 술 마시면 아내는 밖에 나가서 자거나, 여러 번 옆집에 가서 자기도 하였음.</p> <p>그러던 중 임신한 아내가 가출. 남편과 시댁가족 모두가 크게 놀라고, 지사장이 수소문하여 어느 공장 기숙사에 숨어있는 아내를 찾아 데려옴. 지사장이 남편에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화해시킴. 현재는 원만하게 잘 지냄.</p>

(6) 사례 6 : 남편이 아내의 사회활동을 원하지 않음

신부입국일	2005년 11월
가족특성	경북 거주. 농사를 지음.
상담기간	2005년 11월 - 2006년 5월
상담내용	<p>한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 베트남 여성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므로 결혼중개업체 지사에서 한글 교실과 함께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노래를 부르며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음. 그러나 남편이 유독 반대하여 모임에 나가지 못함. 남편은 아내가 한국에 적응하게 되면 독립하여 스스로 생활하려 나가 버릴까 염려함. 한국어도 자신이 가르쳐줄테니 나가지 말라고 잡아둠. 베트남 아내는 계속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함.</p> <p>가끔 아내도 남편이 속상할만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 함.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누구는 냉장고를 바꾸었다, 친정에 돈을 보내주었다, 친정에 전화를 놔주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여 남편을 속상하게 함.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 모임에 못나가게 함.</p> <p>남편에게는 타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를 믿고 이해해 주도록, 아내에게는 남편이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한국 말을 열심히 배우도록 상담.</p>

(7) 사례 7 : 시어머니, 남편과의 경제적인 문제

신부입국일	2005년 9월
가족특성	강원도 거주. 농사를 지음. 시어머니와 동거.
상담기간	2005년 9월 - 2006년 6월
상담내용	<p>농사일이 많은 편이어서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농사일을 배우고 돕고 있음.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 친정에 돈을 보내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에 아내는 힘든 일들을 불평 없이 해내는 편이었음.</p> <p>그러나 약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함. 가정의 주도권(경제권)을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가 속상해할 때에도 신랑이 적절히 도와주지 못했음.</p> <p>수확을 마치면 친정에 돈을 보내줄 것인지 기대하며 임금이 나가는 외부인도 쓰지 않고 아내는 계속 열심히 일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면 몸팔러 온 거지 결혼해서 온 거냐'며 오해하고 비난함. 상담자가 신랑과 시어머니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없었음.</p> <p>현재 신부는 가출하여 친구 집에서 생활하는 중.</p>

(8) 사례 8 : 시어머니와의 갈등

신부입국일	2005년 6월
가족특성	시어머니와 동거.
상담기간	2005년 4월 - 2006년 3월
상담내용	<p>베트남 아내는 고국에서도 농사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음. 한국에서 온 후 새로 배우는 일이 버거워 스트레스를 받음. 시어머니가 밭에 일하러 나가자고 하면 종종 머리가 아프다로 함. 현재 소여물 주는 일을 하고 있음.</p> <p>시어머니는 동네의 다른 베트남 여성들과 비교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음. 자주 아프다고 하자 꾀병이라며 ‘그럴 거면 한국에 왜 왔느냐’며 화를 냄. 며느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함.</p> <p>며느리에게는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하시는 일이니 어머니에게서 배우며 조금씩 일에 적응해보도록 격려하고,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를 일꾼이 아닌 며느리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함.</p>

(9) 사례 9 : 시어머니와의 갈등

신부입국일	2005년 9월
가족특성	강원도 거주. 남편이 직장생활하며 어머니와 농사도 지음.
상담기간	2005년 9월 - 2006년 7월(현재 진행 중)
상담내용	<p>시어머니가 강하고 고집이 있으신 편. 이웃에 거주하는 친딸과의 관계도 좋지 않음. 시누이가 베트남에서 온 올케언니를 감싸주고자 하여 ‘우리 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올케가 살지’라고 말하기도 함.</p> <p>며느리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어머니가 싫어하면 못 먹으며, 아직 살림 이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음식을 해 먹기 어렵다고 상담자에게 호소. 그러나 시어머니는 먹고 싶으면 꺼내 먹으면 되지 뭐가 어렵냐며 며느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함.</p> <p>며느리가 아들 출퇴근 때 나와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꾸짖기도 함.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어렵고 그렇다보니 남편도 미워 출근할 때 나가지 않았다고 함. 또 며느리가 청소나 밥 등의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불평. 며느리는 현재 슬프고 살림도 모두 내 살림 같지 않고, 남편이 언제까지 잘 해줄지 확신이 없어서 내 일처럼 찾아서 일하지 못하는 것.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함.</p> <p>시어머니가 워낙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남편이 아내의 친절에도 비밀리에 송금을 함. 시누이가 많이 감싸고 있고, 남편과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기만 바라고 있음. 임신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더 섭섭하게 느낌.</p>

(10) 사례 10 : 시부모와의 갈등

신부입국일	2005년 3월
가족특성	경기도 거주. 남편이 옷 수선을 배우는 중이어서 현재 무직.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새어머니임.
상담기간	2005년 3월 - 2005년 6월
상담내용	<p>남편이 장애가 있고 상담이 잘 되지 않아 주로 시부모님과 상담함.</p> <p>시어머니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 같은 상에서 식사도 하지 않는 사이여서 아내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음.</p> <p>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한 번 가르쳐주면 알아야지’ 하고 종종 소리를 치며 며느리를 꾸짖었음. 며느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나 음식을 하는 등의 살림살이를 잘 모르고 인사하는 등의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어머니가 답답해 함. 시어머니의 성격이 급하고 강해서 전화상담 중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함.</p> <p>며느리가 인사를 해도 시어머니가 받지 않자 무안한 며느리는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하지 않고, 결국 시어머니가 인사할 줄도 모른다고 화를 냄. 며느리가 전화로 상담자에게 ‘미칠 것 같다’고 말함.</p> <p>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그래도 네가 계속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함. 시아버지가 상담자에게 ‘나도 부인과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다’고 호소함.</p> <p>결혼중개업체 지사장이 이 가정을 위해 국제결혼부부 모임을 주선함. 부부동반 모임에 시어머니도 초대하여 다른 가정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줌. 여러 사람이 베트남 신분의 어려운 이야기를 해줌.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많은 것을 느끼고 아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음.</p> <p>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리면서 며느리도 많이 편안해짐.</p>

(11) 사례 11 : 형님과의 갈등

신부입국일	2005년 4월
가족특성	경기도 거주. 남편이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무직. 처음에는 남편의 형님 가족과 함께 살다가 분가하였음.
상담기간	2005년 4월 - 2006년 3월
상담내용	<p>베트남 아내와 형수와의 갈등이 있어서 남편도 어려워 함. 남편이 형님의 고구마 밭에서 운송 일을 하였음. 식사와 생활을 거의 형님 집에서 하고 잠만 따로 자는 생활. 아내가 귀국하고나자 처음에 형님은 동서에게 잘 해준다고 하던 것이 점차 서로에게 부담이 되면서 갈등이 시작됨. 형님은 베트남 아내 연배의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서는 형님이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함.</p> <p>이혼까지 고려하다가 임신이 되었으나 유산됨. 남편이 아내를 친정에 보내어 한 달 정도 쉬고 오도록 해줌. 막상 베트남에 간 아내를 열흘 만에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함. 벌써 몇 달 만에 한국문화와 남편에 익숙해져서 보름 만에 귀국했는데, 돌아오자마자 김치가 먹고 싶다고 함. 아내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형님은 동서를 계속 가르치려 하고, 몇 번 가르쳐도 잘 하지 못할 경우 심하게 화를 냄. 한 번 화를 내면 또 쉽게 풀리지 않아 갈등이 여전하였음. 점차 동서가 형님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면서 결국 분가하게 됨. 남편도 형수와 아내 사이에서 계속 눈치를 보다가 형님 일터에서 나와 분가하기로 결정함.</p> <p>형님 집에서 나온 후 남편은 실직 중. 아내는 다시 임신을 하여 친정에 간 상태. 남편은 형님, 형수와 등지고 신부를 선택하겠다고 표현.</p>

(12) 사례 12 : 재혼가정 내에서 전처 자녀와의 갈등

신부입국일	2005년 4월
가족특성	경기도 거주. 재혼가족. 남편은 대졸자로 직장생활을 함.
상담기간	2005년 4월 - 2006년 7월(현재 진행 중)
상담내용	<p>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 딸 둘이 있음.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남편과 현재 베트남 부인 사이에도 아들이 하나 있음.</p> <p>큰딸의 경우 처음부터 새어머니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도 갈등.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을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아내도 나이가 어린 편이고 이제 아이를 낳아, 큰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함. 상담자가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과 한국에서도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음.</p> <p>교육적인 면에서도 딸들 지도가 어려움. 아빠가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까지 해야 하므로 힘들어함.</p> <p>남편이 처갓집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편. 친정방문도 자주 시켜주고 아내에게 이런 점에서 매우 잘함.</p> <p>딸과의 갈등이 장기적이어서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에게서 아내를 이해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가 옴. 자녀들과도 몇 차례 만나 엄마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보았음.</p>

(13) 사례 13 : 베트남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두 경우

상담내용	<p>결혼하여 한국에 들어온 후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림. 아이를 낳기 어렵게 되자 남편이 이혼을 원함. 남편의 가족들 중에서는 ‘아내가 아프다고 버릴 수는 없다. 치료해서 함께 살아라’ 권하기도 했으나, 남편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결국 이혼. 위자료를 주고 베트남으로 돌려보냄.</p>
	<p>처음에는 동서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함. 이후 베트남 아내의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킴. 정신이상 증세가 계속 심해짐.</p> <p>베트남에서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됨. 약물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한국에 들어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재발한 것이었음. 상태가 나빠질 때까지는 아내가 베트남에서 먹던 약을 가져왔는지 남편도 잘 몰랐음.</p> <p>한국에서 치료 중 임신을 하였는데, 시댁어른들은 약물로 인한 문제를 우려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원함. 베트남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하여 결국 베트남에 가서 출산을 함. 현재 남편이 베트남으로 옮겨가서 거주.</p>

위에서 여러 가지 부부갈등과 가족갈등의 사례를 보았다. 갈등은 곧 파국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제결혼 이후 가정을 이루고 잘 적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 이후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성공적 적응의 두 사례를 소개한다.

(14) 사례 14

가족특성	남편이 청원경찰 근무. 42세에 결혼. 초혼.
상담내용	<p>베트남에서 맞선을 볼 때 매우 긴장하고 초조해했음.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을 진행하면서도 긴장한 모습이었고 표정이 어두웠음. 현지에서 아내가 기침을 많이 한다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기도 함.</p> <p>한국에 돌아와서는 베트남 사전을 구입해서 3달간 베트남어를 공부함. 남편이 오랜 직장생활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성품이 좋은 편이어서 결혼 이후에는 아내를 잘 돌보고 친정에도 잘함.</p> <p>현재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음.</p>

(15) 사례 15

가족특성	33세에 결혼. 학력은 고졸.
상담내용	<p>남편은 아버지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으나 학벌이 부족하고 현재 직업 때문에 결혼을 못하다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됨. 시어머니가 아들을 베트남에 보내면서 자존심이 상해하였음. 시어머니와 시누이(여동생)가 베트남에 동행하였음.</p> <p>첫 맞선에서 아내를 고르지 못하고 다음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p> <p>베트남 아내가 인상이 좋고 외모가 뛰어난 편임. 현재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음. 시댁에서 분가하여 살지만 식사는 함께하는 생활을 함. 남편도 아내에게 잘 대해 주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음.</p>

V. 결혼이민자 가정의 요구

1. 한국에서의 생활실태 및 요구

한국과 본국의 문화차이를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5-1>과 같다. 총 여성응답자 151명 중 39.7%가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9%는 많이, 23.2%는 보통으로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많이 경험한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의 경우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표 5-1> 출신국별 본국과의 문화차이 경험여부

단위: %(명)

구 분	전 체	출신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전혀 없다	9.3(14)	12.9(8)	8.8(3)	7.7(1)	4.8(2)
별로 없다	7.9(12)	6.5(4)	14.7(5)	15.4(2)	2.4(1)
보통이다	23.2(35)	17.7(11)	8.8(3)	23.1(3)	42.9(18)
가끔 있다	39.7(60)	43.5(27)	38.2(13)	38.5(5)	35.7(15)
많이 있다	19.9(30)	19.4(12)	29.4(10)	15.4(2)	14.3(6)
계	100(151)	100(62)	100(34)	100(13)	100(42)

남편들에게도 문화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총 응답자 123명 중 47.2%인 58명이 문화차이를 가끔 또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혀 또는 별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3%(41명)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문항에 대한 여성의 응답보다 낮은 비율로 남편이 아내보다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영역에서 문화차이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5-2>와 같이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1순위로 생활문화에 대한 차이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차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2순위로는 경제제도, 부부관계, 자녀양육에 대한 차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의 경우 1순위로 생활문화에 대한 차이를 경험한다고 가장 많이 보고하였으며, 2순위로는 경제제도, 시부모와의 관계, 이웃관계, 자녀양육에서 차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남편과 부인 모두 생활문화의 차이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점은 국제결혼 부부에게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이 결혼 준비과정부터 제공된다면 결혼 이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제도, 자녀양육, 시댁과의 관계 역시 부부 모두가 차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후 적응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표 5-2> 본국과의 문화차이를 경험한 부분

단위: 명

구 분	부인응답		남편응답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생활문화	67	9	82	6
부부관계	8	15	5	6
자녀양육	8	15	3	12
시부모(시댁식구)와의 관계	14	14	4	19
이웃관계	2	8	2	16
교육제도	5	9	3	7
경제제도	9	19	4	20
계	105	72	103	86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달라요.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녀같아요. 일본에서도 100% 그렇진 않은데 사이가 좋아요. 한국에도 좋은 시어머니가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며느리가 아이 낳고 기르는데 도와주고, 외출할 때 아이도 봐주고, 요리도 같이 해주는거 거의 없어요. 차이 많아요. [일본, 43세, 결혼 10년]”

부인을 대상으로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을 보고하도록 한 결과, <표 5-3>과 같이 총 응답자 140명 중 42.9%가 결혼 후 6개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혼 후 1년까지의 기간에 72.2%의 여성이 속하는 것에 근거하여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적응지원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5-3>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

단위: %(명)

구분	계	6개월	1년	2년	3년	3년 이상
	100(140)	42.9(60)	29.3(41)	14.3(20)	7.9(11)	5.7(8)

“결혼하고 6개월까지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은 일하러 가서 안 오고, 시아버지하고 하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해서 많이 싸우게 되고..... 남편은 사료배달 일을 해서 아침 일찍 가고 밤 늦게 왔어요. 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들에 갔는데 겨울이어서 너무 추웠어요. 베트남은 겨울이 없는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겨울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베트남, 22세, 1년 6개월]”

2. 교육참여 실태 및 요구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경험한 교육의 종류와 빈도는 <표 5-4>에 제시되어 있는데, 각 교육프로그램 별로 총 응답자의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음식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중인 교육도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음식교육, 부부공동참여교육, 한국문화교육이 다음으로 많았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교육으로는 직업 및 기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부부공동참여교육과 취미 및 여가교육 경험도 낮은 편이었다.

<표 5-4>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의 종류와 빈도

단위: %(명)

구 분	받은 적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등록중	계
한국어교육	16.8(25)	28.2(42)	8.1(12)	21.5(32)	25.5(38)	100(149)
한국문화교육	37.1(53)	32.9(47)	9.1(13)	16.8(24)	4.2(6)	100(143)
한국음식교육	34.2(50)	30.1(44)	18.5(27)	11.6(17)	5.5(8)	100(146)
직업 및 기술교육	80.0(112)	8.6(12)	5.0(7)	5.7(8)	0.7(1)	100(140)
가족관계 증진교육	38.2(55)	35.4(51)	7.6(11)	16.0(23)	2.8(4)	100(144)
자녀양육관련교육	49.3(69)	31.4(44)	7.1(10)	9.3(13)	2.9(4)	100(140)
취미 및 여가교육	62.0(85)	17.5(24)	3.6(5)	15.3(21)	1.5(2)	100(137)
부부공동참여교육	63.6(89)	18.6(26)	5.0(7)	8.6(12)	4.3(6)	100(140)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표 5-5>와 같이 원하는 교육이 주변에 개설되지 않아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응답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24명, 생활이 바빠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0명, 참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는 응답이 12명으로 나타났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었다.

<표 5-5>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구 분	인원
참여하고 싶어도 원하는 교육이 주변에 없어서	28
바쁜 생활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20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	24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4
참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12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
계	90

참여하고 싶어도 원하는 교육이 주변에 없다는 응답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보여준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해 군 단위 지역에도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에 따라 개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이나 바쁜 생활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률이 높아지고 수혜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하고 싶은 교육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겨울에는 밖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가까운데서 저녁때 하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면 참석할 수 있어요. [일본, 43세, 결혼 10년]”

다음의 이야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밖에 다니기를 꺼려해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적어요. 생활도 바쁘구요. 처음에 그냥 다니기를 싫어했어요. 말하는 것부터 스트레스였어요. 나가면 ‘중국에서 왔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싫더라구요. 좀 똑같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데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눈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다니기도 싫고 어울리기도 싫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제 생활 생기고 애기 생기고 바쁘다 보니까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꺼려졌어요.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 학교, 유아원 가고 하면 가끔 남편이 가는 행사에 참석하고 그래요. [중국(조선족), 31세, 결혼 10년]”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부인과 남편에게 물었을 때, <표 5-6>과 같이 응답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경우 모두 한국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빈도조사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부인의 경우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한국요리 실습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 한국요리 실습교육, 한국문화교육,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교육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요리실습교육, 문화교육, 자녀양육 및 지도에 관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확충되어야 할 교육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단위: 명

구 분	부인응답			남편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어교육	116	6	4	81	3	3
한국요리교육	5	55	17	13	39	15
한국문화교육	6	13	27	12	33	16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	0	8	11	4	5	9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교육	10	37	18	6	20	30
직업기술교육	3	7	15	2	4	14
취미 및 오락프로그램교육	0	6	4	1	3	4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교육	2	8	18	4	4	13
컴퓨터교육(IT교육)	7	5	21	2	9	12
계	143	142	117	125	120	116

“한국말 배우는거 좋아요. 남편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좋아요. 남편도 좋아합니다. ‘여보 많이 배웠어요? 열심히 하세요. 공부 많이 배우세요’ 하고 말해주세요. 기분 좋아요. [베트남, 22세, 결혼 1년 6개월]”

“한국어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 말로 된 책은 없어요. 영어설명만 있어요. 베트남 부인들 영어 몰라요. 베트남어로 설명된 한국어 책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한글-베트남 사전도 없어요. 서울에는 있지만, 농촌에는 없어요. 단어를 많이 배울 수 없어요...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테이프나 VCD 좋아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발음 연습 할 수 있구요. 베트남어로 설명된 VCD 만들면 좋겠어요. 농촌에서 한글교실 멀어요. 멀어서 못 갈 때도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겠어요. [베트남, 39세, 결혼 2년]”

“어머님도 한 번 모임에 오시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오면 다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거 누가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1년도 아니고 3, 4년 오래 동안 시간이 걸린다고. 외국에서 며느리 온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끼리 모이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가 있도록. [일본, 43세, 결혼 10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원하는 한글교육의 지원형태를 물었을 때, <표

5-7>과 같이 부인과 남편 모두 공공건물에 모여 집단으로 지도하는 형태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응답자 중 다수가 이미 공공건물에 모여 집단으로 지도하는 형태의 한글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동네 사람들을 가까운 장소에 모아 교육하는 소집단 지도를 선호하는 경우도 부인과 남편에게서 각각 32.6%, 22.0%씩 나타났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지도의 경우 부인과 남편 모두 선호가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이미 집단지도에 참여하고 있고 낯선 교육자에게 가정의 사적인 공간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아 개별지도에 대한 낮은 선호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교통편이 존재하고 혼자서 모임에 참석할 정도의 적응이 된 후에는 교육모임을 통해 같은 출신국 여성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자유시간을 갖고자하기 때문에 집단지도에 대한 선호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7> 희망하는 한글교육 지원형태

단위: %(명)

구 분	부인응답	남편응답
공공건물이 모여서 집단지도	57.6(83)	63.8(81)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지도	9.7(14)	14.2(18)
한 동네 사람을 인근장소에 모아서 하는 소집단 지도	32.6(47)	22.0(28)
계	100(144)	100(127)

“한글교육 집에서요? 아니요. 싫어요. 다들 나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농사일 바쁘게 집 청소도 안했고, 나가서 하는게 좋아요. 집에만 있는거 답답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친구 만나는거 재미있어요. 같이 시장도 보구요. [필리핀, 39세, 결혼 7년]”

“집에서는 공부 안되요. 집에서는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한글교실 와서 친구도 만나고 나오는게 더 좋아요. [베트남, 22세, 결혼 1년 6개월]”

그러나 결혼 후 초기 적응시기에는 남편이나 시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집단 지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원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원하는 형태의 교육이 있어도 모이는 장소까지 거리가 멀고 농사일 등으로 생활이 바빠 실제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들에게는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글교육 이외에 참여를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군 소재지 등에서 집단으로 실시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 여성응답자 163명 중 77.9%(127명)는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22.1%(43명)는 참석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표 5-8>은 응답자들이 참석할 수 없다고 보고한 이유를 보여준다. 농사일이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30.2%, 13명)는 이유에 대해서는 농사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수업시간의 계획부터 농사일이 바쁜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며, 교통편이 없다(25.6%, 11명)는 이유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23.3%, 10명)는 이유의 경우 교통편과 교육시간 중의 보육을 지원해줄 필요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재 취업을 하고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 교통비가 없어 참석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표 5-8> 군 소재지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구 분	단위: %(명)	
	부인응답	남편응답
교통편이 없어서	25.6(11)	37.1(13)
농사일이 바빠서	30.2(13)	25.7(9)
가족들이 반대해서	4.7(2)	2.9(1)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3.3(10)	20.0(7)
기타	16.3(7)	14.3(5)
계	100(43)	100(35)

“농촌에서는 가까운 곳이 좋아요. 도시에서는 멀어도 괜찮지만. 농촌에서는 버스로도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 좋아요. 많은 사람이 농촌에서 버스 두 번, 세 번 타야해요. 저는 애기 없어서 할 수 있지만, 애기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없어요. [베트남, 39세, 결혼 2년]”

따라서 군 소재지에 적절한 집합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참석을 위한 가족의 지원(교통편 제공, 자녀 봐주기)이 있으며, 농사일에 매일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조모임이 구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의 경우 계속해서 정보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여성결혼이민자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을 파악하고 공공지원의 일환으로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가장 필요를 느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표 5-9>와 같이 총 응답자 108명 중 27명이 부인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1순위로 들었고, 다음으로 26명이 부인 국가의 언어교육을, 18명이 국제결혼에 대한 남편교육을 1순위로 들었다. 국제결혼 준비과정부터 부인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인이 한국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야함을 보여준다.

2순위와 3순위로 필요성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는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이나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교육이 유사한 비율로 보고되어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경우에도 자녀양육과 부부관계 증진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9> 국제결혼 남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구 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국제결혼에 대한 남편교육	18	2	5
부인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27	21	15
부인 국가의 언어교육	26	16	3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	12	24	16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13	31	24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 교육	12	9	31
계	108	103	94

“부인과 대화가 안되서 오해가 있고, 베트남에 가서 오지를 앓는다, 편지를 좀 번역해달라, 통역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국제결혼 3년차, 5년차 되도 일상회화는 되지만 쉽지 않아요. 법적인, 의학적인 문제는 언어가 안되는데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남편들이 우리 집에 도와달라고 와요. 신부와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일단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 두 시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베트남 여성 남편, 50세, 재혼 2년]”

남편들에게 희망하는 교육담당자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표 5-10>과 같이 응답하였다. 총 응답자 114명 중 37.7%(43명)가 시군청의 관련 공무원을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30.7%(35명)가 민간인 전문가를 선호하였다. 결혼중개업체(5.3%, 6명)와 농업기술지원센터 관계자(3.5%, 4명)의 경우 매우 낮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남편들이 필요

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할 때 더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경험이 많으며 상업적인 이익과 관련 없는 교육담당자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10> 희망하는 교육담당자

단위: %(명)

구 분	시군청 관련 공무원	농업기술지원 센터 관계자	결혼중개업체	민간상담소	기 타	계
	37.7(43)	3.5(4)	5.3(6)	30.7(35)	22.8(26)	100(114)

“국제결혼한 부인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힘들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통역 해줄 사람도 없구요. 공식기관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도 믿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출신국별로 사람들을 선정해서 자원봉사든, 봉급을 주든 직책을 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상담소 같은 곳이 필요해요. [베트남여성 남편, 50세, 재혼 2년]”

3. 취업실태 및 취업교육요구

현재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124명 중 19.4%(24명)가 취업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80.6%(100명)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했다. 현재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표 5-11>에 제시되어 있다. 총 44명의 응답자 중 22.7%(10명)가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 충당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20.5%),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13.6%), 자기발전을 위해(11.4%),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5-11>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이유

구 분	%(명)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22.7(10)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22.7(10)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9.1(4)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13.6(6)
자기발전을 위해	11.4(5)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20.5(9)
계	100(44)

<표 5-12>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총 응답자 141명 중 31.2%가 자녀양육과 한국말이 서툴러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13.5%),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2.7%),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7.1%)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표 5-12> 취업을 못하는 이유

구 분	%(명)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12.7(18)
자녀양육 때문에	31.2(44)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7.1(10)
한국말이 서툴러서	31.2(44)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로	13.5(19)
기타	4.3(6)
계	100(141)

“베트남에서 미용실 일했어요.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미용실 안 똑같아요. 한국에서 미용실 하고 싶은데 남편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학원에 안 보내줘요. 밖에서 일하고 싶어요. 베트남 여자들은 다 밖에서 일하고 싶어해요. 애기 없으면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은데. [베트남, 22세, 결혼 1년 6개월]”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 필요로 하는 지원은 <표 5-13>에 제시되어 있다. 총 응답

자 135명 중 43.0%(58명)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서 알려주길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19.7%(26명)는 훈련비 지원을, 17.8%(24명)는 창업교육을, 14.0%(19명)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원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취업과 관련된 한글 및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5-13>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구 분	%(명)
창업교육	17.8(24)
자격증 취득	14.0(19)
취업알선	43.0(58)
훈련비 지원	19.7(26)
없다	5.9(8)
계	100(135)

“중국하고 틀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비용도 비용이죠. 가장 관심 있는 자격증은 조리사 자격증이예요. [중국(조선족), 31세, 결혼 10년]”

“취업하고 싶어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남자들은 인력개발 찾아가는데, 복지관은 있지만 여기 취업소개 해주는 곳은 없어요. [필리핀, 39세, 결혼 7년]”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표 5-14>에 제시된 자격증 및 기술 중 원하는 자격증을 우선순위 없이 2가지씩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54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조리사 자격증과 미용사 자격증을 선호하였다. 이 외에도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미장공, 원예, 도배공의 순서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였으며, 기타 취득을 원하는 자격증으로는 관광통역 등이 있었다.

<표 5-14> 취업을 위해 취득하기 원하는 자격증

구 분	인원
컴퓨터 관련 자격증	54
간병인	15
미용기술	22
가사도우미	17
조리	35
미장공	14
원예	14
도배공	8
기타	21
계	200

“미용기술이나 제빵기술 배우고 싶어요. 무료로 하면 좋죠. 부동산 중개인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 더 먹기 전에 해보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고, 배우러 가도 한 달에 20만원이래요. 이런 거 가능하면 해보고 싶어요. 자기 개발도 되고, 어려워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포기한 상태예요. [중국(조선족), 36세, 결혼 13년]”

4. 영농실태 및 교육요구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126명 중 34.9%(44명)는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65.1%(82명)는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농사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몸이 힘들고 고되며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여건이 변화한다면 농업인력으로 남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적극적인 영농지원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계속 농사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변함이 없으니까. 저희는 또 처음부터 시골이 좋아서 온거예요. 농사가 힘들다는 생각은 안하구요. 저는 시내에서 복잡하고 공기 안좋은 것 보다는 시골에 샘물 나오는데서 이쁜 집 짓고 사는 삶을 꿈꿨어요. 막상 와서 농사짓고 하니까 힘들 땐 힘들지만, 하고 싶은거 다 심어 놓고 사먹지 않고 해결하는 편이에요. 수박, 참외 다 키워요. 집에서 많이는 못하고 애들 먹을 만큼만 해요. 할 때는 진짜 힘들어요. 막상 또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행복해요. [중국(조선족), 31세, 결혼 10년]”

“농사교육은 안받고 싶어요. 남편은 농사일 하더라도 나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농사는 수입이 너무 적어요. [필리핀, 39세, 결혼 7년]”

“한국에서 농사일 하고 싶지 않아요. 못쉬고 일해서 힘들어요. 공장가서 돈 벌고 싶어요. 농사일은 힘들어서 안하고 싶어요. [베트남, 22세, 결혼 1년 6개월]”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편들에게 부인이 현재 농사일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와 앞으로 얼마나 돕길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표 5-15>과 같이 응답하였다.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는 수준은 총 응답자 106명 중 51.9%(55명)가 집안살림만 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바쁜시기에만 잠시 도와준다는 응답이 23.6%(25명),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20.8%(22명)였다. 지속적으로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한다는 경우는 2.8%(4명)로 매우 적었다.

앞으로 농사일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08명 중 38.9%(42명)는 계속해서 집안살림만 담당하기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38.0%(41명)는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주기 원한다고 응답하여 76.9%의 남편들이 부인들의 적극적인 농업참여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하기 원하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함께 농사일을 하기 원하는 경우는 각각 16.7%(18명), 6.5%(7명)로 나타났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아직 자녀가 없거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이를 고려하여 농사일에 대한 참여를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자녀가 성장하고 진학하면서 교육비 등의 지출부담이 증가할 경우 부인의 영농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5-15> 현재 부인의 농사일 참여정도 및 앞으로의 참여 희망정도

단위: %(명)

구 분	현재 참여수준	희망하는 수준
집안살림만 담당한다.	51.9(55)	38.9(42)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준다.	23.6(25)	38.0(41)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한다.	20.8(22)	16.7(18)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농사일을 한다.	2.8(4)	6.5(7)
계	100(106)	100(108)

정부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 112명 중 42.9%(48명)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57.1%(64명)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영농교육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주로 현재의 농사품목과 관련하여 더 앞선 기술을 전수받거나 수익이 높은 작물의 재배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남편의 경우 총 응답자 106명 중 46.2%(49명)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53.8%(57명)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부인과 비슷한 수준의 수요를 보였다. 부인의 영농교육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표 5-16>과 같이 응답하였다. 채소 등 밭농사법(35.0%), 특화작물 재배법(20.0%), 논농사법(15.0%), 하우스재배법(6.7%)의 순서로 선호를 보였다.

<표 5-16> 부인이 받기 원하는 영농교육의 내용

단위: %(명)

구 분	채소 등 밭농사법	논농사법	하우스재배법	특화작물 재배법	기타	계
	35.0(21)	15.0(9)	6.7(4)	20.0(12)	23.3(14)	100(60)

“필요한건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고추에 대한 것도 인터넷에 박사님이 설명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무슨 약을 이렇게 써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보고, 또 신랑이 몇 십년 동안 농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육은 받은 적 없어요. [중국(조선족), 31세, 결혼 10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남편이 말아서 하니깐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말해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하고 같이 배우면 좋겠어요. 지금 수박하고 오이하고 하고 있는데 농사교육이 가끔 있어요. 그런거 참석하고... 요즘은 유기농이나 무농약에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농약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일본, 43세, 결혼 10년]”

영농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남성응답자 64명 중 40.6%(26명)가 한 동네 사람을 한 가정에 모이게 해서 지도하는 소집단 지도를 선호했으며, 비슷하게 37.5%(24명)가 공공건물에 모여서 지도하는 집단지도를 원했다. 마지막으로 21.9%(14명)가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남편과 함께 교육받기를 원하는 요구가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부분의 영농기술을 남편에게 배우고 있고, 남편이 주도적으로 농사일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이야기는 교육 이외에 영농과 관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실제적인 도움이 별로 없어요. 가끔 버섯 재배 언제까지 한다 신문에 나오는데 직접 기술센터에 간 적은 없어요. 이장님 통해서 종자를 받기도 하는데, 무료로 주는 것도 있는데 크게 활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배 안에서부터 농사짓던 사람이라 새로운 것을 많이 안 접하려고 하더라구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면 직접 물건을 받아서 팔아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몇 일 낫은 자기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팔려면 싸고, 사려면 비싸고, 대신 직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싸게 팔아요. 이번주에도 싼 값에 넘겼어요. [중국(조선족), 36세, 결혼 13년]”

5. 공공지원요구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총 여성응답자 139명 중 18.0%(25명)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82.0%(114명)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총 응답자 122명 중 23.0%(28명)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77.0%(94명)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총 남성응답자 38명 중 조금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5%(23명),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6.3%(10명),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1%(5명)로 나타났다. 지원의 종류나 횟수에 따라 만족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지원의 형태와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고도 별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경우가 39.4%에 이르므로 앞으로는 좀더 결혼이민자가정의 현실적인 요구에 맞게 지원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아니 왜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 집도 몇 평 전세에 몇 천 주는데 우리들에게도 다달이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달에 만 원짜리 두 장만 주어도 영화라도 볼 수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주면서 시집 온 여자들한테 도움을 준다고는 말로만 하지 말고 사소하게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골 노총각들이 결혼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보탬이예요? 우리도 영화라도 같이 보고 하면 더 다정해질 수 있고요. [중국(조선족), 36세, 결혼 13년]”

다음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의견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활동을 감독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회사 사람 싫어요. 여자 집에 돈도 안주고, 비자도 안주고, 비행기표도 안주고, 여권도 안주고. 많이 힘들었어요. 국제결혼한 남편한테 나쁜 이야기해요. 베트남 여자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게 해요. 부인 신분증 같은 거 다 뺏게 해요. 우리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시집와서 도망갈 생각 없어요.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한국사람 베트남말 모르고, 우리는 한국말 잘 몰라요. 자꾸 나쁜 생각 하게되요.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베트남, 22세, 결혼 1년 6개월]”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이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제약으로 많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의 대상 여성들 중 2006년 설치 및 운영이 추진되는 1366 핫라인 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사용해 본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농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상담소가 없어요. 그냥 여기 복지관 한글선생님한테 무슨 걱정하면 이야기 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은 없지만 다른 집 문제 많아요. 때때로 남편이 부인 때려요. 부인이 집 나가요. 그런 집 있어요. 그런데 상담소 없어요. [베트남, 39세, 결혼 1년 7개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요. 제가 외국인이라 상대방이 말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는데 전화하면 상대방이 못알아들어요.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상담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 43세, 결혼 10년]”

다음은 양모결연 및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이다.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갑자기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라’ 결정해주면, 사람이 성격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둘이 안 맞으면 서로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룹으로 모이는 게 더 좋겠어요. 전에도 양모가 되어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런거 시키니까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애기 엄마니까 비슷한 애기 엄마들끼리 모일 수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고 애들한테도 좋은데... 한국인 애기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일본, 43세, 결혼 10년]”

Ⅵ.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지원현황

1. 정부의 지원현황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들이 각 부처별로 발표되었다. <표 6-1>과 <표 6-2>는 2006년 4월 26일에 논의된 제74회 국정과제회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으로 정부의 관계 부처별 세부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여준다.

<표 6-1>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

구 분	담당부처	
	주 관	협 조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전달체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구축	여가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정통부, 농림부, 행자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복지부, 법무부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인신매매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노동부	여가부
불법행위 단속	법무부, 경찰청	
업무관계자 교육	중앙인사위	전 부처, 지자체

출처: 2006년 5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대책 확정 부처통보 자료

<표 6-2> 관계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조 치 사 항	주관부처	협력기관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경찰청	법무부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복지부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④ 재외공관에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검토	법무부	여가부, 외교부
⑤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	외교부
⑥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외교부	
⑦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여가부	복지부, 외교부

조 치 사 항		주관부처	협력기관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법무부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출신국 또는 영주권 부여			
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지자체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여가부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부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교육부	
5.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조성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 인력 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출처: 2006년 5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대책 확정 부처통보 자료

2006년 발표된 각 부처의 결혼이민자가정 지원계획을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가족정책 차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6년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추진계획의 내용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의 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가족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여성결혼이민자 1366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어교재 개발관련 관련부처 협력으로 총 일곱 가지이다. 각 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관리기관을 지정, 팀장 1인, 사무원 1인의 상근인력을 배치하고 1개소당 8천 9백만원을 국비 지원하여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결혼이민자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점검 및 평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간 종합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에 총 21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일반시에 10개소, 농촌 지역에 11개소를 설치한다. 각 센터는 4천 3백만원씩(국비80%) 지원을 받으며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보호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연결
결혼이민자 가족단위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지자체, 보건소, 학교, 병원, NGO, 언론사, 경찰서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2)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충북센터 옥천한국어 학당의 관리로 각 지역에 사업운영기관을 두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모성보호지원, 멘토매칭 실시, 자조집단 구성서비스를 실시한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사업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베들레헴 어린이집, 종교법인), 강원(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강원도 지회, 사단법인), 대전·충남(대전모이세, 대전가톨릭사회 복지회), 광주·전남(나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 대구·경상(한우리가족사랑센터, 가정폭력상담)

(3)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 가족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부부교육과 자녀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교육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총 예산 1천 4백만원을 투자한다.

(5) 여성결혼이민자 1366센터 설치 및 운영

6개 언어당 3명씩의 상담원을 두어 1일 3교대로 상담을 실시한다.

(6) 한국어교재 개발관련 관련부처 협력

2005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을 개발하여 보급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와 협조하여 기초·중급 단계의 한국어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어 강사를 교육한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06년 21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리고, 혼혈인 실태조사 및 공무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강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아동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2006년 국비지원 20개소를 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2)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으로 국제결혼가정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2006년 현재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7,998명으로 초등학생이 85%, 중학생이 11.6%, 고등학생이 3.5%를 차지하며, 이들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으로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개설 지원,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 우선 선정, 1:1 결연사업, 교원연구강화, 타문화 편견극복을 위한 교과과정 개정,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여섯 가지이다. 각 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개설 지원

전국 15개 시·군에 84억 7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방과후 학교를 설립,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방과후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2006년 하반기에는 학교생활안내 리플렛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2) 대학생 멘토링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2006년 하반기부터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및 중식지원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다.

(3)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1대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학교 내 선후배 간의 1:1 결연을 활성화한다.

(4) 교원연수 강화(소수자 배려 교육·한국어(KSL) 교육·한국문화 교육)

시도 교육청별 교원자격연수·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을 교양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 교육과정 개정시 중3 도덕교과에 ‘타문화 편견 극복’ 단원 포함

2006년 하반기에는 우선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2007년에 고시될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교과서에 타문화 이해·존중 및 편견 극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6)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한 지역단위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각 시·도의 시도발전연구원 소속 RHRD센터(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해 비수도권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 핵심산업과 연계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실업소외계층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어 농촌 혁신리더 및 바이오산업인력을 양성한다. 지자체를 중심

으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사업에 지방비 5~20%를 포함한 총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2006년 대구·경북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살기’ 시범사업(한글교육, 한국 문화교육, 가족상담, 가족캠프)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북, 강원, 부산, 경남, 대전 등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3) 보건복지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국적 취득 전 우리국적 자녀 양육시 자활사업 및 긴급지원 실시
- (2) 생활안내 책자 배부
- (3) 자녀학습 지원

4) 행정자치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 추진계획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실태조사 실시(전수조사)

2006년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국내 외국인 현황과 국제결혼 이주자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 (2) 지자체의 전담기구·인력 확보 지원

보건, 복지, 문화 등의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전담기구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5) 법무부

법무부는 전반적인 외국인 관리 및 이민정책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국제결혼가정과 관련된 법무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6개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법무차관을 간사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규정’을 제정 중이다.

(2) 외국인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2-3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간사로 하는 외국인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6) 정보통신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부 추진계획은 정보화교육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교육 실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한무리 나눔의 집 등 12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우리글 배우기, 우리글 꾸미기, 인터넷과 동무하기 등 3개 과정을 과정별로 월 30시간씩,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2) 온라인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공동추진사업(농림부 공동추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통부)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계층별맞춤과정 및 생업연계과정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 분야 및 물량은 농업인 4개, 어업인 2개, 장애인 3개, 고령층 3개, 저소득층 2개, 전업주부 1개 등 총 6개 분야 15개 과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교육과정 보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교육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농림부는 관련분야 개발내용 제안 및 전문가 추천, 교육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지원(내용 및 대상), 콘텐츠 보급·활용 등을 담당하며, 정보문화진흥원은 예산지원(과정당 2천만원), 교육과정개발 설문조사 및 설계, 원고 집필, 시범교육(타당성 검증) 등을 담당한다.

특히 농업인 관련 총 4개 분야 개발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과정(기초1, 중급1), 품목별 또는 영농 형태별 전문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전문2)이 계획되어 있다.

7월에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후, 과정별 학습내용 및 커리큘럼을 확정하여 9월말까지 온라인과정을 기획 및 개발하고 10월에 수혜자 대상 검증 및 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7) 문화관광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부 추진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실시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지원

2005년에 이미 시행된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 12건, 결혼이민자 예술치유 지원사업 1건, 정책연구 1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 2억원의 예산(기금 및 지방비 대응 투자)을 가지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2006년 12월까지 문화예술관련 기관, 단체 및 공공시설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을 심사, 선정한 다음 각 사업 당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6년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이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실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1억 5천만원을 책정하여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하며, 학습자 요구조사, 학습자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교사 워크숍 시행, 한국어 교육사업 시행의 순서로 2007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학습 교재, 단어집, 그림사전을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가정 방문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2.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현황

1)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시행 여부

15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20개 기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및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었고 23개의 기관은 현재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13개의 기관은 무응답 처리되었는데 3번 이상의 전화설문 시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였다. 무응답을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포함했을 경우 전체 156개 지방 자치단체 중 약 120개(76.9%)가 현

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시행 여부(2006년 8월 현재)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계		총계 개(%)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지원사업 하고 있음	5	10	14	2	8	8	8	8	4	17	6	8	6	7	3	6	54	66	120(76.9)
현재 하고 있지 않음	2	1	12	1	0	0	0	3	1	0	0	0	1	0	0	2	16	7	23(14.7)
무응답	0	0	1	1	2	2	2	2	0	0	0	0	0	2	0	1	5	8	13(8.33)
계	7	11	27	4	10	10	10	13	5	17	6	8	7	9	3	9	75	81	156(100)

2)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 및 방식

사업 운영 주체와 방식을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역할 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협력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해서 살펴 볼 수 있다.

(1)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

① 교육프로그램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② 교육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복지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관련 기관의 관장을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와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결혼이민자 관련 교육프로그램만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③ 센터운영

보통 센터는 외부 단체에 위탁하지만 지역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인력개발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 위탁하는 경우

① 전적으로 위탁

외부단체에 위탁하여 전적으로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경우로 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대학교 등이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만 위탁

자원봉사센터, 인력개발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로 예산을 지원하면 위탁이라 표현할 수 있고 시군단위가 아닌 중앙정부, 도 단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시군단위 공무원들이 위탁이라 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센터 외에도 이주여성상담소, 대한어머니회,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지역 공부방, 외국인한글학교, 참가정실천운동본부, 전통문화연구회, YWCA, 성폭력 상담소, 호남사회연구회, 농촌지도소, 여성농민회, 청소년 상담실, 참사랑봉사단, 성당, 교회, 종교재단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다양한 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었다.

(3)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 또는 협력

시군단위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민자가족과 여성을 위해 사업하던 단체로 위탁이라 표현하기 어렵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생 모집 등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여성의 전화, 공부방, 시민연대, 교회, 학교,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의 경우는 군에서 주관하여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인 실천과 위로부터의 관 주도의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방행정기관들이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새롭게 구상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단체와 기관들을 파악하여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종류

(1) 교육프로그램의 종류

한글교육은 102지역, 한국문화교육은 55지역, 요리교육은 50지역, 컴퓨터교육은 12지역, 자녀교육은 13지역, 부부교육은 6지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은 교육들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①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생활교육, 출산 가사 돌보기, 사회적응훈련, 성교육 등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가족교육, 생활법률교육

② 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

부부상담, 고충심리교육, 소외극복프로그램 등의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③ 자녀교육프로그램

코시안 정체성 교육, 자녀언어교육 등의 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프로그램

④ 취업교육

의류수선, 자활교육, 간병인 교육, 취업교육

⑤ 취미교실

우리 춤 체조, 종이접기, 천연염색, 가요, 도예교실, 미술, 스포츠, 요가, 꽃꽂이 등

여성들의 서툰 한국말도 문제지만 낯선 땅에서 시장을 보고, 전화를 하고, 가사일을 돌보는 등의 일상생활 적응 훈련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먼저 실시한 지역들의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농촌에서의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부 및 남편 교육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저조한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못지않게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활정보를 얻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남편과의 관계야말로 여성들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남편 및 부부교육을 강화하고 꼭 교육의 형태가 아니어도 부부간담회, 소모임 등 자연스러운 부부동반 모임 또는 남편 또는 아내들 모임을 통해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 여성들이 농사일보다는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만큼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들과의 교류를 위해 외국인 주부만 참여하는 한글교육모임이 아닌 기존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미 교육프로그램에 외국인 주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일회성 만남이나 결연행사로 끝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만남이 더욱 중요하다.

(2) 지원사업의 종류

① 각종 만남의 날

만남의 날, 문화유적탐방, 양모양녀만남의 날, 간담회, 국내연수, 가족캠프, 영화관람, 여행, 견학, 가족지원프로그램

② 결혼지원사업

③ 친절 보내주기

④ 소모임 육성

⑤ 자녀양육

방과후 학습지도, 자녀 학습지원(학습지 회사, 공부방), 미취학 자녀양육비 지원

⑥ 모성건강

출산비 지원, 모성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발육 및 건강관리

⑦ 상담

상담, 멘토링, 정신치료

⑧ 취업지원

위의 사업들은 현재 시군단위에서 실시한 사업이고 2007년도에 새로운 지원사업들을 지역별로 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몇 년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사업을 잘 파악하여 평가함으로써 모범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많이 결혼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출산과 자녀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자녀 학습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요구가 강하므로 취업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4)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교육 또는 교육적 목적을 지닌 간담회의 강사는 외부 강사를 섭외하고 그 외의 지원사업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또는 교육적 목적 성격의 간담회 강사의 종류는 자원봉사자, 교사, 건강가정사, 대학 강사, 교수, 대학원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담전문가, 한국어학당 강사,

연구소 연구원, 사회복지사, 문화원직원, 학습지 교사 등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담당자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기 때문에 강사를 외부에서 섭외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자격과 기준을 갖춘 강사들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경북의 경우 한국어 강사 수급과 배치를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간담회의 경우 시군단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도 단위로 강사풀을 형성하여 자원봉사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강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시군 담당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5)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원사업 참여 현황

(1) 참여자의 출신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이 98지역, 중국이 88지역, 일본이 78지역, 필리핀이 105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어 이들 4개국의 경우 골고루 교육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타이완,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도 일부지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참여인원

응답자에 따라 참여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의미 있는 자료분석을 하기 어렵다. 여성들만 참여하는 교육사업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단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의 경우 여성들과 가족 그리고 관련 기관 담당자와 지역사회 인사 등도 참여인원에 포함시켜 응답하기도 하였다.

적극적으로 외부 교육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구 특히 읍면 단위의 담당자는 그 지역의 이민자 가족 현황과 지역사회 행사와 교육 참여 정도를 잘 파악하여 찾아 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민간단체 현황

: 시군단위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약 50여 곳의 시군에서는 민간단체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이 지역 내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지역 민간단체들이 이민자 가족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앞서 강조했다듯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내기 보다는 기존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는 민간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민자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7) 지자체 사업 평가 및 제언

전국 4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156지역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약 120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수혜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양과 종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지원 사업이, 모든 결혼이민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사업들의 문제점과 앞으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성, 형식적 사업으로 겉보기에만 거창하고 내실이 없는 경우이다. 이는 특히 캠프, 각종 만남의 날 등의 일회성 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일반화 시킬 순 없지만 K지역에서 실시한 결혼이민자 가족 캠프 사업에 대해 평가해 보겠다. 이 캠프는 도단위에서 각 시군구 여성결혼이민자 담당공무원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까지 참여시킨 대규모 사업이었다. 각 지역 대학에서 통역과 자원봉사를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참여하였다. 많은 인원을 한 장소에 모아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진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캠프의 규모와 투자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부실하고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20대 초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형 강의실에 모아놓고 한국어로 특강을 하다보니 대부분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란스러웠다. 강의 규모를 줄이고 국적별로 여성들을 모아 출신국 언어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성들끼리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따로 마련된 대형 보육실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집단보호를 받았는데, 자녀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만큼 연령에 따라 모둠을 나눠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캠프기간이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문화 교육이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다양한 놀이와 게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자녀들도 단순히 부모의 행사에 따라온 객체가 아니라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쉽게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이 모았다면 일방적으로 준비된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설문지 등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많은 지역과 단체에서 자매결연, 양모결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한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소중한 인연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의 필요에 맞는 인물을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공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글교육, 생활문화교육, 부부관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내용이 적절하고 여성들의 이해수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나열하기보다는 소수의 교육을 하더라도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앞서 전시성 사업의 사례로 제시한 대규모 캠프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효과만 내는 사업보다는 보다 경제적인 예산과 규모로 더욱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연구해야 한다.

<표 6-4> 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담당부서 및 지원사업 현황

시/군	담당부서	비 고	지원 정책 유무	◆위탁 ●직영	직영명/ 위탁기관명	지자체
경기도	여성정책과					
수원시	가족여성과 건강가정담당		○	◆	수원여대	
성남시	여성정책과		○	●	복지관	
부천시	가정복지과	국제결혼이민자센터 설립예정	×			
안양시	가족여성과		○	●	여성회관 외국인성매매보호시설	
안산시	가족여성과 여성정책담당		○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안산이주여성상담소	
용인시	여성정책계		○	●		직접
평택시	없음	계획 중	×			
광명시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계	수요조사 중	×			
시흥시	여성복지계	내년 예정	×			
군포시	행정7급	준비 중	×			
화성시	여성청소년과		○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천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과	
김포시	없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예정	×			
광주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	●	여성문화센터	
안성시	사회복지과		○	◆	안성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	민간협력단 여성정책팀	계획 없음	×			
의왕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계획 없음	×			
오산시	여성복지	계획 없음	×			
과천시	여성아동팀	계획 없음	×			
고양시	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 예정	×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설립 예정	×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시예정	○	●	건강가정지원센터	
파주시	사회복지과 여성계	시 자체 예산은 없음	○	◆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팀	계획 중	×			
포천시		무응답	*			
양주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계획 중	×			

시/군	담당부서	비 고	지원 정책 유무	◆위탁 ●직영	직영명/위탁기관명	지자체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	◆	불현동사무소	
가평군		무응답	*			
연천군	여성복지계		○	●	여성회관	
여주군	사회복지과	여주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예정	×			
양평군	사회복지과		○	◆	대한어머니회	
강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아동정책과					
춘천시	여성정책과 여성복지계	홀터에서 하는 교육 에 사람 모집만 함, 기초수급지원	×			
원주시	여성가족과		○	◆	여성결혼이민자센터	
강릉시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	●		
동해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 ◆	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 (위탁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정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업무계		○	◆	가정폭력상담소	
속초시	사회복지과 여성권익신장담당	계획 중	×			
삼척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부서	계획 중	×			
홍천군	사회복지과 여성권익신장담당		○	●	종합문화복지관	
횡성군	주민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영월군	복지환경과 여성청소년담당		○	●		직접
평창군	환경복지과 여성정책부서		○	◆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	
정선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직접
철원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	●		직접
화천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농업기술센터, 화천읍사무소, 디딤돌교실	
양구군	주민복지과 여성복지계		○	◆	양구군주민복지관	
인제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계획 없음	×			

시/군	담당부서	비 고	지원 정책 유무	◆위탁 ●직영	직영명/위탁기관명	지자체
고성군	사회경제과 여성복지담당		○	●		
양양군	환경복지과 여성정책부서		○	●		
충북	여성정책관실					
충주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결혼이민지원센터	
제천시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	◆	제천외국인한글학교	
청주시	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여성단체협의회	
음성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계획 중	×			
증평군	복지문화과 여성정책담당		○	◆	여성단체협의회	
진천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청원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청원군여성단체협의회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 여성정책	계획 중	×			
영동군	사회경제과 여성정책담당	충북여성발전기금/ 가정폭력재단기금 지원받음	○	◆	참가정실천운동본부 영동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센터	
보은군	사회경제과 여성정책담당		○	●		직접
괴산군	복지환경과 여성복지담당		○	◆	참가정운동실천본부	
단양군	사회복지단 여성정책담당		○	●◆	단양군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충남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아동복지담당					
천안시	사회환경국 여성정책과 여성지원팀		○	◆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전통문화연구회 지역아동센터 전례원충남지소 천안삼거리다도회	
공주시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과 여성아동담당		○	◆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소	
보령시	사회복지과 여성담당	계획 중	×			
아산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이민지원센터 (시민단체)	
서산시	사회복지과 아동여성담당		○	◆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	

시/군	담당부서	비 고	지원 정책 유무	◆위탁 ●직영	직영명/위탁기관명	지자체
논산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계룡시	복지문화과 여성가족담당		○	◆	이주가족지원센터	
금산군	여성복지과	무응답	*			
연기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YWCA	
부여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	부여문화원	
서천군	사회복지분야 여성아동복지담 당		○	◆	지역아동센터 학습지회사	
청양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여성단체협의회	
홍성군	사회복지과 여성담당		○	●		직접
예산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태안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직접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문화원	
경북	여성정책과					
포항시	여성청소년과		○	● ◆	여성회	
경주시	여성복지		○	●	문화복지회관	
김천시	사회복지		○	●		직접
안동시	복지지원과		○	●	여성복지회관	
구미시			*			
영주시	여성정책과		○	●	여성복지회관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	●	여성복지회관	
상주시	여성정책과		○	●	여성회관	
문경시	여성복지과		○	●		직접
경산시	여성복지	무응답	*			
군위군	여성복지	계획 중	×			
의성군	여성복지	현재 없음	×			
청송군	여성복지		○	●	자원봉사 자매결연	
영양군	여성복지	현재 없음	×			
영덕군	여성복지		○	●	자원봉사센터	
청도군	여성복지		○	●	여성단체협의회	
고령군	여성복지		○	●		직접
성주군	여성복지		○	●		직접
칠곡군	여성복지		○	●	교육문화복지회관	
예천군	여성복지		○	●	여성복지회관	

시/군	담당부서	비 고	지원 정책 유무	◆위탁 ●직영	직영명/위탁기관명	지자체
봉화군	여성복지		○	●		직접
울진군		무응답	*			
울릉군		무응답	*			
경남 여성정책담당						
창원시	여성아동과		○	●		직접
마산시	여성청소년과		○	●		직접
진주시	가정복지과		○	◆	이민자지원센터 (YWCA안예있음)	
진해시	사회복지과		○	◆	가정폭력상담소 (9월예정)	
통영시	사회복지과		○	◆	가정폭력상담소	
사천시	사회복지과		○	◆	여성단체협의회 농업기술센터	
김해시	여성아동과		○	◆	이민자가정 지원센터	
밀양시	사회복지과		○	◆	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 가정폭력상담소	
거제시	사회복지과		○	◆	성폭력상담소	
양산시	사회복지과		○	◆	여성단체협의회	
의령군	사회복지과		○	●		직접
함안군		무응답	*			
창녕군	사회복지과		○	●	여성단체협의회	직접
고성군	사회복지과		○	◆	가정폭력상담소	
남해군	사회복지과		○	● ◆	한글교실직접운영 여성의 전화(강사만 위탁)	
하동군	복지위생과		○	●		직접
산청군	복지환경과		○	● ◆	강사초빙 여성단체협의회 가정폭력상담소	
함양군	사회복지과		○	◆	함양시민연대 밀알공부방 한빛공부방 우리글깨우치기 함양가정교회	
거창군	사회복지과		○	◆	YWCA	
합천군	사회복지과	무응답	*			
전북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전주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시	여성복지과 생활지도담당, 농업기술센터 외국여성담당도 있음		○	●	도에서 도비 400만원 생활기술	

시/군	담당부서	비 고	지원 정책 유무	◆위탁 ●직영	직영명/위탁기관명	지자체
익산시	가정복지과		○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읍시	사회복지과		○	●		직접
남원시	사회복지과 여성업무계		○	◆	남원결혼이민자센터 (원불교)	
김제시	사회복지과 여성담당		○	◆	센터	
완주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농업기술센터		○	●	도지원비, 여성단체 10개소 중 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지원할 계획	
진안군	주민복지과		○	●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예산 등	
무주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여성복지회관 (원불교)	
장수군	주민복지과 여성복지 담당		○	◆	호남사회연구회,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임실군	주민복지과		○	● ◆	청소년상담실 농민여성회 농촌지도소	
순창군	장수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전북대학교 음성과학연구소	
고창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참사랑봉사단	
부안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종합사회복지관	
전남						
목포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부서		○	◆	이주여성상담센터	
여수시	환경복지국 여성정책과		○	●	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시	복지여성과 여성복지담당		○	◆	인력개발센터(YWCA)에 서 요리, 보육, 의류수선, 자활능력, 기술 지도, 외국인학교에서 한글교육2개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 ◆	개인적으로 지원, 외국인이주여성대상, 영농정착지원사업실시 나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광양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	적응교육, 한글 문화센터에서	
담양군	사회복지팀		○	●		직접
곡성군	사회복지과		○	◆	군에서 주도하여 단체들로 지역협의회구성	
구례군	장수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여성단체	
고흥군	사회복지과		○	◆		

시/군	담당부서	비 고	지원 정책 유무	◆위탁 ●직영	직영명/위탁기관명	지자체
보성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	● ◆	천주교 보성성당	
화순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	한글문화예절교육 중부교회, 은누리교회 우리춤체조, 요리교실	
장흥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들자 종교재단	
강진군	사회복지과		○	● ◆	성요셉여고 (연계)	
해남군	사회복지과		○	● ◆	여성회관 매주2회 결혼이민자연대	
영암군	사회복지과		○	● ◆	이주여성센터	
무안군	사회복지과		○	◆	청계어린이집	
함평군	사회경제과 여성복지담당		○	●		직접
영광군	사회복지과		○	●		직접
장성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직접
완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		직접
진도군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		직접
신안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직접

<표 6-5>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의 종류

시군	교육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자료 제공 직접● 여가부◆	자료 기타
	한글	문화	요리	부부교육	자녀양육	컴퓨터				
강원도										
강릉시	×	×	×	×	×	×	만남의 날 문화탐방	시청직원	●	
원주시	○	×	○	○	×	○	컴퓨터교실 문화탐방 탁아교실 가요교실	여성결혼이민자 센터	●◆	
태백시	○	○	○	×	×	×		가정폭력상담소	◆	외부강사자체
동해시	○	×	×	×	×	×	출산비지원 생활교육 결연사업	자원봉사자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고성군	○	×	×	×	×	×	문화유적탐방 결혼사업 양모양녀만남의 날 외국인주부소모임육성	한글은 강사위촉 그 외 사업 직접	●◆	
양구군	○	×	○	×	×	×	전통문화교육	외부 강사섭외		
양양군	○	×	×	×	×	×	친정보내주기 기념일 기념품 지급 간담회	한글교육은 자원봉사자, 나머지는 직접	●	
영월군	○	×	×	×	×	×		외부강사		강사재량수업
정선군	×	×	×	×	×	×	외국인주부만남의 날 친정방문 지원	직접		자료필요없음
철원군	×	×	×	×	×	×	친정보내주기사업			
홍천군	○	×	×	×	×	×		자원봉사자	◆	시중판매교재
화천군	○	○	○	×	○	×	디딤돌교실에서 한글, 생활법률/ 이민자녀방과후 학습지도는 화천읍 자원봉사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요리	시청직원	◆	
횡성군	○	○	×	×	×	×	연수회개최 가족교육 미취학 자녀양육비지원	중학교 교사	◆	강사자체
평창군	○	×	×	×	×	×	체육대회	잘모름 위탁하므로	●	도에서 주는 것
경기도										
광주시	○	×	×	×	×	×		자원봉사자, 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에 나온교재
동두천시	○	○	×	×	×	×	없음	불현동 주민자치센터 /외부강사채용	◆	
성남시	○	×	○	×	×	×	사회적응훈련	행정공무원		
안양시	○	×	×	×	×	×	없음	외부강사		시중교재
용인시	○	×	×	×	×	×	없음	시자체 운영, 외부강사(교사)	◆	

시군	교육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자료 제공 직접● 여가부◆	자료 기타
	한글	문화	요리	부부교육	자녀양육	컴퓨터				
이천시	○	×	×	×	×	○	컴퓨터교육	주민자치센터, 남현로타리클럽, 평생학습과가 같이 운영, 외부강사		
화성시	○	×	×	×	×	×	부부상담	건강가정사	◆	
수원시	○	×	×	×	×	×		수원대 기존선생님, 대학강사, 교감, 교장,	◆	
안산시	○	○	○	○	○	×	코시안정체성교육 고충심리교육, 소외현상극복프로그램	안산이주여성상 담소		
안성시	○	×	○	×	×	×	전통문화교실	복지관 외부강사	◆	
파주시	○	×	×	×	×	×	도예체험	외부강사채용		강사직접
양평군	○	○	○	×	×	×		여성회관 외부강사	◆	
연천군	○	×	×	×	×	×	없음	교사는 도에서 지원 외국인복지재단	◆	
경상남도										
하동군	×	×	×	×	×	×		진행강사초빙 외부강사		자료필요없음
거제시	○	○	○	×	×	×		외부강사	◆	
통영시	○	○	○	○	×	×	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소직원	●◆	
밀양시	○	○	×	×	×	×		복지관에서 외부강사	●◆	
사천시	○	○	○	×	×	×	가족상담	외부강사초빙	◆	
양산시	○	○	○	×	×	×		양산대학 교수		직접
진주시	○	○	○	×	×	×		자격증 소지자	●◆	
진해시	○	○	×	×	×	×		상담전문가	●◆	
거창군	○	×	×	×	×	×	가족캠프 건강가정활성화	YWCA직원	◆	
고성군	○	×	×	×	×	×	도자기문화체험	상담소 자원봉사자, 직원	●◆	도에서 자료제공
창녕군	○	×	○	○	×	×		창녕이주지원센터 외부강사	◆	
함양군	○	○	×	×	×	×		단체자체운영, 자원봉사	●◆	
의령군	○	×	×	×	×	×		외부강사	◆	
남해군	○	×	×	×	×	×		외부강사	◆	
산청군	○	○	○	○	×	×		외부강사	◆	강사준비
경상북도										
경주시	○	○	○	×	×	×		경북여성개발원 초빙, 자체	●◆	

시군	교육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자료 제공 직접● 여가부◆	자료 기타
	한글	문화	요리	부부교육	자녀양육	컴퓨터				
김천시	○	○	×	×	×	×		한국어학당강사 , 자체강사, 대구경북연구원 여성정책개발센터 지원 강사		한국어학당
문경시	○	○	×	×	×	×		외부강사	◆	
상주시	○	×	×	×	×	×	가족과 성 미술	교사출신선생님 으로 강사위촉	◆	
안동시	○	×	○	×	×	○	컴퓨터교육	외부전문가 대경연구원		대경연구원
영주시	○	×	×	×	×	×		전문강사초빙	●◆	
영천시	○	×	○	×	×	×		한국어전문강사 , 요리강사, 미술치료사		경북여성정책 개발센터 대경연구원 제작
포항시	○	○	×	×	×	×		사회복지사, 공무원, 외부강사	●	
고령군	○	○	○	×	×	×		외부강사		여성정책개발 센터
성주군	○	×	×	×	×	×		여성단체협의회 에 보조급 지급	◆	
영덕군	○	○	×	×	×	×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	
예천군	○	×	×	×	×	×		대구경북연구원 에서 파견	◆	
청도군	×	×	×	×	×	×	간담회	가족관계 박사 레크레이션강사	●	
청송군	×	○	×	×	×	×		군청직원		인근예절학교 강사 초빙
칠곡군	○	○	×	×	×	×		외부강사	●◆	
봉화군	○	×	○	×	×	○	컴퓨터 상담 가족과 성 미술치료			외부강사
전라남도										
광양시	○	×	○	×	×	○	정보화교육 적응교육 현장교육	강사초빙	●	
여수시	○	×	○	×	×	○	컴퓨터교육	강사초빙	●◆	정보통신과 교재
목포시	○	○	○	×	×	×		자원봉사		모름
나주시	○	○	○	×	○	×	꽃꽂이 간병인교육 요가 취업교육	사회복지사	●	
군산시	×	○	○	×	×	×	건강관리	전문강사		

시군	교육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자료 제공 직접● 여기부◆	자료 기타
	한글	문화	요리	부부 교육	자녀 양육	컴퓨터				
고흥군	○	×	×	×	×	×	여성생활대학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캠프	전문강사		여성회관
담양군	○	○	○	×	○	×	국내연수 자조모임	강사, 자원봉사	●◆	
신안군	×	×	×	×	×	×	문화체험 공동체교육	강사초빙	●	
영광군	×	○	×	×	×	×		강사섭외		
완도군	○	×	×	×	×	○	컴퓨터교육	강사초빙	●◆	
장성군	○	○	×	×	×	×	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사회복지사	●	
함평군	○	○	○	×	×			강사섭외	●◆	
곡성군	○	○	○	×	×	×	문화체험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대학교수, 원어민인력강사 언어교육원에 위탁		
구례군	○	×	×	×	×	×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	농정기회계에 서 추진
무안군	○	×	×	×	×	×		자원봉사자, 위탁어린이집원 장님	◆	
순천시	○	×	○	×	○	×	전통문화 의류수선 상담 자활능력 기술	자원봉사,상담 전문가, 전문강사초빙, 대학교수	●◆	중급은 초등학교 교재로 응용
강진군	○	×	○	×	○	×	출산가사돌보기 스포츠활동 멘토링 생활담당교육	자원봉사자, 여고선생님	●◆	
보성군	○	×	×	×	×	×		국제이주여성센 터에서 활동했던 분이 운영	●◆	
영암군	○	○	○	○	○	×		자원봉사자	●	
장흥군	○	○	○	×	○	×	우리춤 체조	자원봉사, 대학강사, 교사, 전문가 등		도에서
해남군	○	○	×	×	×	×		자원봉사, 학원강사, 학교선생님	●	
화순군	○	○	○	×	×	○	컴퓨터 종이접기	자원봉사, 강사	●	
완주군	×	○	×	×	×	×	천연염색체험	강사	●	
전라북도										
김제시	○	×	○	×	×	×	한국문화체험 상담 한마당잔치	쉼터 소장님	◆	

시군	교육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자료 제공 직접● 여가부◆	자료 기타
	한글	문화	요리	부부교육	자녀양육	컴퓨터				
정읍시	○	○	○	×	×	×	문화유적지 가족한마당	프로그램마다 전문가 초빙	●	
전주시	○	○	×	×	×	○	문화체험 정보화교육 멘토링	강사초빙	●	
익산시	○	○	×	×	×	×		대학원생, 교수진, 학교퇴직자	●◆	
진안군	○	○	○	×	×	×	외국인한마당잔치 문화반운영 문화체험교육 (기술센터)	사회복지사, 강사초빙	●◆	
고창군	○	○	○	×	○	×	전통놀이 영화관람	초등학교교사, 외부전문강사초 빙		
무주군	○	×	×	×	×	○	컴퓨터 사회적응	강사초빙, 복지관내강사, 전직교사		도에서한글 교재
부안군	○	○	○	×	○	○	컴퓨터 교육	사회복지사	●	
순창군	○	×	○	×	×	×	발육상태 건강상태	대학원생, 대학교수와 대학생	●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제작
장수군	○	○	×	○	○	×	취업지원	강사섭외	●◆	
임실군	○	○	×	×	×	×		강사초빙	●	
충청남도										
천안시	○	○	×	×	○	×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센터)	전문강사		사업따라 다름
계룡시	○	×	×	×	×	×	자조집단육성 가족상담	외부강사	●◆	
공주시	○	○	○	×	×	×		사회복지사	●	
논산시	○	○	○	○	○	×		자원봉사자	●◆	
서산시	×	×	×	×	×	×	여행	회원들과 함께	●	협의회에서 직접
아산시	○	○	×	×	×	×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복지관련전문가	◆	
부여군	○	○	×	×	×	×		외부강사	◆	
태안군	○	○	○	×	○	×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상담	●	
홍성군	○	○	○	×	○	×	견학 친정어머니결연	모름		
당진군	○	×	○	×	×	×	정신치료	문화원직원	모름	
서천군	○	○	×	×	×	×		자원봉사자, 학습지교사	●	
연기군	○	○	○	×	×	×				
청양군	○	○	○	×	×	×	견학	일반직원	●	

시군	교육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자료 제공 직접● 여가부◆	자료 기타
	한 글	문 화	요 리	부 부 체 육	자 녀 양 육	컴 퓨 터				
충청북도										
제천시	○	×	×	×	×	×	유적탐방	자원봉사자	◆	자체제작
청주시	×	×	×	×	×	×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외부강사	●	
충주시	○	○	○	×	×	×	컴퓨터교육	자원봉사자	◆	시종교재, 자원봉사선 생님이 선택
보은군	○	×	×	×	×	×		외부강사	◆	
괴산군	○	○	×	×	×	×	자녀언어교육	위탁기관 위임		위탁기관
영동군	○	×	○	×	×	○	컴퓨터	자원봉사자	●	위탁기관
증평군	○	×	○	×	×	×		외부강사(여성 단체협의회)	◆	요리는 자체제작
청원군	○	×	×	×	×	×		외부강사(여성 단체협의회)	◆	강사제작
단양군	○	○	○	×	×	×		자원봉사자, 상담전문가	●◆	
합계	102	55	50	6	13	12				

<표 6-6>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참가 현황

시 군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기타국가	참가자 인원
강원						
강릉시	×	○	○	○		70(가족포함)명
원주시	○	○	○	○		50명
태백시	○	○	○	○	우즈벡	25명
동해시	○	○	○	○		20명(한글), 결연가족14가족
고성군	○	○	○	○	타이완, 몽골	99명
양구군	×	○	○	○		20(한글)명, 20(요리)명
양양군	○	○	○	○		
영월군	○	×	○	○		10명
정선군	○	○	○	○	태국, 말레이시아	36명
철원군	×	○	×	○	카자흐스탄	7가족
홍천군	○	○	×	×		10명
화천군	○	○	○	○	우즈벡	15명
횡성군	○	○	○	○	몽골, 태국, 우즈벡, 카자흐스탄	143명
평창군	○	×	×	○		15명(한글), 300(체육대회)명
경기						
광주시	○	×	×	○		15명
동두천시	○	○	×	○	캄보디아	21명
성남시	○	○	×	○		20명
안양시	○	○	×	○		35명
용인시	○	○	○	○		30~40명
이천시	○	×	×	○		50~60명
화성시	○	○	×	×	태국	80명(한글), 90명(부부상담)
수원시	○	○	○	○	태국	30명
안산시	○	○	×	○	태국, 러시아, 몽골	300명
안성시	○	○	×	○	호주	36명
파주시	○	×	×	○		7가족
양평군	○	×	×	○		32명
연천군	○	○	×	○		10명
경남						
거제시	○	○	○	○	우즈벡	60명
밀양시	○	×	×	○		20명
사천시	○	×	○	○		40명
양산시	○	○	○	○	태국	26명
진주시	○	○	×	○	인도네시아	50명

시 군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기타국가	참가자 인원
진해시	○	○	○	○	러시아	15명
통영시	○	○	○	○	다양하게 많음	70명
하동군	○	○	×	○		80명(가족포함)
거창군	○	×	×	×		50명
고성군	○	○	○	○		42명
창녕군	○	×	○	○		36명
함양군	○	○	○	○		80명
의령군	○	○	○	○		40명
남해군	○	○	○	○		30명
산청군	○	○	○	○		20명
경북						
경주시	○	×	×	×		30명
김천시	○	×	○	○	태국	30명
문경시	○	○	○	○		40명
상주시	○	○	×	○	태국	30명
안동시	○	○	○	○		80명
영주시	○	×	×	○		30명
영천시	○	○	○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25명
포항시	○	×	×	○		130명
성주군	○	○	○	×	태국	40명
고령군	×	○	○	○	몽골, 태국	24명
영덕군	○	×	○	○		20명
예천군	○	○	○	○	태국	40명
청도군	○	○	○	○		23가족 46명
청송군	○	×	○	○		27명
칠곡군	○	○	○	○		17명
봉화군	○	○	○	○	태국	28명
전남						
광양시	○	○	○	○		60명
여수시	×	○	○	○	우즈벡, 몽골	50명
목포시	○	○		○	태국	100명
순천시	○	○	○	○	몽골, 태국	100명
나주시	○	×	○	○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벡	30명
고흥군	○	○	○	○	태국, 대만	20명
담양군	○	○	×	○	태국	30명
신안군	○	○	○	○		60명

시 군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기타국가	참가자 인원
영광군	○	○	○	○	대만, 우즈벡, 태국	30명
완도군	○	○	○	○	태국	30명
장성군	○	○	○	○	몽골	30명
함평군	○	○	○	○		25명
곡성군	○	○	○	○	다양	60명(교실), 98가족(문화체험)
구례군	○	○	○	○	태국	60명
무안군		○	○	○	태국	30명
강진군	○	○		○	다양함	30명
보성군	○	×	○	○	태국, 우즈벡	29명
영암군	×	○	○	○		30명
장흥군	○	○	○	○		60명
해남군	○	○	○	○		30명
화순군	○	○	○	○	태국, 러시아, 우즈벡 말레이시아	30명
전북						
군산시	○	○	×	○	우즈벡	50명
정읍시	○	○	○	○		50명
김제시	×	×	×	○		50명
익산시	○	○	×	○		60명
전주시	○	○	○	○	우즈벡	664명(가족포함)
완주군	○	○	×	○		90명
진안군	○	×	×	○		50명
고창군	○	○	○	○		50명
무주군	○	○	○	○		50명
부안군	○	○	○	○		40명
순창군	○	×	○	○	몽골,태국	70명
장수군	○	○	○	○	말레이시아	48명
임실군	○	○	○	○		90명
충남						
계룡시	×	○	○	○	태국, 우크라이나	60명
공주시	○	○	×	○	대만	40가족
논산시	○	○	○	○		30명
서산시	○	○	○	○		40명
천안시	○	○	○	○	태국, 몽골, 러시아, 우즈벡, 캄보디아	모름
아산시	×	○	×	×		55명
부여군	×	○	○	○		40명

시 군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기타국가	참가자 인원
태안군	○	○	○	○		모름
홍성군	○	○	○	○		모름
당진군	○	○	○	○	태국, 싱가포르	40명
서천군	○	○	○	○		40명
연기군	○	○	○	○	몽골,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청양군	×	×	○	○		20명
총복						
청주시	×	○	○	○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30명
충주시	○	○	○	○	러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42명
제천시	○	○	○	○		30~40명
보은군	○	×	×	×		40명
괴산군	○	×	○	○	몽골	20명
영동군	○	○	○	○	우즈베키스탄	100명
증평군	×	○	○	○		10명
청원군	○	○	○	○	우즈벡, 태국몽골	30명
단양군	○	○	×	○		15명(한글) 20명(요리), 18명(멘토링)
합 계	98	88	78	105		

<표6-7> 민간단체 현황

시 군	지자체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
경기	
수원시	YWCA외국인노동자센터, 엠마우스, 수원여성의, 전화
성남시	외국인노동자의 집(한글교육)
부천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한글, 예절교육실시
안양시	전진상복지관
광명시	YWCA-외국인한글교육, 광명복지관(시에서 운영안함)에서 이민자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은 없으나 내국인교육에 참여하는 외국인 있음
시흥시	시흥시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이주노동자지원센터
군포시	한우리나눔의집(한글컴퓨터, 정통부지원), 이주노동자센터
이천시	남현로타리클럽
김포시	외국인노동자단위 교회로 실행
광주시	외국인노동자센터(한글교육)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회관, 다솜교회-이주노동자센터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복지센터(한국어교육)
파주시	아시아의 친구들, 한글교육문화, 성폭력상담소-뜰
구리시	구리천주교이주센터, 구리가정교회(통일교), 구리시인창도서관
강원	
춘천시	홀터(문화탐방,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사람 참여), 평생교육원(한국어교육)
강릉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릉문화원, 강릉YWCA, 강릉여성유도회, 가족성폭력상담소
횡성군	여성단체협의회 1년에 1회 탐방프로그램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한글교육
양양군	자원봉사 한국어교육 군청에서 보조금 지원
충북	
청주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센터 등 도에서 지원받아 운영
옥천군	한국어학당
충남	
서천군	통일교
홍성군	문화관광부지원 사회복지관 YMCA
태안군	도서관
경북	
경주시	양북면새마을부녀회
경남	
진주시	있으나 파악 하지 못함

시 군	지자체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
통영시	YWCA
사천시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거제시	거제YWCA
양산시	노동사무소, 매주1회 한글교육
남해군	남해문화원
함양군	자체적으로 하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없음
전북	
전주시	사회단체, 아시아인권지원센터
군산시	건강한 가정을 생각하는 모임(한글교육)
익산시	공식적으로 없음, 지원체계가 없음, 주민자치센터, 일부단체, 초등학교단체
김제시	센터
진안군	민간단체한국적응지원프로그램(국비지원), 새마을지회
무주군	농협, 사회자선단체(무주의무회)
부안군	도에서 보조하여 문화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남	
목포시	사회단체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악안됨
여수시	YWCA
순천시	순천대 한글교육
나주시	나주도서관, 나주상담센터
광양시	교회
곡성군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원 가능
고흥군	교회의 한글교육, 농업기술센터 이민자 가족지원프로그램
보성군	여러 여성단체의 1회성 행사, 문화유적탐방 등
화순군	적십자
해남군	교회
무안군	민간기관에서 한글교육 실시, 성폭력 상담센터
영광군	한글교육 여성상담센터, 천주교
완도군	각 단체별로 행사 농업기술센터는 음식교실, 대한적십자사 등
진도군	민간단체(한글교육) - 참여연대진도사랑, 종교단체는 교회 등

VII. 정부 지원정책 제언

1. 정책의 방향

1) 가족옹호적 정책을 실시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모든 정책은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건강한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세워졌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농촌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교육정책을 실시한다.

2) 여성의 인권존중 및 보호정책을 실시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별히 인권문제가 나타나기 쉬운 초기적응기 지원을 집중적으로 계획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초기 가정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장기 폭력에 대한 도피처 제공 정책을 실시한다.

3) 농촌인력 육성책을 실시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장래의 농촌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 사회에 적응하고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출산부터 양육과 보육, 교육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차세대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지원, 자녀학습지원, 자녀양육정보 제공,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제공,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영농활동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4) 다문화주의적 통합 정책을 실시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지역사회에 통

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한국사회 역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 적응지원 정책, 다문화주의 교육환경 조성정책, 사회교육환경 조성정책을 실시한다.

5)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을 실시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이 당면한 문제는 결혼 당사자와 이민자 가정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별히 국제관계문제와 국민의 복지문제가 만나는 결혼이민자가정의 지원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며, 각 부처간의 특성화된 정책개발과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은 도시지역과 달리 밀집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쉽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하고, 가사와 육아 및 영농활동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부족하다. 따라서 농촌지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반드시 직접 여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지원을 포함해야한다. 교육담당자나 상담자가 1:1로 이들을 찾아다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환경과 상황의 제약으로 소외되어 지금까지 서비스 수혜가 불가능했던 여성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가장 적합한 지원형태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방문도우미를 육성하고,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파악하여 지원을 실시할 경우, 교통편의 문제와 가사, 육아, 영농활동 등으로 인한 낮 시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관리한다.

현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에 대한 자격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 및 정책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는 교육담당자의 질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담당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등 강사의 자격증과 학력, 전공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체계적인 강사교육 및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결혼이민자이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특수한 집단에 대한 교육인 경우 강사들의 사전교육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강사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뒤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담당자의 자격관리는 시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교육프로그램 별로 교육담당자풀을 형성한 뒤 검증된 교육전문가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해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 관리자들은 반드시 현장 교육담당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은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원 사업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여 체계적인 교육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제안

이상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정책

(1)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① 결혼 초기 가정방문상담 및 생활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결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초기 6개월에는 생활지도 및 상담이 가능한 출신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담당공무원 또는 가정상담사가 함께 방문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초기 방문상담을 통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돕고,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지지를 제공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초기에 언어불통으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생활방식과 주거환경의 차이 등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초기 적응 시기에 출신국 선배 이민자들의 말 한마디와 음식 한 그릇은 신선하고 정겨운 선물이 된다. 또한 초기 방문상담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에서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예방하여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게

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문상담 또는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해야 한다.

③ 24시간 핫라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화상담에 대한 정보가 특별히 농촌지역 여성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4시간으로 운영되는 핫라인 번호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할 때 심사서류를 받으면서 알려주고, 이미 정착중인 여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실제로 폭력에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기 폭력에 대한 도피처 제공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도피처를 제공해야 한다.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에게는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가정에서 폭행과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도움을 청하거나 도피할 친정과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쉼터의 필요가 더 높다. 쉼터에서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의 회복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인 남편이나 시댁가족에 대한 개입도 병행해야 한다.

2)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

(1) 임신과 출산 지원

①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많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중등교육 이하의 교육을 받았으며 이 연구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학력에 대해 무응답 한 것으로 보아 무학력자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임신과 출산 및 아동발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가정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선경험자인 친정어머니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베트남 본국어와 한국어로 된 임신 출산 및 아동 발달 소책자를 배부하였는데, 베트남어 이외의 언어들로 된 책자도 추가로 발되어야하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을 고려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

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②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출산할 때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지원한다.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산모도우미 지원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모든 여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매우 적으므로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모자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 관련 지원은 농촌인구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파견된 산모도우미는 산모가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양모결연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결연을 맺은 양모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아기를 출산하였을 때 가정을 방문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자녀양육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자녀학습 지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을 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남편들이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자녀들의 학업수행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에서 거주하는 경우 농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더욱 자녀학습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녀학습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를 위한 공부방을 설치하고 운영해야한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6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공부방을 마련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경남 산청군은 조손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박씨고가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몇몇 시군단위에서도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자녀학습지원 사업을 평가하여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공부방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공부방과 차별화 한다.

첫째,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에게 필요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로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줄이고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등 단순한 학교 교과목 학습지원이 아닌 농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건강한 새세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부방의 주된 대상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지만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교육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단지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 지역의 불리한 교육환경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생태교육이나 지역사회연계교육과 같은 대안교육모델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에서만 가능한 특화된 교육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뜻있는 도시 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②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

한 장소에 모여야만 가능한 공부방 형태의 학습지원이 어려운 지역적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일대일 면대면 보충학습이 필요하나 사교육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의 경우 개별적으로 학습도우미를 파견해야 한다. 학습도우미는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의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고 대학에서는 이들이 자원봉사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자녀양육 정보 제공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는 자녀양육 지원제도에 관한 것과 자녀양육방법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자녀 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당 시군구 읍면 단위의 담당자들은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개별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화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② 자녀양육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진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되는 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녀건강, 교육, 보육, 훈육 등에 관한 정보를 여성들의 출신국 언어로 제작한 양육정보책자에 담아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양육정보책자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게 추가로 개발되어야 한다.

(4)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의 제공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고 현재 임신을 하고 있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들이 많아 곧 보육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촌 지역 보육수요자들의 경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 중심의 보육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으로는 베이비시터 파견, 소규모 놀이방의 운영, 교구와 활동재료가 구비된 이동식 차량 놀이방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지역상황에 맞는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5)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복지회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존 한글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현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국적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차이가 크며 따라서 자녀의 연령도 차이가 있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단계별에 따라 자녀의 발달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 및 양육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나누어 각 국 언어로 실시하여 각 발달단계별로 겪

을 수 있는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한국사회 적응 지원 정책

(1) 일상적 상담 체계 구축

일상적 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급상황에 도움을 주는 핫라인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적응상담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부부갈등이나 시댁가족과의 갈등, 생소한 한국 문화, 주변인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이로 인한 위축감, 불안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신국 언어로 개인상담을 제공하거나 집단 상담을 제공하여 무엇보다 초기 적응과정에서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출신국별 상담 도우미 확충

국가별 상담 도우미를 확충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초기에는 주변에 의사소통이 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나눌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출신국의 언어가 자유로운 선배도우미가 매주 1회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격일로 전화상담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결혼 초기 약 6개월 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 이 때 상담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 인력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험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선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인력풀을 형성하여 기초적인 상담훈련을 시키고 이들에게 소정의 교통비나 선물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4) 가족관계 교육 정책

(1) 부부관계 교육 제공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관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남성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 미혼남성들에게 국제결혼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남편들이 필수적으로 부부관계교육에 참여

하도록 하여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관계를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대방 국가의 문화,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 가정의 중요성, 성교육, 임신과 출산, 부부의사소통방법,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 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국적별 부부자조모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장소와 재정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고부관계 및 친척관계에 대한 교육 제공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고부관계 및 친척관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시댁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여성들은 시댁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잦은데 그 원인은 주로 가부장주의, 남성우월주의 등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해 소개하여 이것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화임을 알려주어야 가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부관계 및 친척관계에 대한 교육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관습과 전통가족생활문화, 존칭어 사용과 의사소통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대상교육 실시

시부모를 비롯한 함께 생활하는 가족대상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보다 시부모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키워가지 않도록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부모님을 대상으로 며느리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고 이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대상교육을 위해서는 각 지역 확대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배치된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5) 다문화주의 교육환경 조성 정책

(1) 다문화주의 교과과정 개발

유아와 저학년 아동을 위한 다문화주의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취학하는 숫자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

큼 학교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교재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반편견과 관련된 교육은 어린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및 방과후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 다문화주의 교과과정에는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반편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사대상 다문화주의 교육 실시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농촌지역 교사들에게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녀의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문제와 한국의 교육문화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과 평등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교사연수프로그램에 다문화주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교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다문화주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이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6) 사회교육환경조성 정책

(1)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행사와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국 여성들과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한국이웃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글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지만 가정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더욱 많다. 이들을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자센터,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면, 농촌지역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 여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므로 지역 읍, 면 단위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사, 마을 이장, 마을 부녀회, 여성 농민회 등 마을 사정을 잘 알고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한다.

(2) 반편견 사회 교육 실시

반편견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인종차별, 민족주의적, 편파적인 견해를 불식시키고 다문화적 사고와 체험을 강조하는 사회교육이 시급하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인종주의 같은 문화심리적인 경향이 있으며 후진국에 대한 극단적인 우월의식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국제결혼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의식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괴리된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평생교육기관에서 개발 및 실시하고, 방송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영농활동 지원 정책

(1)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전적으로 집안일과 농사일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교육을 제공하여 농촌사회 인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국어에 능숙한 경우, 본국에서 익힌 기술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미용기술, 제과제빵, 옷수선 등 여성들이 훈련을 받아 실생활에 도움을 받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취업교육을 제공해야 하겠다.

(2) 체계적인 취업정보 제공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직업을 안내해 주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회관 등 여성들이 쉽게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배치가 필요하다.

(3) 영농교육 실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영농교육을 원하는 경우 대부분 현재 농사를 짓는 작물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원했다. 또한 농사일을 전담하는 여성은 매우 소수이며 농사일에 참여하는 경우 남편의

농사일을 돕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로 밭작물, 하우스재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지속적인 영농참여율을 높이고 국제결혼가정이 농업에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가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배기술을 제공하여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우스재배법의 경우 특별히 무농약 또는 유기농 재배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재배에 관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버섯이나 소를 키우는 경우 이미 큰 규모로 영농사업을 실시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영농활동과 관련된 견학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혼자서 또는 여성들끼리 교육받기 보다는 경력이 많고 현재 영농을 전담하는 남편과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요구도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농업기술교육을 진행해온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영농지원

농촌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지원을 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영농기술교육 이외의 실질적인 영농활동지원에 대한 필요 또한 높았다. 먼저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재의 영농형태를 전환하거나 규모를 확장할 경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품의 유통과 판매 등 개별 가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므로, 영농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지역단위 영농공동체 조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지원하여 이민자가정의 영농활동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정책

(1) 업체 신고제를 인가제로 변경

국제결혼 관련 업체 신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제결혼 관련 업체는 법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신고제를 따른다. 근래에 130여개의 국제결혼 업체가 협회를 조직해서 자발적으로 자정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관심이 있을 뿐 국제결혼의 질적인 향상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인가제로 바꾸고,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업체 종사자 자격기준을 마련

결혼중개업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제결혼 관련 업체의 인력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국제결혼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업체 종사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요구된다. 대표자 자격요건으로 학력 및 경력을 제한하고, 전과를 조사해 업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후 상담 인력의 자격으로는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및 외국어 능력 등이 있을 수 있다.

9) 출입국관리 업무체계의 강화 정책

(1) 결혼이민관련업무의 효율화

출입국관리국에서 진행하는 국내 배우자의 국제결혼 부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현재 현지에서 결혼한 여성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결혼이민관련 출입국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밀입국자 색출 및 관리

밀입국자에 대한 색출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최근 해상으로 입국한 베트남, 중국 등의 밀입국 남성들이 폭력 및 국제 사기단을 조직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업체의 정보가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을 보호하고 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밀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광주여성발전센터(2003). 외국인 주부 실태조사. 광주여성발전센터 발행 자료집. 미간행.
- 국가인권위원회(2004). 외국인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2002). 국제결혼 현황과 국적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I.
- 김민정(2003).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초국가시대의 정체성: 새로운 경계 만들기.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김숙자·강유진(1998). 한·중 국제혼인실태와 그 가족복지: 한국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혼인 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중 국제혼인 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 제11회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미간행.
- 김엘림·오정진(2001).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란(2005).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연구. 이주여성의 삶을 통해서 본 공존과 상생의 문화. 제13회 서울여성포럼 자료집. 서울: 서울여성.
- 김정선(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 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국가횡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김애령(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대전: 충남도청.
- 농촌진흥청(2005). 농촌생활지표.
- 도중진(2005). 국가 간 인적교류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제인적교류지원을 위한 세미나, 2005. 5. 25.
- 민가영(2004). 로컬 가부장제와 글로벌 자본의 충돌과 공모: 중국 조선족 공

- 동체 해체 주범으로 재현되는 중국 조선족 ‘여성 유실’ 을 중심으로. 국가횡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종삼(1982).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승전대학교 논문집, 12: 99-136.
- 법무부·출입국정책추진단(2005). 이민행정, 진단과 과제.
- 법무부(2005). 출입국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석원정(2004).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여성과 이주 현실.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 본회 10주년 및 여성주간 기념 이주여성문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집. 미간행.
- 설동훈(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1). 아시아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 민간포럼. 2001. 12.12-14.
- _____ (2005). 다문화사회에서의 공존. 국제인적교류지원을 위한 세미나, 2005. 5. 25.
- 성지혜(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국군인 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명기(2001).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겨울호:12-35.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 2004. 10.
- 위훤(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쉼터)(2003). 국가인권회 주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미간행.

- 이규용(2005).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고용허가제 1주년 기념세미나.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2005. 8. 9.
- 이금연(2001).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2001. 12.12-14.
- _____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미간행.
- 이혜경(2004). 국가간 노동이주와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가족과 차이.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인봉숙(2001). 한일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제레미 리프킨(2005). *유리피안 드림*. 서울:민음사.
-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재희(2005) 국가 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 국제인적교류지원을 위한 세미나, 2005. 5. 25.
- 최근정(2003).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운동팀 강연회 자료집. 미간행.
- 한주연(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Eriksen, T. H.(1993). Ethnicity and nationalism.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Pluto Press. Hammer, T.(1985). *European*

- Immigration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B. L. C. (1972).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53(5): 273-279.
- _____ (1977).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n shadows, *Amerasia Journal*, 4(1):91-115.
- Lee, H. K.(2003). Gender, migration and civil activism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2(1-2):127-153.
- Lee, D. B.(1981).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arch findings. A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 O'Rourke, K.(2002). To have and to hold: a postmodern feminist response to the mail-order bride industry.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30(4):476-497
- Perez, B. E. (2003). Woman warrior meets mail-order bride: Finding an Asian American voice in the women's movem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211-236.
- Piper, N.(1997).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 4(3): 321-338.
- _____ & Roces, M.(ed.)(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Inc.
- Schaeffer-Grabiell,F.(2003). Cyber-brid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ransnational imaginaries, migration, and the intimate economy of marriage. Ph.D. Dissertation, Americ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nnesota.
- Simons, L. A.(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ional femin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Thai, H. C.(2002). Clashing dreams: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B. Dhrenreich & A. R. Hochschild(Ed.). In *Global*

-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pp. 230-253).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Truong, T. D.(1995). Gende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research and net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International Female Migration and Japan: Networking, Settlement and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eiji Gakuin University, Tokyo, Japan.
- Vermeulen. H(ed.). (1997). *Immigrant Policy for a Multicultural Society*. Migration Policy Group.
- Walby, S.(1990). *Theorizing Patriarchy*. Oxford: Blackwell.
- Yoo, C. I.(1993). Life histories of two Korean women who American GIs.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Yu, K.(2001). In the business of cultural reproduc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4(2):199-210.
- Yuh, J. Y.(2002).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2006년 4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도자료.
- 2006년 2월 16일, 27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2006년 4월 24일. 제256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
- 2006년 5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아내용

자료번호:

--	--	--	--	--

질 문 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결혼을 한 농촌 여성들의 적응을 돕고자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귀하의 전반적인 한국결혼생활 적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지에는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며 본 연구의 자료로서 통계수치로만 발표될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셔야 현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ysh@snu.ac.kr

전화 82-2-880-5765, 5767

A. 국제결혼과정

1. 귀하는 현재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
1) 부모, 형제의 소개로 2) 친구의 소개로 3)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4) 종교단체의 소개 5) 기타 ()
2. 귀하는 현재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남편과 몇 번 만났습니까? ()
1) 한 번도 만난 적 없음 2) 1~2번 3) 3~4번 4) 5~9번 5) 10번 이상
3. 맞선/소개받은 후 결혼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
1) 1-3일 2) 1주일 3) 한 달 4) 한 달-6개월 5) 6개월 이상
4. 귀하가 다른 나라 사람보다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 2순위____)
1) 현재의 남편을 사랑해서 2)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3)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4)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5)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6) 종교적인 이유로
7) 기타 ()
5. 귀하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나를 사랑해 줄 것인지
2)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나를 고생시키지 않고 살게 해 줄 것인지
3) 친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4)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허용해 줄 것인지
5) 기타 ()
6. 귀하가 결혼을 결정할 때 제공받았던 남편에 대한 정보가 결혼 후 실제 사실과 일치하였습니까? ()
1) 일치했다. (☞ 7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약간 달랐다. 3) 전혀 달랐다.

6-1. 결혼 후 알고 보니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다른 점을 모두 고르세요. ()
1) 남편의 직업 2) 남편의 학력 3) 남편의 소득수준 4) 남편의 가족관계
5) 남편의 건강상태 및 장애여부 6) 남편의 성격 7) 기타 ()

7. 귀하나 남편이 서로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 1) 없다. 2) 있다. (_____ 원)
 남편: 1) 없다. 2) 있다. (_____ 원)
8. 한국에 오기 전, 귀하는 본국에서 어떤 지역에 살았습니까?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4) 기타 ()
9. 본국에서 귀하가 주로 하던 일은? ()
 1) 가사일 2) 영농일 3) 공장일 4) 기타 ()
- 9-1. 농사일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하였습니까?
 (_____)
10.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 11번 문항으로 가세요)
- 10-1. 한글교육을 받은 총 기간과 횟수, 1회당 시간을 적어주세요.
 예) 3달 동안 1주일에 3회, 회당 3시간
 (_____)
- 10-2. 한글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1) 혼자서 2) 학교/학원 강의
 3)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의 4) 기타 ()
- 10-3. 본국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것이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그저 그렇다.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11. 한글교육 이외에, 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다른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적이 없다 2) 문화예절 3) 생활정보
 4) 출산과 육아 5) 기타 ()

B. 친정 가족과의 관계

1. 본국의 부모님께서서는 귀하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딸이 고생을 덜 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신다.
 - 2) 딸이 잘 살아서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기뻐하신다.
 - 3) 딸이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할까 걱정하신다.
 - 4) 처음에는 못 마땅하게 생각하셨으나 현재는 받아들이신다.

2. 귀하는 결혼 후 본국에 총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 1) 없다
 - 2) 있다 ☞ 총 번

3.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2) 있다 ☞ 총 번

4. 시댁 식구들이 본국에 가서 친정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2) 있다 ☞ 총 번 (누가: _____ 언제: _____)

- 4-1. 친정가족을 만난 후로 시댁식구들이 귀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
 - 1) 좋아졌다.
 - 2) 변화 없다.
 - 3) 더 나빠졌다.

5. 본국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드리지 못하였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 2) 드린 적이 있다.
 - 5-1. 본국 부모님들에게 어떤 형태로 경제적 도움을 드렸습니까? 빈 칸에 금액이나 횟수를 적어주세요.
 - 1) 매월 생활비 _____ 만원
 - 2) 명절 때 _____ 회 총 _____ 만원
 - 3) 땅이나 소 등 영농자금 _____ 만원
 - 4) 친정 일이 생겨 특별히 경제적 도움을 요청 _____ 만원
 - 5) 기타 (_____)

6. 귀하는 본국에 있는 가족과 지난 1년 간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2회 3) 한 달에 1-2회 4) 2-3달에 1-2회
 5) 6개월에 1-2회 6) 1년에 1-2회 7) 전혀 하지 못했다.

C. 결혼생활

1. '귀하의 한국어 실력'과 '남편의 귀하 나라 말 실력'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능숙하다	약간 잘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나의 한국 말 실력	a.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b. 듣기	①	②	③	④	⑤
	c. 읽기	①	②	③	④	⑤
	d. 쓰기	①	②	③	④	⑤
남편의 내 나라 말 실력	e.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f. 듣기	①	②	③	④	⑤
	g. 읽기	①	②	③	④	⑤
	h. 쓰기	①	②	③	④	⑤

2. 남편과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1) 전혀 안 한다. 2) 거의 하지 않는다.
 3) 보통 정도로 한다. 4) 자주 하는 편이다.
3. 남편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 하십니까? ()
- 1) 하루일과 2) 시부모 및 직계가족(시누이, 삼촌, 동서 등)
 3) 자녀양육 및 교육 4) 친척 및 주변이웃사람들 5) 앞으로의 인생계획
 6) 가치관 7) 돈 관리 8) 취업
 9) 기타 ()
4. 남편이외에 현재 함께 사는 가족(시부모, 시누이 등)과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1) 전혀 안 한다. 2) 거의 하지 않는다.
 3) 보통 정도로 한다. 4) 자주 하는 편이다.

5. 남편 외에 현재 함께 사는 가족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 하십니까? ()
- 1) 하루일과 2) 가정 대소사(제사, 행사 등)
 3) 자녀 양육 및 교육 4) 친척 및 주변이웃사람들 5) 앞으로의 인생계획
 6) 가치관 7) 돈 관리 8) 기타 ()

6. 귀하의 남편은 다음의 가사 및 육아관련 일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하지 않는 다	거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자주 하는 편이 다	항상 한다
1	가사(식사준비, 시장보기, 빨래, 청소 등)	①	②	③	④	⑤
2	육아(자녀와 놀아주기, 돌보기, 숙제 도와주기 등)	①	②	③	④	⑤
3	모임참석(친척 길·홍사, 반상회나 주민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4	공공업무(구청, 은행 일 보기, 청구서 납부 등)	①	②	③	④	⑤

7.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 1) 한국문화 및 예절 2) 한국 생활(소비 등)
 3) 친족관계(시부모 봉양 등) 4) 전통의례(제사 등)
 5) 자녀양육 6) 음식 만들기
 7) 농사일 8) 농촌생활
 9) 가사노동(집안청소 및 빨래 등) 10) 기타 ()

8. 현재 결혼생활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입니까? ()
- 1) 별로 마음고생할 일이 없다. 2) 남편 3) 시부모
 4) 친인척(시누이, 시댁어른 등) 5) 기타 ()

9. 결혼해서 살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습니까? ()
- 1) 남편 2) 시부모 3) 시부모 이외의 시댁 식구
 4) 본국의 친정부모 및 가족 5) 이웃 6) 한국에 사는 본국 친구
 7) 기타 ()

10. <보기> 와 같이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귀하가 지원을 받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보 기】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그런 편이다	⑤ 항상 그렇다	

	내가 괴로울 때 위로해준다.					일이 있을 때 도와준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찾아오거나 연락(전화 등)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남편																-				
2) 시부모																				
3) 친구																				
4) 행정기관																				
5) 민간단체																				

11. 다음은 가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남편을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식을 위해서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귀하의 부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을 신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과 다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매우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그저 그렇다	약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1	가사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남편과 부인이 함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내의 직업은 남편의 직업과 똑같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거나 행동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기분이 울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낮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1) 거의 하지 않는다. 2) 1년에 1-2회 3) 6개월에 1-2회
4) 한 달에 1-2회 5) 일주일에 1-2회 이상

17. 귀하는 부부간의 불화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을 한 분만 골라주세요. ()

- 1) 친정 식구 · 친척 2) 시댁식구 · 친척 3) 본국인 친구
4) 한국인 이웃 · 친구 5) 제3국인 친구 6) 상담소 상담원
7) 종교단체 성직자 8) 시 · 군청 공무원 9) 기타 ()
10) 도움 받은 사람이 없다.

18. 다음 문항들을 읽고 지난 1년간 남편이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없음	1-2번	3-4번	5-9번	10번 이상
1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혔다	①	②	③	④	⑤
2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④	⑤
3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19번과 20번은 가정폭력을 경험하신 분만 대답하여 주십시오.

19.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모른다.
- 2) 상담 또는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를 안다.
- 3) 도와줄 단체를 찾아가는 방법을 안다.

20.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래의 해결방법 중 귀하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경찰에 신고했다.
- 2)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 3) 상담전화를 이용했다.
- 4) 기타 ()
- 5) 아무런 방법도 사용하지 못했다. (☞ 21번 문항으로 가세요)

20-1.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래의 방법들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해결방법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
1	경찰에 신고	①	②	③	④	⑤
2	상담소 방문 상담	①	②	③	④	⑤
3	상담전화 이용	①	②	③	④	⑤
4	기타()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의 문항 중 낯편이 귀하에게 한 적이 있는 행동들을 모두 골라서 적어주세요.
()

- 1) 생활비 또는 용돈을 주지 않았다.
- 2)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 3) 의처증(부인을 의심) 증세를 보였다.
- 4)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 5)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

22. 다음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귀하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다음의 행동들을 귀하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남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모욕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며칠간 남편과 말없이 지냈다.	①	②	③	④	⑤
4	앉아서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말로 상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23. 지난 1년간 귀하와 남편 사이에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 가장 큰 이유를 우선순위로 두 가지 적어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성격 2) 생활습관 3) 사고방식(가치관) 4) 건강
- 5) 대화(의사소통) 6) 부부간의 성생활 7) 애정이나 관심
- 8) 외도나 부정 9) 금전관리 및 소비 10) 가사노동 분담
- 11) 시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12) 자녀양육 및 교육
- 13) 사회적 활동(모임 참석, 종교 활동 등) 14) 취업 및 직업

24. 만약 본국에 있는 귀하의 주변사람들이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1) 적극적으로 말린다.
- 2) 약간 말린다.
- 3) 그저 지켜보겠다.
- 4) 약간 권장한다.
- 5)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25. 한국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인상은 한국에 오기 전과 비교할 때 결혼 후 어떻게 변했나요? ()

- 1) 매우 나빠졌다.
- 2) 조금 나빠졌다.
- 3) 예전과 비슷하다.
- 4) 조금 좋아졌다.
- 5) 매우 좋아졌다.

D. 자녀양육 및 교육

※ 1번과 2번은 취학전 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해주세요.

1. 귀하의 자녀는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
1) 국공립시설 2) 민간/사립 시설 3) 직장 보육시설
4) 교회 등의 종교기관 5) 기타 ()

2.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육시설/유치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2)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내기에 필요한 조건/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다.
3) 주변에 자녀에게 알맞은 보육시설/유치원이 없다.
4) 비용부담이 크다.
5) 기타 _____

※ 3번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분만 응답해주세요.

3. 현재 귀하의 자녀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습니까? ()
1) 다니지 않는다.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2) 다닌다.

- 3-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1)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2) 보육시설(어린이집) 방과후 프로그램
3) 사설학원(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4) 기타 ()

4. 귀하는 자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적응을 못하고 있다. 2) 별로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3)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 4)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5. 자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
1) 교사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2) 교사와 부모의 잦은 연락
3) 교사가 자녀와 학급친구들에게 귀하의 본국에 대해 소개
4) 자녀의 적응력 5) 자녀 적응을 위한 부모의 노력 6) 기타 ()

6. 자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귀하가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 ,)

- 1) 급간식 문제 2) 낮잠 3) 많은 준비물 4) 부모참여 행사
- 5) 기관의 규칙과 지시 6) 교육방식 7) 또래관계
- 8) 교사와의 관계 9)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 10) 학업문제 11) 의사소통문제 12) 기타 ()

7. 귀하는 자녀의 교사와 의사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

- 1) 전혀 못한다. 2) 별로 못한다. 3) 보통이다.
- 4) 잘하는 편이다. 5) 매우 잘 한다.

7-1. 자녀의 교사와 대화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1) 한국어를 잘 할 수가 없다.
- 2) 내가 바빠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다.
- 3) 교사가 바빠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다.
- 4) 교사가 나와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다.

7-2. 자녀의 교사와는 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

- 1) 교사가 가정으로 전화를 한다.
- 2) 교사가 편지나 알림장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
- 3) 등하원시간에 대화한다. 4) 따로 시간을 내어 교사를 찾아간다.
- 5) 내가 교사에게 전화를 한다. 6) 행사에 참석한다.
- 7) 남편이나 다른 가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8) 기타 ()

8. 또래에 비해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 1) 전혀 못 한다. 2) 별로 못 한다. 3) 보통이다.
- 4) 잘하는 편이다. 5) 매우 잘 한다.

9. 귀하의 자녀는 주로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니까? ()

- 1)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2) 한국인 부모 가정의 자녀
- 3) 구분 없이 모두와 잘 논다..

10. 귀하의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 1) 있다. 2) 없다. (☞ 11번 문항으로 가세요)

10-1.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외모가 달라서
- 2)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 3)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 4) 다른 아이들의 부모가 싫어하므로
- 5) 엄마가 외국사람이어서
- 6) 기타 ()

11.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

- 1) 건강하게 자라는 것
- 2) 공부 잘하는 것
- 3)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 4)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 5)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
- 6)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 7) 기타 ()

12. 귀하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장 관심을 두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 ,)

- 1) 식습관
- 2) 배변훈련
- 3) 건강과 안전사고
- 4) 친구관계
- 5) 가족 및 주변사람에 대한 예절
- 6) 학업성적
- 7) 언어발달
- 8) 훈육방법
- 9)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 10) 기타 ()

13.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 ,)

- 1)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 2) 지역에 자녀를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맡기기에 안심이 안 되어서
- 3)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문제
- 4)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
- 5) 성적 문제 및 학습부진
- 6)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등교거부, 친구관계에서 사회성 부족)
- 7)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공격성, 산만함, 거짓말, 도벽, 오락중독)
- 8)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 9) 기타()

14.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 ,)

- 1) 남편
- 2) 시부모님 및 친척
- 3) 주변의 본국출신 친구
- 4) 본국의 친정어머니
- 5) 보건소 직원/병원의 의사
- 6) 자녀의 교사
- 7) 상담기관/상담전화
- 8) TV, 라디오
- 9) 육아 서적 및 잡지
- 10) 인터넷
- 11) 기타 ()

15. 가정에서 남편 및 시부모님과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말을 다투거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다. (☞ 16번 문항으로 가세요) 2) 가끔 있다.
3) 종종 있다. 4) 매우 자주 있다

15-1. 자녀양육과 교육과 관련해 무엇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습니까? ()

- 1)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다른 가치관 및 방식 3) 자녀의 학업 및 학교성적
2) 자녀 사교육비 문제 5) 자녀와 교사의 관계
4) 자녀의 친구관계 7) 기타 ()
6) 자녀의 영양 및 건강문제

16. 귀하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도와주기를 바라십니까?

(_____)

17. 귀하는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

- 1) 거의 하지 않는다.
2) 이따금씩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3) 매일 조금씩 한다.
4) 자녀의 일상을 잘 알 만큼 충분히 많이 한다.
5) 너무 어려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없다.

17-1.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 무엇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비해 귀하의 한국어 능력이 미치지 못해
2) 시간이 없어서
3) 자녀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4) 기타 ()

18. 한달에 평균 자녀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만 0-2세 자녀 (원) 만 3~5세 자녀 (원)
초등학생자녀 (원) 중·고등학생 자녀 (원)

19. 귀하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

- 1) 책을 읽어준다.
- 2) 이런 저런 이야기(예: 학교생활, 친구관계)를 나눈다.
- 3) 자녀와 놀이, 게임, 운동 등을 한다.
- 4)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공부를 가르친다.
- 5) TV를 본다.
- 6) 가사일(식사준비, 집안청소 등)을 한다.
- 7) 기타 ()

20. 귀하는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십니까? ()

- 1) 예
- 2) 아니오 (☞ 21번 문항으로 가세요)

20-1. 귀하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1) 한국어 능력의 부족
- 2) 교과내용이 익숙하지 않음
- 3) 기타 ()

21. 귀하는 앞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영농일에 종사하기를 원하십니까? ()

- 1)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 2) 별로 원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조금 원한다.
- 5) 매우 원한다.

22. 다음은 귀하의 평상시 자녀양육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로 인해 부부는 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무래도 딸보다는 아들을 낳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부모나 남편의 자녀교육방식이 나와 다를 때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겠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잘못된 경우, 말로 타이른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잘한 경우, 칭찬을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잘못된 경우,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만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생활태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 이웃관계 및 농촌지역사회

- 귀하가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이웃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1-3명 3) 4-6명 4) 7-9명 5) 10명 이상
-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국인 이웃과 함께 다음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번호	내용	거의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보아줄 것을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조사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7	농사일을 서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농촌지역 사회에서 주관한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그 이유는?

(_____)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2) 몇 번 있다.

3) 많이 있다.

3-1. 귀하가 참여한 지역사회 행사 및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_____)

3-2. 참여한 행사 및 활동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_____)

4. 한국에 함께 와 있는 본국여성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1)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 (☞ 5번 문항으로 가세요)

2)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만 한다. 3) 6개월에 1번 정도

4) 1달에 1번 정도

5) 1주일 1번 정도

4-1. 본국여성들과 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납니까? (예, 복지관 한글교육모임에서)

(_____)

4-2. 본국여성들과 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까? ()

1) 자신의 부부관계

2) 임신, 출산, 자녀양육

3) 한국생활의 적응문제(한글, 요리, 문화 등)

4) 취업 정보

5) 본국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6) 기타 (_____)

4-3. 본국여성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예: 친정 경제적으로 돕기, 가정 소득 등)로 인해 남편과 다투거나 불화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

1) 없었다.

2) 약간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4-4. 본국여성들과의 만남이 귀하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도움이 안된다.

2) 별 도움이 안된다.

3) 그저 그렇다.

4) 도움이 되는 편이다.

5) 매우 도움이 된다.

5. 귀하는 한국여성들과 양모결연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6번 문항으로 가세요)

5-1. 양모결연 또는 자매결연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 1) 전혀 도움이 안됐다. 2) 별로 도움이 안됐다. 3) 그저 그렇다.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6.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웃들과 거의 왕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웃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역사회의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웃들은 나의 본국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이웃사람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한국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어느 나라 친구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 1) 본국인 친구 ____명 2) 한국인 친구 ____명 3) 제3국인 친구 ____명

F. 농촌생활 및 교육요구

1. 귀하는 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다(☞ 2번 문항으로 가세요) 2) 별로 없다
 3) 보통이다 4) 가끔 있다 5) 많이 있다

1-1. 귀하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경험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골라 적어주세요. (순위 1: _____, 순위 2: _____)

- 1) 생활문화 2) 부부관계 3) 자녀양육 4) 시부모와의 관계
 5) 이웃관계 6) 교육제도 7) 경제제도 8) 기타 (_____)

2. 귀하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아래와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교육 내용	받은 적이 없다	1-2회 받았다	3-4회 받았다	5회 이상 받았다	받으려고 등록했다
1	한국어(말하기, 읽기 등)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한국문화 이해교육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직업 및 기술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가족관계 증진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자녀 교육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취미 및 여가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8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만일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적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해당 되는 내용 모두에 골라 적어주세요.()

- 1) 현재 참여하고 있다.
- 2)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 주변에 없다.
- 3) 바쁜 생활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다.
- 4)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다.
- 5)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6) 참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
- 7)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8) 기타 ()

4.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3가지만 골라 그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 | | |
|-------------------|-----------------------|
| ① 한국어 교육 | ② 한국 요리 실습 교육 |
| ③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 | ④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 |
| ⑤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 ⑥ 직업기술 교육 |
| ⑦ 취미 및 오락 프로그램 교육 | ⑧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 교육 |
| ⑨ 컴퓨터 교육(IT 교육) | ⑩ 기타() |

5. 한글 교육을 지원해 준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
- 1) 공공건물에 모여서 집단 지도
 - 2)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지도
 - 3) 한 동네 사람을 인근 장소(예, 마을회관)에 모이게 해서 소집단 지도
6. 한글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
- 1) 말하기 2) 듣기 3) 읽기 4) 쓰기 5) 대화하기
- 6-1. 한글을 배우면서 특히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_____)
7. 군 소재지 등에 집합해서 교육한다면 그곳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
- 1) 있다. (☞ 8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없다.
- 7-1. 참석할 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
- 1) 교통편이 없어서 2) 농사일이 바빠서
 - 3) 가족들이 반대해서 4) 아이를 돌보아야 해서
 - 5) 기타 ()
8. 결혼 후 적응하는데 언제까지가 가장 힘들었나요? ()
- 1) 6개월 미만 2) 6개월-1년 미만 3) 1년 -2년 미만
 - 4) 2년-3년 미만 5) 3년 이상
9. 귀하가 현재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일주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 1) 주당 _____시간 (☞ 10번 문항으로 가세요)
 - 2) 미취업 (☞ 11번 문항으로 가세요)
10.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지난 3개월간 소득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 월 평균 만원
- 10-1. 귀하가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가족의 생계유지 2) 자녀교육비 충당 3) 노후대책
 - 4) 생활비 보충 5) 자기발전 6)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 7) 시간이 너무 많아 지루해서 8) 기타 ()

11.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 2)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3) 자녀양육 때문에 4)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 5) 한국말이 서툴러서 6)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로
- 7) 기타 ()

11-1 귀하가 취업을 하고 싶다면 다음 어떤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1) 필요 없다. 2) 창업교육 3) 자격증 취득 4) 취업알선
- 5) 훈련비 지원 6) 기타 ()

11-2 귀하가 취업을 위해 가장 관심 있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2가지를 골라 적어주세요.

- 1) _____ 2) _____ 3) 필요 없다.

① 컴퓨터 관련 자격증	② 간병인	③ 미용기술
④ 가사도우미(파출부)	⑤ 조리	⑥ 미장공
⑦ 원예	⑧ 도배공	⑨ 기타 ()

12. 한국에서 계속 농사일을 할 예정인가요? ()

- 1) 예 (☞ 12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아니오

12-1.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13. 정부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

- 1) 원한다. 2) 원하지 않는다. (☞ 13번 문항으로 가세요)

13-1. 영농교육시, 무엇에 대해 교육해 주기를 원하나요? (_____)

14.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1) 있다. 2) 없다.

14-1.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지원을 몇 번이나 받았나요? (종류 ____, ____ 회)

G. 일반적 사항

1. 귀하와 남편의 나이는 각각 몇 살입니까?

본인: _____세 남편: _____세

2. 귀하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_____

2-1. 귀하는 한민족이십니까? () 1) 예 2) 아니오

3. 귀하는 현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1. 귀하는 출생하신 국가의 국적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2. 아직 한국의 국적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취득하실 예정입니까? ()

1) 예 2) 아니오

4.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5. 귀하의 결혼은 몇 번째 결혼이십니까? ()

1) 초혼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재혼

5-1. 재혼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전 남편과 이혼 2) 전 남편 사별
3) 남편 가출 또는 실종 4) 기타()

6.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적어주세요. ()

1) 남편 2) 시아버지 3) 시어머니 4) 내 부모
5) 현 남편과의 자녀 6) 전 남편의 내 자녀 7) 남편의 전 부인 자녀
8) 남편의 형제자매 9) 내 형제자매 10) 기타()

7.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의 수, 성별,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순 위	성 별	연 령	학 교(학 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8.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_____도 _____시(군) _____동(면)

9.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 1) 자가(본인 또는 남편 소유) 2) 자가(부모 소유) 3) 전세 4) 월세
 5) 공공임대아파트 6) 친척집 7) 하숙 8) 사원아파트
 9) 기타 ()

10.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 6) 대학교 7) 대학원 이상

10-1. 귀하가 정규학교를 다닌 햇수는 총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부터) _____ 년

11. 귀하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

12. 귀하는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13.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은? ()

- 1) 없다 2) 1년 미만 3) 1년-2년 미만
 4) 2년 -3년미만 5) 3년-4년 미만 6) 4년- 5년 미만
 7) 5년 이상

1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1) 종교 없음 2) 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통일교 8) 기타()

15. 귀하는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아주 안 좋은 편이다.
 - 2)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좋은 편이다.
 - 5) 아주 좋은 편이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남편용

자료번호:

--	--	--	--

질 문 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결혼을 한 농촌 여성들의 적응을 돕고자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귀하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적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지에는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며 본 연구의 자료로서 통계수치로만 발표될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셔야 현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ysh@snu.ac.kr

전화 82-2-880-5765, 5767

8. 귀하는 부인을 만나기 전에 현재 부인의 신상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던 것을 모두 적어주세요. ()
- 1) 부인의 나이(연령) 2) 부인의 학력과 직업 3) 부인의 가정환경
4) 부인의 혼인 전력과 자녀 5) 결혼 후 동거할 가족원
9. 귀하에게 부인의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 1) 결혼정보업체 2) 친구 3) 부인의 가족, 친척 등 4) 기타 ()
10. 귀하가 결혼을 결정할 때 제공받았던 부인에 대한 정보가 결혼 후 실제 사실과 일치하였습니까? ()
- 1) 일치했다. (~~11~~ 11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약간 달랐다. 3) 전혀 달랐다.
- 10-1. 결혼 후 알고 보니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다른 점을 모두 고르세요. ()
- 1) 부인의 직업 2) 부인의 학력
3) 부인의 소득수준 4) 부인의 가족관계
5) 부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여부 6) 부인의 성격
7) 기타 ()
11. 귀하나 부인이 서로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
- 본인 () 1) 없다. 2) 있다. (_____원)
 부인 () 1) 없다. 2) 있다. (_____원)
12.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 1) 지원받은 것이 없다. 2) 지원받았다. (어디서 _____, _____원)

B. 결혼생활

1. ‘부인의 한국어 실력’과 ‘귀하의 아내 나라 말 실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구분		매우 능숙하다	약간 잘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부인의 한국 말 실력	a.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b. 듣기	①	②	③	④	⑤
	c. 읽기	①	②	③	④	⑤
	d. 쓰기	①	②	③	④	⑤
나의 아내 나라말 실력	e.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f. 듣기	①	②	③	④	⑤
	g. 읽기	①	②	③	④	⑤
	h. 쓰기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 이후 부인의 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____ 번) 2) 없다.

2-1. 있다면 언제 누구와 다녀왔습니까?

언제 _____ 누구와 _____

3. 부인과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1) 전혀 안 한다. 2) 거의 하지 않는다.
3) 보통 정도로 한다. 4) 자주 하는 편이다.

4. 부인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 하십니까? ()

- 1) 하루일과 2) 시부모 및 직계가족(시누이, 삼촌, 동서 등)
3) 자녀양육 및 교육 4) 친척 및 주변이웃사람들
5) 앞으로의 인생계획 6) 가치관
7) 돈 관리 8) 취업
9) 기타()

5. 귀하는 다음의 일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자주 하는 편이다	항상 한다
1	가사(식사준비, 시장보기, 빨래, 청소 등)	①	②	③	④	⑤
2	육아(자녀와 놀아주기, 돌보기, 숙제 도와주기 등)	①	②	③	④	⑤
3	모임참석(친척 길·홍사, 반상회나 주민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4	공공업무(구청, 은행 일 보기, 청구서 납부 등)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가 현재 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한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생긴 것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3	농사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집안일을 할 사람이 생겨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현재 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예절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못마땅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친정을 도우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혼혈인이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양육과 교육에 미흡한 것이 불만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부인의 본국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드리지 못하였다. (☞ 9번 문항으로 가세요)
- 2) 드린 적이 있다.

8-1. 어떤 형태로 경제적 도움을 드렸습니까? 빈 칸에 금액이나 횟수를 적어주세요.

- 1) 매월 생활비 _____ 만원
- 2) 명절 때 ____ 회 총 _____ 만원
- 3) 땅이나 소 등 영농자금 _____ 만원
- 4) 친정 일이 생겨 특별히 경제적 도움을 요청 _____ 만원
- 5) 기타 ()

9. 다음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부인을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친정보다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식을 위해서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부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인을 신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부인과 다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 표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사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남편과 부인이 함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인의 직업은 남편의 직업과 똑같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의 성공이 부인의 성공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귀하가** 부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다음의 행동들을 귀하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부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모욕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며칠간 부인과 말없이 지냈다.	①	②	③	④	⑤
4	앉아서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말로 상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난 1년간 귀하와 부인 사이에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 적어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 | | |
|----------------------------|-------------------|---------------|
| 1) 성격 | 2) 생활습관 | 3) 사고방식(가치관) |
| 4) 건강 | 5) 대화(의사소통) | 6) 부부간의 성생활 |
| 7) 애정이나 관심 | 8) 외도나 부정 | 9) 금전관리 및 소비 |
| 10) 가사노동 분담 | 11) 시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 12) 자녀양육 및 교육 |
| 13) 사회적 활동(모임 참석, 종교 활동 등) | 14) 취업 및 직업 | |

C. 자녀양육 및 교육

1.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 1) 건강하게 자라는 것 | 2) 공부 잘하는 것 | 3)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
| 4)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 5)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 | |
| 6)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 7) 기타 () | |

2. 귀하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장 관심을 두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 가지를 적어주세요. (, ,)

- | | | |
|------------|---------------------|-----------------|
| 1) 식습관 | 2) 배변훈련 | 3) 건강과 안전사고 |
| 4) 친구관계 | 5) 가족 및 주변사람에 대한 예절 | 6) 학업성적 |
| 7) 언어발달 | 8) 훈육방법 | 9)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
| 10) 기타 () | | |

3. 가정에서 부인과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말을 다투거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다.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 2) 가끔 있다.
- 3) 종종 있다.
- 4) 매우 자주 있다

3-1. 자녀양육과 교육과 관련해 무엇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습니까? ()

- 1)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다른 가치관 및 방식
- 2) 자녀 사교육비 문제
- 3) 자녀의 학업 및 학교성적
- 4) 자녀의 친구관계
- 5) 자녀와 교사의 관계
- 6) 자녀의 영양 및 건강문제
- 7) 기타 ()

4. 귀하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부인에게 도움을 주십니까?
()

5. 귀하는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

- 1) 거의 하지 않는다.
- 2) 이따금씩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3) 매일 조금씩 한다.
- 4) 자녀의 일상을 잘 알 만큼 충분히 많이 한다.
- 5) 너무 어려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없다.

6. 귀하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

- 1) 책을 읽어준다.
- 2) 이런 저런 이야기(예: 학교생활, 친구관계)를 나눈다.
- 3) 자녀와 놀이, 게임, 운동 등을 한다.
- 4)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공부를 가르친다.
- 5) TV를 본다.
- 6) 가사일(식사준비, 집안청소 등)을 한다.
- 7) 기타 ()

7. 귀하는 앞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영농일에 종사하기를 원하십니까? ()

- 1)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 2) 별로 원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조금 원한다.
- 5) 매우 원한다.

8. 다음은 귀하의 평상시 자녀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로 인해 부부는 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무래도 딸보다는 아들을 낳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부모나 남편의 자녀교육방식이 나와 다를 때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겠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잘못된 경우, 말로 타이른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잘한 경우, 칭찬을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잘못된 경우,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만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생활태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1. 귀하의 부모님이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들이 결혼하여 행복한 모습에 만족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손자녀가 생긴 것에 기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며느리가 농사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말벗이 생긴 것에 기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집안일을 할 사람이 생겨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노년에 며느리가 대를 이어 집안 살림을 꾸려갈 것이라 기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의 부모님이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예절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못마땅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친정을 도우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손자녀가 혼혈인이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손자녀 양육과 교육에 미흡한 것이 불만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부인은 한국에 함께 와 있는 본국여성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 1)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 (☞ E 파트로 가세요)
- 2)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만 한다.
- 3) 6개월에 1번 정도
- 4) 1달에 1번 정도
- 5) 1주일 1번 정도

3-1. 본국여성들과 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납니까? (예, 복지관 한글교육모임에서)
(_____)

3-2. 부인이 본국여성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예: 친정 경제적으로 돕기, 가정 소득 등)로 인해 부인과 다투거나 불화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
1) 없었다. 2) 약간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3-3. 부인이 본국여성들과 만나는 것이 결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도움이 안된다. 2) 별 도움이 안된다. 3) 그저 그렇다.
4) 도움이 되는 편이다. 5) 매우 도움이 된다.

E. 농촌생활 및 교육수요

1. 귀하는 부인의 나라와 한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번 문항으로 가세요) 2) 별로 없다
3) 보통이다 4) 가끔 있다
5) 많이 있다

1-1. 귀하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부인의 나라와 한국의 문화차이를 경험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적어주세요. (순위 1: _____, 순위 2: _____)
1) 생활문화 2) 부부관계 3) 자녀양육 4) 친가와의 관계
5) 이웃관계 6) 교육제도 7) 경제제도 8) 기타 (_____)

2. 현재 가정의 영농규모는 어떠한가요? ()
1) 0.1 hr (300평) 미만 2) 0.1-0.5 hr (300-1500평)
3) 0.5-1 hr (1500-3000평) 4) 1-1.5 hr (3000-4500평)
5) 1.5-2 hr (4500-6000평) 6) 2-2.5 hr (6000-7500평)
7) 2.5-3 hr (7500-9000평) 8) 3 hr (9000평) 이상

3. 귀하의 부인이 현재 농사일을 얼마나 돕습니까? ()
1) 집안 살림(식사준비, 청소, 세탁, 육아)만 담당한다.
2)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준다.
3)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한다.
4)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농사일을 한다.

4. 앞으로 부인이 농사일을 얼마나 돕길 원하십니까? ()

- 1) 집안 살림(식사준비, 청소, 세탁, 육아)만 담당하길 원한다.
- 2)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주길 원한다.
- 3)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해주길 원한다.
- 4)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농사일을 하길 원한다.

5. 정부에서 부인에게 영농교육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5-1. 그렇다면 무엇을 교육해 주기를 원하나요?

- 1) 채소 등 밭농사법
- 2) 논농사법
- 3) 하우스재배법
- 4) 특화작물재배법
- 5) 기타()

5-2. 영농 교육을 지원해 준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한 가지**만 고르세요. ()

- 1) 공공건물에 모여서 집단 지도
- 2) 가정을 방문해서 개별 지도
- 3) 한 동네 사람을 한 가정에 모이게 해서 소집단 지도

6.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1) 있다.
- 2) 없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6-1. 어떤 지원을 몇 번이나 받았나요? (종류 _____ , _____ 회)

6-2. 받으신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7.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3가지만 골라 그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 | | |
|------------------|-----------------------|
| ① 국제결혼에 대한 남편교육 | ② 부인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
| ③ 부인 국가의 언어교육 | ④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 |
| ⑤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 ⑥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 교육 |
| ⑦ 기타 () | |

8. 귀하께서 국제결혼 및 부부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누가 교육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 1) 시군청 관련 공무원 2) 농업기술지원센터 관계자 3) 결혼중개업체
4) 민간 상담소 5) 기타 ()

9. 귀하의 부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3가지만 골라 그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 | | |
|-------------------|-----------------------|
| ① 한국어 교육 | ② 한국 요리 실습 교육 |
| ③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 | ④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 |
| ⑤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 ⑥ 직업기술 교육 |
| ⑦ 취미 및 오락 프로그램 교육 | ⑧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 교육 |
| ⑨ 컴퓨터 교육(IT 교육) | ⑩ 기타 () |

10. 부인의 한글 교육을 지원해 준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

- 1) 공공건물에 모여서 집단 지도
2) 가정을 방문해서 개별 지도
3) 한 동네 사람을 한 가정에 모이게 해서 소집단 지도

11. 군 소재지 등에 집합해서 교육한다면 부인이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

- 1) 있다. 2) 없다.

10-1. 할 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

- 1) 교통편이 없어서 2) 농사일이 바빠서
3) 가족들이 반대해서 4) 아이를 돌봐야 해서 5) 기타 ()

F.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와 부인의 나이는 각각 몇 살입니까?

본인: _____세 부인: _____세

2.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3. 귀하의 결혼은 몇 번째 결혼이십니까? ()

1) 초혼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재혼 3) 세 번째 이상

3-1. 재혼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전 부인과 이혼 2) 전 부인 사별 3) 별거
4) 부인 가출 5) 기타 ()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적어주세요. ()

1) 부인 2) 아버지 3) 어머니 4) 부인의 부모
5) 현 부인과의 자녀 6) 전 부인의 내 자녀 7) 부인의 전 남편 자녀
8) 내 형제자매 9) 부인의 형제자매 10) 기타 ()

5.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의 수, 성별,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순 위	성 별	연 령	학교(학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6.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_____도 _____시(군) _____동(면)

7.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자가(본인 또는 남편 소유) 2) 자가(부모 소유) 3) 전세
4) 월세 5) 공공임대아파트 6) 친척집
7) 하숙 8) 사원아파트 9) 기타 ()

8. 귀하의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 6) 대학교 7) 대학원 이상

8-1. 귀하가 정규학교를 다닌 햇수는 총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부터) _____ 년

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_)

9-1. 귀하는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10.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10-1.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1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1) 종교 없음 2) 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통일교 8) 기타 ()

12. 귀하는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아주 안 좋은 편이다. 2)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좋은 편이다. 5) 아주 좋은 편이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